

폴란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3
외교관계 / 5
주한주재 국기관 / 6
한국과의 주요이슈 / 7

II. 경제

경제정책 /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9
주요 산업 동향 / 11
정보조사 자료원 / 16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19
무역통계 / 19
투자통계 / 222

IV. 출장가이드

기후 /	24
시차.근무시간 /	25
도량형 /	26
출입국.비자 /	26
환율.환전 /	28
물가정보 /	29
교통.통신 /	32
호텔.식당 /	34
관공서 관행 /	39
공휴일 /	39
여행시 유의사항 /	40
유용한 연락처 /	41
관광명소 /	45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55
수입규제제도 /	56
관세제도 /	57
주요인증제도 /	58
지적재산권 /	61
소비자보호제도 /	62
교역관련 국가기관 /	62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6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5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7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68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69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69
운송 /	70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74
유형별 분쟁사례 /	75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75

우리기업 투자동향 / 78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79

투자인센티브 / 83

타당성조사 / 85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88

입지선정 / 91

공장 설립 / 94

투자관련 정부기관 / 95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101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02

조세제도 / 106

외환관리 / 110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11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위 치	중부 유럽
면 적	312,685 km ² (한반도의 1.4배)
기 후	유럽 서부의 해양성 기후와 동부의 대륙성 기후
수 도	바르샤바 (Warszawa; Warsaw)
인 구	38,200천명
주요 도시	인구 20만 이상 도시 WARSZAWA(1,635천명), WROCLAW(640), LODZ(815), KRAKOW(740) POZNAN(580), GDANSK(463), BYDGOSZCZ(387), LUBLIN(356) KATOWICE(350), CZESTOCHOWA(259), RADOM(233), KIELCE(214)
민족(인종)	폴란드인 (서 슬라브계의 한 족속인 POLANIE의 자손) 98% 이상. 기타 소수 민족으로 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 백 러시아인, 남서부 지역 의 독일계, 유대인(1만5천명) 등
언 어	폴란드어 (슬라브 어 계통)
종 교	로만 가톨릭(97%), 그리스 정교, 프로테스탄트교 등(3%)
건국(독립일)	1918.11.11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국 분할 시대 종료)
정부 형태	의회 공화제 (PARLIAMENTARY REPUBLIC)
국가 원수	대통령: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nski) 총리: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입 법 부	양원제 (상원 100석, 하원 460석)
정 당	여당 PiS (법과 정의당) 정부 성향: 중도 우파

나. 경제 지표 (2005년 기준)

GDP	US\$ 3,028억
경제성장률	3.4%
1인당 GDP	US\$ 7,937
실 업 률	17.6%
물가 상승률(연평균)	2.2%
화폐단위	Polish Zloty(PLN/주위티/지페), Groszy(그로셰, 동전)
환 율	연평균 3.2348
외채(대외 부채)	US\$ 1,160억
외환 보유고	US\$ 426억
산업구조	농림수산 4.5%, 공업 22.5% (광업 2.3, 제조업 16.9, 유틸리티 3.3), 건설업 4.9%, 서비스업 56.6% (상업·수선 16.8, 부동산·임대 12.0, 수송·보관·통신 6.3, 금융중개 3.5 등)
교역 규모	수출: US\$ 893억 수입: US\$ 1,009억
교 역 품	원유, 자동차, 의약품, 선박, 자동차 부품, 컴퓨터 등 (수입) 자동차, 선박, 자동차 부품, 가구, 내연기관, TV 등 (수출)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다. 한-폴란드 관계

체결 협정	체육 협력 의정서 (협정일 89.5/발효일-) 투자 보장 협정 (89.11/90.2.2) 무역 협정 (89.11/90.2.2), 항공 협정 (91.10/92.4.3) 이중과세 방지 협정 (92.1/92.2.21) EDCF차관 공여 각서 교환 (-/93.2.11) 문화 협정(93.6/94.10.3), 과학 기술 협력 협정(93.6/94.10.3) 비자 면제 협정(93.11/94.10.3) 표준화 협력 양해 각서 (98.9/98.9) 경제 협력 협정(04.12.3), 관광 협정(04.12.3), 청소년 체육 교류 협정(04.12.3)
교역 규모 (2005년)	한국의 수출: US\$ 1,175백만 불 한국의 수입: US\$ 116백만 불
교역 품	- 한국의 수출: 칼라TV, 무선 전화기, 자동차 부품, 승용차, 폴리에스터 직물, 합성수지, 에어컨 등 - 한국의 수입: 선박,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냉장고, 가축육류, 원동기, 직물제 의류 등
투자 교류	754.4백만 불(74건, 한국의 투자 진출) / 329천불(투자 유치)
교민	영주권 소유자 10명 내, 체류자 781명 (06년 6월 현재)

자료원: KOTIS, 수출입 은행 등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정치제도

폴란드는 의회 공화제(Parliamentary Republic) 국가이다.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체제이다. 1997년 4월 2일 제정되어, 10월17일 발효된 신 헌법에 따라, 폴란드의 정치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분립 및 균형에 근거하고 있다.

나. 행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총리 및 외무장관과 협의)하며, 軍 수장의 역할을 수행(국방장관을 통해 권한 행사)하며, 사면권, 총리 임명권 등을 가진다. 대통령은 임기 5년에 중임 가능하며 직선제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지명 후 하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총리의 주요 권한은 행정부 지휘 및 대내외 정책 수행, 법률 이행, 예산안 작성 및 집행, 외교 및 국방정책의 수행, 국제조약의 체결, 실질적인 각료 임명권(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 등이다.

다. 입법부(의회)

양원제로 상원(Senate)과 하원(Sejm)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의석수는 하원(Sejm) 460명, 상원 100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법률을 채택하고 국가행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여타 국가 기관의 활동에 대해 감독한다. 하원에서 제정된 법률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된다.

상원은 하원에 비해 그 권한이 크지 않다. 하원의 법률(안) 의결 후 30일 이내 수정 및 거부할 권한이 있다. 상원에 의해 수정 또는 거부된 법안은 하원 재적의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이 재의결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라. 사법부

사법부는 법원(대법원, 최고행정법원, 일반법원) 및 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가지며, 재판은 최소 2심제로 진행된다. 법관은 국가사법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마. 지방조직

폴란드의 지방 행정 조직은 16개의 주(Voivodship, 우리나라의 道에 해당), 380개의 군(Powiat)과 2,478개의 면(Gmina)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2006.8))

3. 주요 인사

가. 대통령

- 성 명: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nski)
- 생년월일: 1949.6.18
- 가족사항: 기혼, 1녀
- 학 력
 - 바르샤바 대학 법대 졸업(1971년)
 - 그단스크 대학 법학박사(1980년)
- 경 력

1971-80	그단스크 대학 교수
1977-78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KOR) 자문위원
1978-80	자유노조 설립위원
1980-81	Solidarity 자유노조 그단스크 지방 집행위원
1981-82	게엄령 선포 후 구금
1982-86	Solidarity 자유노조 활동(바웬사 자문위원)
1986-88	Solidarity 자유노조 임시전국위원(그단스크 대표)
1988-89	Solidarity 자유노조 전국위원회 사무총장
1989-91	상원의원
1990-91	‘솔리대리티’ 자유노조 부위원장

1991	대통령실 국가안보위원장
1991-92	하원의원
1992-95	감사원장
2000-01	법무부 장관
2001-02	법과정의당 총재
2001-02	하원의원
2002-05	바르샤바 시장
2005.10.23	대통령 당선 (2005.12.23 취임)

나. 총 리

- 성 명: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
- 생년월일: 1949.6.18
- 가족사항: 미혼, 노모와 같이 거주
 - 쌍둥이 동생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ński)는 현 대통령
- 학 력
 - 바르샤바 대학 법대 졸업
 - 법학박사
- 경 력

1970년대	노동자 보호위원회 활동
1980년대	자유노조(Solidarity) 전국위원회 사무총장
1989-90	상원의원, 자유노조의 주간지(Solidarity Weekly) 편집장
1990-91	바웬사 대통령 비서실장
1991-93	하원의원
1997-현재	하원의원
2001	‘법과 정의당(PiS)’ 창립
2003-현재	‘법과 정의당’ 총재
2006.7	총리 취임

다. 내각 각료 명단

부처명 (영문)	장관 성명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and Administration)	Ludwik Dorn *
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Roman Giertych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ndrzej Lepper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na Fotyga
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Grazyna Gesicka
국고부(Ministry of State Treasury)	Wojciech Jasinski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Antoni Jaszczyk
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Anna Kalata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Stanislaw Kluza
체육부(Ministry of Sport)	Tomasz Lipiec
수송부(Ministry of Transport)	Jerzy Polaczek
보건부(Ministry of Health)	Zbigniew Religa
과학·고등교육부(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Michal Sewerynski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adoslaw Sikorski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Jan Szyszko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Kazimierz Michal Ujazdowski
해양경제부(Ministry of Marine Economy)	Rafal Wiechecki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Piotr Grzegorz Wozniak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Zbigniew Ziobro

자료원: 폴란드 관련 웹사이트 (www.kprm.gov.pl/english/ 등)

주: *는 부총리급

4. 외교관계

1989년 9월 공산당 지배체제의 종식 이후 폴란드는 소련에 대한 종속외교에서 독립하여 자주 외교로 전환하면서 외교 노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유럽과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소련 붕괴로 탄생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리투아니아로 인해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멀어졌다. 또, 독일 통일로 인해 서유럽과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폴란드 외교의 목표는 주권 보전, 안보 확보, 경제 문화발전 등이다. 1989년 이후 폴란드 외교의 최대 목표는 서구와의 관계 발전이었다.

□ 폴란드 외교정책의 주된 방향

가.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

- 대서양 양안체제에 편입하여 안전보장을 확보한다는 정책에서 1999.3.12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
- 상호 합동작전 수행능력 배양, 군사통신시설 호환체제 정비 노력 계속, NATO 신속군에의 참여 등

나. EU 가입 및 서구권으로의 편입

- 2004.5.1 EU(유럽연합)에 정식 가입했으며, 서구로의 편입에 따른 사회 각 분야에서 변혁 추진 중
- 폴란드는 EU 가입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동부유럽 지역에서의 핵심적인 세력으로서 위상 추구 및 역할을 자처

다.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평화공존 유지

-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요소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 및 선린정책을 병행.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관계의 부침이 잦은 상태임
-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발트 3국 등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 도입을 적극 지원, 이들의 러시아와 폴란드간 완충 역할을 기대
- 중동구권 국가들과는 중부유럽제안(Central European Initiative: 17개국),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4개국) 및 발트해국가협의회(Council of Baltic Sea States: 11개국) 등 정례 협의체를 구성, 지역 정세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

라. 친미정책 추진으로 실리 추구

- 유럽국가이나, 주변국에 의한 침략 및 유럽 내 동맹국에 의한 배신을 경험하여 폴란드의 안보정책은 초강대국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에 주력
- NATO 가입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고, 따라서 유럽이 독자적으로 추구하려는 공동 방위체 결성에는 반대하는 입장
- 2003년 4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소규모 전투병을 파병한 후 안정화군 파견, 다국적군으로 편성된 ‘폴란드 사단’이 이라크 중남부지역을 관할하는 등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 역할을 하고 있고, 테러와의 전쟁, PSI, MD 등 미국 주도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음: 미국도 폴란드를 주요 우방국으로 간주, 2005년 6,6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 제공
- 친미 일변도 정책은 폴란드와 유럽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향후 친미 정책과 유럽통합정책 간의 조화가 과제

(자료원: 주 폴란드 한국대사관 및 기타 자료 종합)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폴란드 기관

주한 폴란드 대사관을 제외하면,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폴란드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주한 폴란드 대사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70
- 전화: 02-723-9681
- 팩스: 02-723-9680
- 웹사이트: www.polandseoul.org
- 이메일: ebassy@polandseoul.org

*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상무실(commercial section)에는 다음 2명이 경제업무를 보고 있다.

- Counselor: Mr. Marek Machowski (marekm@kornet.net)
- 2nd Secretary: Mr. Filip Hewelke (filiph@kornet.net)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6. 한국과의 주요이슈

한국은 폴란드와의 교역에서 전통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출초국의 위치를 지켜 왔다.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커질수록 무역 불균형도 따라서 커지는 구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대 폴란드 수출은 11억 7,496만 달러에 도달한데 반해 한국의 수입은 1억 1,623만 달러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10억 5,873만 달러를 기록했다.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은 한국-폴란드 간 교역의 확대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폴란드 측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 폴란드 측은 그간 수 차례 무역 불균형에 대한 한국측의 배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불균형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보면, 양국간 잠재력을 개발하여 교역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폴란드 상품의 한국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국측의 배려를 요청하는 것 등인데 특히, 폴란드는 자국산 농축산물(돼지고기 등), 식품 등의 한국 시장 진입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폴란드의 대 한국 무역 적자 확대는 최근 한국 기업의 폴란드 투자 진출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투자 기업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또는 기계장비 반출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 진출 한국 제조업체들은 현지 생산품을 서유럽 등지로 수출함으로써 폴란드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LG 전자 폴란드 생산법인의 경우 생산 물량의 90% 정도를 서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2005년 총 매출은 약 9억 달러).

이와 관련, 한국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폴란드 측에 투자 진출 확대를 비롯한 수지 불균형의 원인을 인지하게 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고용이나 수출을 통해 폴란드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對 폴란드의 무역수지 추이 (2000년 ~ 2005년)

(단위: 천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0	528,449	56,434	472,015
2001	336,568	45,571	290,997
2002	349,019	47,111	301,908
2003	382,254	73,548	308,706
2004	807,233	88,789	718,445
2005	1,174,964	116,234	1,058,730

자료원: 한국 무역 통계 등 자료 종합 (2006.8)

II.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7. 경제정책

가. 경제정책의 방향

지난 2005 년 9 월 실시된 폴란드 총선에서 중도우파 야당인 PiS(법과 정의당)가 좌파연합 여당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PiS 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친화적이며,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 사회안 전망 등 유지)를 중시한다. 총선에서 승리한 PiS 는 당초 제 2 당인 PO(시민연단)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PO 와의 협상에 실패했고, 여타 군소 정당의 도움을 받아 소수파 정부(minority government)를 구성했다.

신정부의 총리인 카지미에르즈 마르친키에비츠(Kazimierz Marcinkiewicz)는 총선 후 경제 정책의 5 대 방향을 제시했는데 ①고용을 통한 성장(일자리 창출기업에 법인세, 사회보장세 감면 등), ②기업 친화적 법규(인허가 축소, 기업설립기간 단축, 준조세 철폐 등), ③강력한 투자(EU 기금 흡수, 대규모 주택 건설 등), ④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이자율 인하, 재정적자 300 억 PLN 선 이하로 유지 등), ⑤공공재정의 투명성 등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당시 공약의 핵심사항의 하나였던 조세체계 개선은 빨라야 2007 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친키에비츠 총리는 조세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6 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신정부의 경제정책 내용

PiS의 폴란드 신 정부는 2005년 11월 마르친키에비츠 총리의 대의회 시정연설 및 정책 보고서 제출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열악한 인프라, 높은 실업률, 저임금, 기업활동상 장애, 정부 부채 증가, EU 가입 후 빈부격차 증가 등으로 규정하고 향후의 정책으로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 공공재정 개선, 조세 제도 개혁, EU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인프라 건설, 사회복지 제공 등을 제시 했다.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분야	세부 정책 방향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	- 실업자 취업교육 강화 - EU 회원국 중소기업의 폴란드 투자 장려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 창출 - 행정규제 완화, 인허가 축소, 기업활동 관련법규 단순화 등
공공재정 개선	- 재정적자를 연간 300억 PLN 이하로 제한 - 3개년 예산안 수립 - 개방형 연금(Open Pension Funds)을 정부 재정의 - 일부로 포함토록 EU와 협상 → 재정적자 축소
조세제도 개선	- 개인소득세 2단계로 단순화: 18%, 32% - 저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 2006년부터 자본소득세 폐지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 EU 기금, 정부 예산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 가속화 - 주택 건설 지원 - EU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치

민영화	- 방송사, 우편, 에너지, 은행 등 주요 부문의 민영화 미 실시 - 공개상장을 통한 민영화 추진을 통해 증시와 금융 - 시장의 활성화
에너지	- 천연가스 공급원의 다변화 - 우크라이나 원유관을 폴란드로 연결 - 에너지시장 경쟁력 강화
기타 사항	- 의료보험제도 개선 - 농업 및 농촌 발전 촉진 - 연금제도의 개선: 개방형 연금의 종신 혜택, 특정집단(광부 등)의 연금 수혜 특혜 근거 마련

폴란드에서는 신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긍정 및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활동 촉진, 조세제도 단순화, EU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 인프라 건설 및 개선 등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세금 인하, 사회복지 지출 확대, 그리고 예산적자의 감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정책은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예산적자를 300억 PLN으로 감축 하겠다는 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행정기구의 축소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큰 재원이 들어가는 사회복지 비용의 감축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2006년 7월 마르친키에비츠 총리가 사임하였고, 뒤를 이어 집권여당 PIS의 당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가 신임총리로 취임하였다. 총리 경질에 따라 경제 정책에서 일부 변화도 예상할 수 있으나, 정권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6.8))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06년 1분기 성장률 5.2%

2004년 5.3%의 성장률로 97년 이래 최고를 보인 폴란드 경제는 2005년 다소 주춤했으나, 2006년 들어 1분기중 5.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완전한 회복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5.2%는 분기별 성장률로는 지난 2004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2005년 폴란드 경제는 연초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6년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1분기 실적은 이를 확인해 주었다.

폴란드의 경제성장 추이(실질 GDP 성장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0%	1.0%	1.4%	3.8%	5.3%	3.4%	5.0%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주: * 2006년은 전망치

분기별 성장률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6.8	5.9	4.9	4.0	2.2	2.9	3.9	4.3	5.2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전문가들은 1분기의 예상보다 높은 실적에 고무되어 연간 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다. 폴란드 재무부도 최근 올해 성장 전망치를 4.6%에서 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나. 2006년 1분기 경제 부문별 동향

1분기 경제동향의 특징이라면, 그간 주된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온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낮아진 대신 민간소비(individual consumption)의 기여도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5.1%로 직전 분기(2005년 4분기, 2.8%) 및 전년동기(1.4%) 실적 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민간소비 호조는 실업률 감소, 가처분소득 상승(낮은 물가상승률, 家口에 대한 소비자 신용 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다. 1분기 중 기업부문의 월평균 임금도 2,540 PLN(약 790달러)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7% 높아졌다.

또한, 기업의 투자도 호조세인데 1분기 총 고정자본 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7.4% 증가했다. 이는 2005년 4분기의 10.1%에 비해 낮아진 것이지만, 지난 겨울 유례 없는 강추위로 연초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음을 감안하면 괜찮은 실적이란 평가이다. 앞으로 투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EU 기금의 보다 원활한 활용에 힘입어 연간 투자 증가율이 9.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은 여전히 경제에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분기 수출은 213억 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20.7% 증가했고, 수입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15억 유로에 달해 전년동기에 비해 20.5%나 늘어났다.

2005년 후반의 생산 호조가 1분기에도 이어져서 산업 생산이 12.4%나 늘어났고, 대부분 분야에서 생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제조업 부문이 13.8%로 가장 높았다. 한편, 2005년 하반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던 건설 분야는 2006년 1, 2월 강추위의 영향으로 부진했으나, 3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고 1분기 전체로는 4.5% 신장되었다.

최근의 성장 가속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압력은 크지 않다.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6%에 그쳤고, 2006년 연간으로는 1.5%로 예측되어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 향후 전망

1분기 5.2% 성장에 따라 올해 폴란드 경제는 5% 내외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경제동향의 특징이라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대신 민간소비 및 투자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경기호조의 영향으로 1분기 수입 증가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수입시장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폴란드의 수입은 2003년 이후 매년 두 자리 수로 신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수출입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 출	361	410	536	738	893
수 입	503	551	680	879	1,009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경제부 보고서 등 종합(2006.8)

9. 주요 산업 동향

가. 자동차

최근 폴란드의 승용차 분야는 수출, 생산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내수시장은 극도의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2004년, 2005년 서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생산도 확대되어 2005년 승용차 생산량은 54만대로 1999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폴란드 생산 승용차의 80~90%가 수출됨). 그러나,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중고차 유입 폭증이란 직격탄을 맞은 판매시장(내수)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전문 조사기관 SAMAR에 의하면, 2005년 신규 승용차 판매는 235,521대에 그쳐 2004년에 비해 26%가 감소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판매순위 상위 10대 메이커 중 시트로앵을 제외한 모든 메이커의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들어서도 승용차 판매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8% 감소).

최근 폴란드의 신규 승용차 판매 추이

(단위: 천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03.4	353.6	318.1	235.5

2005년 주요 메이커별 판매대수를 보면 스코다가 27,649대(전년대비 30% 감소)를 판매하여 수위를 차지했는데 시장점유율은 11.7%를 기록했다. 도요타는 25,700대(전년대비 23.3% 감소)를 판매하여 2위를 차지했고, 전통적으로 마켓리더였던 피아트는 24,508대(53.9% 감소)를 판매하는데 그쳐 3위로 떨어졌다. 다음으로 오펔 (22,648대), 포드 (18,660대), 르노 (16,238대), 푸조 (15,144대), 시트로앵 (13,157대), 폴크스바겐 (12,423대), 혼다 (9,762대) 등의 순이었다.

신차 판매시장이 침체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역시 EU 가입 후 서유럽으로부터 중고차 수입의 폭발적인 증가를 들 수 있겠다. 2004년에만 무려 82만 8천대의 중고차가 유입되었고, 2005년에도 수십만 대가 들어와 중고차 범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한해 수입된 중고차가 3만5천대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중고차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EU 가입 후 중고차 유입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나. 가정용 전자

2005 년 폴란드의 가전제품 시장규모는 90 억 PLN (약 27 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가전제품 전반에 나타난 가격 하락세가 없었다면, 매출기준 시장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을 것이다(가전 시장은 최근 수년간 판매량 기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전자제품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때문에 판매액 기준으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06 년 들어서도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계 신용 정보사 Dun & Bradstreet 는 상반기 중 가전제품 판매가 전년동기에 비해 10% 늘어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지 가전전문 조사기관들은 향후 시장에 대해 밝게 보고 있다. HGM 은 폴란드 가전시장이 상승국면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폴란드 전자시장연구소(Electronics Market Institute)도 향후 전자 및 가전시장의 매출액이 연간 10%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폴란드 가전시장의 시장가치

(단위: 백만 PLN)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추정)
7,880	8,030	8,740	9,000

자료원: 일간지 Rzeczpospolita

주: 최근 환율: 1달러는 약 3.3PLN

2003 년 이래 폴란드 경기상승과 이에 따른 家口 구매력 상승은 가전시장의 앞날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폴란드인들이 기존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이전에 구입한 적이 없던 제품을 구매할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체 폴란드 가구의 85%가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가구는 조만간 교체해야 할 오래된 제품을 아직 많이 보유한 상황이다. 최근 건설업의 상황도 가전업체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 2005 년부터 건설업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바, 추후 가전업체의 매출 증대로 연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점증하는 가전시장을 놓고 대형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5년 하반기에는 영국의 대형 가전 유통체인 DSG International(舊 Dixons)이 폴란드 시장에 새로 진입하여 현지 관측통들은 경쟁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fK Polonia 관계자는 가전제품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오래된 모델에 디스카운트를 주는 대형 체인스토어의 존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 IT 시장

최근 경기 호조와 EU 가입 후 IT 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출 증가에 힘입어 폴란드 IT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조사기관 DiS에 의하면, 2005년 폴란드 IT 시장의 가치는 5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004년(41억 3천만 달러)에 비해 20% 이상 확대된 것이다. (단, 현지화인 주위티[PLN] 기준 증가율은 7.2%에 그쳤는데 이는 현지화 강세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T 시장의 각 분야,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 모두 두 자리 수로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IDC, 피라미드 리서치(Pyramid Research) 등 전문조사기관들은 2010년까지 폴란드 IT 시장이 연평균 10%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아래 표 참조).

폴란드 정보통신시장의 모습 (현황과 전망)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화라인(100명당)	31.2	31.8	31.6	31.5	31.7
이동통신 가입자(100명당)	45.4	60.4	72.5	79.9	84.3
인터넷 사용자(100명당)	24.7	31.0	41.5	46.6	57.3
브로드밴드 라인(100명당)	1	1	2	4	5
PC 보유(1000명당)	98	113	131	153	178
소프트웨어 판매(백만달러)	680	773	880	1003	1139
IT 하드웨어 지출(백만달러)	1955	2242	2531	2746	2934
IT 서비스 지출(백만달러)	997	1129	1282	1457	1661
IT 총지출(백만달러)	3633	4144	4694	5206	5734

자료원: Pyramid Research, IDC,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 IT 서비스 부문

현지에서는 IT 서비스 분야에 주목하는데 이 분야는 2010년까지 연평균 14%의 신장률로 IT 시장 평균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IDC는 이에 대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에서 마진 감소에 직면한 IT 벤더들이 매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IT 서비스 쪽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EU 기금이 대거 유입되어 IT 투자를 위한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IT 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요인으로 꼽혔다.

또, 아웃소싱의 인기 상승도 성장 동력으로 조사되었는데 외국 업체들을 위한 오프쇼어 서비스(Offshoring service)는 최근 트렌드의 하나이다. EU 가입 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현지 ERP 시장은 연간 10% 정도씩 성장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시장규모는 5억 PLN(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2) PC 등 하드웨어 부문

IDC 폴란드에 의하면, 폴란드 PC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5년 PC 판매는 180만대에 달해 전년대비 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빠른 성장을 가져온 요인으로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가격 하향세, EU 기금 유입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호조 등이 지목되었다.

폴란드의 PC 판매동향

(단위: 천 대)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데스크탑 PC	907	980	1,084	1,248
노트북 PC	103	170	246	552
합 계	1,010	1,150	1,330	1,800

폴란드 시장에서 PC 가격은 최근 수년간 계속 하향세를 보여왔는데 대형 메이커, 소규모 조립업체 등 공급업체들 사이의 경쟁상황이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폴란드 PC 시장의 호황은 노트북이 주도하고 있다. IDC 관계자는 노트북 가격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으며, 범용 노트북 가격이 LCD 모니터를 장착한 데스크탑과 비슷한 수준인바, 중소기업들도 일반 PC 대신 노트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2005년 판매실적을 보면, 노트북 PC 판매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라. 의류

2005년 폴란드 의류업계는 중국산, 베트남산 수입제품과 재고/중고의류 매장과 경쟁에 부딪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의류 및 모피제품 제조업계의 순 매출은 42억 5천만 PLN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보다 11.1% 감소한 것이다. 2005년 의류 제조업계의 이익도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여 6,870만 PLN을 기록했다.

폴란드 의류 및 모피 제조업계의 영업실적

	2004년	2005년
순매출 (백만PLN)	4,780	4,250
이익 (백만PLN)	247.8	68.7

주: 최근 환율: 1달러는 약 3.3PLN

중국산 의류 수입의 증가폭은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품목군에 따라 10% ~ 18% 사이의 꽤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5년도 중국산 의류 수입동향을 보면, 편물제 의류 수입이 10% 가까이 증가했고, 편물제 이외 의류는 17.6% 늘어났다. 또한, 저가 재고 의류나 중고 의류를 취급하는 매장의 증가도 의류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이야기다.

그러나, 의류산업 안팎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계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실적을 올리는 업체들은 여전히 있다. 이러한 업체들의 공통점은 자가 브랜드를 가지고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 판매한다는 것이다.

잘 나가는 업체들은 중국산을 비롯한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고급화,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의류업체를 따라가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달리 말하면, 어차피 저가 중국제품과 가격으로 경쟁이 어렵다면, 시장의 상층으로 옮겨가 품질과 브랜드로 승부하자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5년 폴란드의 의류 수입은 11억 2,519만 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12%가 늘어났다.(이중 편물제 의류 수입 11.7%, 편물제 이외 의류 수입 12.2% 증가). 현지 의류 수입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산 수입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지시장에서 한국 의류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나 터키와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최근 폴란드의 의류수입 동향

편물제 의류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2004 년	2005 년	증감률
-	총수입	474,092	529,648	11.7
1	중국	158,885	174,136	9.6
2	이탈리아	68,574	70,102	2.2
3	터키	52,879	55,917	5.7
4	독일	17,586	24,295	38.1
5	방글라데시	11,724	20,754	77.0
11	한국	12,057	9,155	-24.1

편물제外 의류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2004 년	2005 년	증감률
-	총수입	530,907	595,544	12.2
1	중국	211,374	248,539	17.6
2	터키	39,755	45,165	13.6
3	독일	26,855	41,029	52.8
4	이탈리아	39,049	35,227	-9.8
5	인도	13,653	18,461	35.2
37	한국	1,439	1,486	3.3

마. 완구

폴란드 완구시장에서 매출은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00년 폴란드의 완구 매출액은 7억 PLN (약 1억 5,500만 달러)을 기록, 피크에 달했으나, 그 후 경기 하강과 함께 판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 들어 하락세는 멈추었으나, 매출은 6억 6,800만 PLN으로 여전히 2000년 수준보다 낮은 실정이다.

단, 실제 완구시장 규모는 이보다 크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 근거는 전자게임(electronic game)을 완구시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폴란드의 전자게임 매출액은 연간 1,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성인 및 아동을 위한 파티용 소품 시장도 추가할 수 있는데 매출액은 900만 달러 정도이다.

2000년 이후 완구시장의 하강요인으로는 경기침체(2000~2002년)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를 들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2가지 요인을 더 지적한다. 첫째, 10~14세의 아동들이 전통적인

완구로부터 비디오게임 등으로 이동하고 있고, 둘째, 아동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1990~2002년 아동인구 30% 가까이 감소).

완구 제조업계에 위안이라면, 2004년부터 경기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EU 가입에 따라 소득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또한, 부모들이 ‘귀해진’ 아이들에게 지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폴란드의 완구 수출입동향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바퀴 달린 완구	5,446	4,440	7,395	4,036	8,676	4,576
인형	14,179	643	18,180	926	16,442	1,178
축소모형/퍼즐 등	131,508	53,142	155,098	64,564	178,679	67,036
합 계	151,133	58,225	180,673 (19.5%)	69,526 (19.4%)	203,797 (12.8%)	72,790 (4.7%)

주:()안은 증감률

폴란드 완구시장은 수입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 수입산의 내수 점유율은 70%에서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04년 19.5%의 높은 성장률에 이어 2005년에도 12.8%가 증가했다. 현지 시장에서는 중국산의 위세가 높다. 중국산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서며, 폴란드 제품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산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 시장잠식과 함께 폴란드 제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는 더 있다. 먼저, 2004년 5월 EU 가입에 따라 완구에 대한 부가세가 7%에서 22%로 인상되었다. 최근 들어 대형 소매 유통체인들이 완구를 직접 수입, 자체 브랜드(PB)를 붙여 염가로 대량 판매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높인다(하이퍼 마켓과 대형쇼핑센터에서는 가격이 50%나 낮은 경우도 흔하다).

(자료원: 관련 각종 자료 종합 (2006.8))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웹사이트

1) 정부기관, 공공부분, 비영리 단체

○ <http://www.kprm.gov.pl/>

- 정부 정보센터: 정부조직, 주요정책 등 (영어/폴란드어)

- <http://www.sejm.gov.pl/>
 - 의회 관련 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mgip.gov.pl>
 - 경제부 웹사이트 (영어/폴란드어)
- <http://www.mst.gov.pl>
 - 국고부 웹사이트 (영어/폴란드어)
- <http://www.paiz.gov.pl>
 - 투자유치청(PAIIIZ): 투자 관련 각종 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stat.gov.pl>
 - 각종 통계 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uzp.gov.pl/a_index.html
 - 조달청 웹사이트 (영어/폴란드어)
- <http://www.ukie.gov.pl>
 - EU 통합위원회(KIE) 웹사이트: EU 가입 관련 정보 (폴란드어)

2)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 <http://www.kig.pl/>
 - Polish Chamber of Commerce(KIG) 웹사이트: 업체/박람회 정보 등 (영어/폴란드어)
- <http://www.ierigz.waw.pl/>
 - 농업부문 개혁, 정책 방향 등 (영어/폴란드어)

3) 금융기관, 투자회사

- <http://www.nbp.pl/>
 - National Bank of Poland(폴란드 중앙은행): 금융/환율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wse.com.pl/>
 - Warsaw Stock Exchange(바르샤바 증권거래소) (영어/폴란드어)

4) 언론기관

- <http://www.gazeta.pl/>
 - Gazeta Wyborcza: 최대 일간지 (폴란드어)
- <http://www.rzeczpospolita.pl/>
 - Rzeczpospolita: 유력 일간지 (폴란드어)
- <http://www.warsawvoice.com.pl/>
 - Warsaw Voice: 유력 종합 주간지 (영어)

- <http://www.businessman.com.pl/>
 - Businessman Magazine: 비즈니스 관련 월간지 (폴란드어)
- <http://www.polishmarket.com.pl/>
 - Polish Market: 경제 및 산업 관련 월간지 (영어/폴란드어)
- <http://www.wbj.pl/>
 - Warsaw Business Journal: 경제관련 유력 주간지 (영어/폴란드어)

5) 기타

- <http://www.teleadreson.com.pl/>
 - Teleadreson onLine: 업체정보 제공 최대 온라인서비스 (영어/폴란드어)
- <http://www.kompass.com.pl/>
 - Kompass 업체정보 (폴란드어)
- <http://www.polfair.com.pl/>
 - 박람회 정보 사이트 (영어/폴란드어)

나. 자료, 잡지 등

1) 통계 자료 (2005년도 판)

- Statistical Yearbook of Poland
- Demographic Yearbook of Poland
- Yearbook of Foreign Trade Statistics
- Statistical Yearbook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 Statistical Yearbook of Regions of Poland
- Labor Yearbook of Poland
- Industry Yearbook of Poland

2) 잡지

- Warsaw Business Journal (영문 주간지, 경제 분야에 초점)
- The Warsaw Voice (영문 주간지, 정치.사회.경제.교양 등 종합지)
- Poland Monthly (영문 월간지, 정치.사회.경제.교양 등 종합지)

3) DB

- Securities (유료 데이터베이스, 산업 및 상품 정보, 일반 뉴스 등)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2006.8))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폴란드의 거시경제지표 (2002-2005년)

구 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GDP(US\$ 억)	1,886	2,069	2,418	3,028
실질경제성장률(%)	1.4	3.7	5.3	3.4
1 인당 GDP(US\$)	4,882	5,418	6,335	7,937
물가상승률(%)	1.9	0.8	3.5	2.2
실업률(%)	19.7	19.3	18.0	17.6
수 출(US\$ 억)	410.1	535.7	737.9	893.5
수 입(US\$ 억)	551.1	680.0	879.1	1,009.0
무역수지(US\$ 억)	-141.0	-144.3	-141.2	-115.5
경상수지(US\$ 억)	-50.0	-46.0	-35.9	-
연평균환율(US\$ 대비)	4.0795	3.8889	3.6540	3.2348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중앙은행(NBP) 등

12. 무역통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US\$ 백만)

구 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수 출	53,576.9	73,791.5	89,346.9
수 입	68,003.9	87,908.7	100,903.5
무역수지	-14,427.0	-14,117.2	-11,556.6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폴란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상위 10개국)

(단위: US\$ 백만)

국 명	2003 년	2004 년	2005 년
총수출	53,577	73,792	89,347
독일	17,281	22,094	25,196
프랑스	3,267	4,459	5,529
이탈리아	3,077	4,432	5,461
영국	2,699	4,034	5,028
체코	2,172	3,180	4,056
러시아	1,512	2,855	3,947
네덜란드	2,407	3,149	3,740
스웨덴	1,933	2,584	2,762
벨기에	1,730	2,327	2,686
우크라이나	1,561	2,031	2,584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폴란드의 주요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

(단위: US\$ 백만)

국명	2003 년	2004 년	2005 년
총수입	68,004	87,909	100,903
독일	16,584	21,274	24,887
러시아	5,215	6,415	8,979
이탈리아	5,789	6,886	7,097
프랑스	4,803	5,898	6,076
중국	2,890	4,081	5,469
체코	2,332	3,172	3,609
네덜란드	2,302	3,048	3,459
영국	2,533	2,897	3,102
벨기에	1,781	2,239	2,648
미국	1,763	2,119	2,404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폴란드의 주요 수입품목 (상위 10개 품목)

(단위: US\$ 백만, %)

품 목	2004 년	2005 년	증감률
원유	4,225	6,154	45.7
승용차	3,502	2,995	-14.5
자동차부품	2,628	2,898	10.3
천연가스	2,088	2,786	33.4
의약품	2,397	2,682	11.9
석유제품	1,363	2,076	52.3
컴퓨터	1,460	1,822	24.8
선박	2,413	1,674	-30.6
내연기관부품	1,277	1,538	20.5
무선전화기	1,048	1,293	23.3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폴란드의 주요 수출품목 (상위 10개 품목)

(단위: US\$ 백만, %)

품 목	2004 년	2005 년	증감률
승용차	4,238	5,385	27.1
자동차부품	3,067	3,750	22.3
엔진	2,858	3,123	9.3
가구	2,735	3,096	13.2
선박	2,571	2,705	5.2
가구부품	1,938	2,213	14.2
와이어	1,597	1,942	21.6
TV 세트	1,232	1,750	42.0
석탄	1,381	1,617	17.1
석유제품	686	1,180	72.0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한국의 對폴란드 무역통계

(단위: US\$ 백만,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349	382	9.5	807	111.2	1,175	45.6
수 입	47	73	56.1	89	20.7	116	30.9
수 지	303	309	-	718	-	1,059	-

자료원: KOTIS

한국의 對폴란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천, %)

품목명	2004 년		2005 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07,233	111.2	1,174,964	45.6
칼라 TV	308,688	348.9	394,824	27.9
컴퓨터부품	26,120	1106.5	167,638	541.8
무선통신기기 부품	27,181	1822.0	98,316	261.7
승용차	67,328	162.3	87,574	30.1
무선전화기	39,156	73.2	66,600	70.1
자동차부품	58,027	33.4	60,134	3.6
평판디스플레이	3,274	급증	37,707	1,051.8
보조기억장치	18,516	73.3	22,527	21.7
합성수지	17,821	26.1	12,349	-30.7
화물자동차	16,378	89.9	11,635	-29.0

자료원: KOTIS

한국의 對폴란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천, %)

품목명	2004 년		2005 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8,789	20.7	116,234	30.9
전동축 및 기어	2,309	급증	19,472	743.4
가축육류	9,709	269.4	18,987	95.6
자동차부품	13,878	79.8	17,895	29
원동기	4,323	118.2	3,669	-15.1
전구	2,891	18.3	3,557	23.1
기타 철강제품	0	-	3,241	-
표면활성제	447	-	2,898	548.8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303	593.6	2,788	820.5
주철	1,868	203.7	2,530	35.5
기타 난방 및 전열기기	5,584	2.4	2,380	-57.4

자료원: KOTIS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중앙은행 등 종합 (2006.8))

13. 투자통계

가. 해외직접투자 유입

폴란드의 나라별 직접투자(FDI) 유입동향

(단위: US\$ 백만, %)

국명	2002 년	2003 년		2004 년		누 계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6,064	6,420	100	7,857	100	80,649	100
프랑스	742	617	9.6	1,575	20.0	16,026	19.9
네델란드	1,072	2,064	32.1	981	12.5	11,154	13.8
미국	883	535	8.3	1,428	18.2	10,163	12.6
독일	561	806	12.6	1,175	15.0	10,149	12.6
영국	1,365	-48	-	204	2.6	4,337	5.4
이탈리아	187	140	2.2	224	2.9	4,089	5.1
스웨덴	432	288	4.5	437	5.6	3,715	4.6
벨기에	496	487	7.6	413	5.3	2,902	3.6
덴마크	419	206	3.2	33	0.4	2,096	2.6

자료원: 폴란드 투자 유치청

주: 2005 년 FDI 통계 총액만 발표 -> 7,724 US\$ 백만

폴란드의 업종별 직접투자 유입동향

(단위: US\$ 백만, %)

국 명	2002 년	2003 년		2004 년	
	금 액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총계	6,064	6,420	100	7,857	100
제조업	2,080	2,965	46.3	3,251	41.3
- 식료품	-10	314	4.8	135	1.7
- 수송기계	725	312	4.8	703	8.9
- 기타 비금속	296	533	8.3	304	3.8
- 목재 및 목재제품	48	162	2.5	5	0
- 섬유 직물	9	-58	-0.9	32	0.4
- 인쇄업	148	232	3.6	180	2.2
- 화학	600	570	8.8	485	6.1
- 전기전자	-100	388	6	450	5.7
- 기계 설비	245	166	2.5	217	2.7
- 고무 및 플라스틱	26	288	4.4	165	2.1
- 금속 및 금속제품	100	264	4.1	468	5.9
- 가구 및 소비재	245	-226	-3.5	101	1.2
- 피혁	-1	16	0.2	0	0
1 차산업	135	10	0.1	16	0.2
서비스업	3,849	3,445	53.6	4,590	58.5

자료원: 폴란드 투자 유치청

주: 2005 년 FDI 통계 총액만 발표 -> 7,724 US\$ 백만

나. 해외직접투자 유출

폴란드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매년 말 시점 누계치)

(단위: 백만 유로)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투자 유출액	1,309	1,390	1,701	2,358

자료원: 폴란드 중앙은행(NBP)

주: 2005년 통계 미발표

폴란드의 나라별 직접투자 유출 현황

(단위: US\$ 백만)

국명	2005년 10월 기준 누계액
독일	600
체코	600
리투아니아	122 (2005년말 기준)
라트비아	3.4
슬로바키아	10
우크라이나	200 (2005년말 기준)
벨로루시	20 (2005년말 기준)
러시아	197 (2005년말 기준)
헝가리	40

자료원: Ministry of Economy, 각국 주재 폴란드 대사관 자료 등 종합

다. 한국과의 투자통계

-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투자 동향

폴란드 측 통계

(단위: US\$ 백만, %)

2002년	2003년	2004년	누 계
-97	-508	202	1,167

자료원: 폴란드 투자 유치청(PAIIIZ)

주: (-)는 투자 회수분을 의미, 2005년 나라별 FDI 통계 미발표

한국 측 통계

(단위: US\$ 백만)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계
투자건수	2	2	3	16	74
투자액	37.8	16.9	36.1	77.3	754.4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폴란드의 對한국 직접투자 동향

폴란드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 2005년	총 계
투자건수	1	없음	1
투자액	329	없음	329

자료원: Invest KOREA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 특성

- 폴란드는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크지 않다.
- 폴란드는 북위 49도-54도, 동경 14도-24도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부 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부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 겨울 (12월-3월) 최저 온도는 -20℃도, 여름 (6월-8월) 최고 온도는 35℃이며, 연평균 기온은 6-8.8℃이다. 1월의 평균 온도는 -4℃, 7월은 19℃이다.
- 연평균 강우량은 600mm이고, 평야 지대 500-700mm, 중부 지역 500mm이하, 남부 산악 지대 1,000-1,100mm이다. 평균적으로 우기인 여름철의 강우량은 겨울철의 약 두 배이다.
- 적설일수는 동남부가 40일 이하, 동북부 90일 이상, 0℃ 이하 일수는 80-130일이다.
- 봄은 겨울과 봄 날씨가 계속 교차 반복되다가 4월부터 햇빛이 본격적으로 나면서 시작 된다.
- 여름은 6-8월로서 건조한 편이다. 매우 무더울 때는 한 차례 정도 비가 오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의 평균 온도는 18℃이고 4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 가을은 9월부터 약간씩 추워지면서 시작한다. 9월은 비 오는 날이 많다. 하루에도 날씨 변동이 심하다.
- 겨울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겨울철은 춥고 구름이 낀 날이 대부분이고, 눈이 내릴 때가 많다.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나 기간이 길지 않다. 겨울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은 편이다.

나. 지역별 기후

지역별 평균 온도 및 강수량

(단위: 온도(℃), 강수량(mm))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중부	온도	-4	-2	2	5	13	16	17	19	13	6	2	0	7.8
	강수량	1	21	24	27	57	61	214	23	38	55	39	28	588
북부	온도	-1	2	3	4	9	15	18	20	14	8	4	1	8.4
	강수량	8	23	21	38	89	36	116	4	95	117	31	42	620
중서부	온도	-3	2	3	5	13	16	19	18	13	7	2	0	8.4
	강수량	3	50	20	42	66	86	193	40	33	59	14	32	638
중남부	온도	-6	1	3	5	14	17	17	18	13	6	3	1	8
	강수량	17	50	20	36	65	91	285	49	53	68	54	65	823
서남부	온도	-4	3	4	6	13	17	17	19	14	7	3	0	7
	강수량	5	26	14	50	65	39	238	51	37	42	29	33	629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이나, 하절기 서머타임 적용 시는 7시간이다.

폴란드의 하절기 서머타임 적용(4월-10월)시기에는 한국의 16:00는 폴란드의 09:00 이며, 폴란드의 동절기 서머타임 해제(11월-3월)시기에는 한국의 17:00가 폴란드의 09:00 이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겨울철에는 오후 3시만 되어도 어두워져 야외 활동이 어렵다.

나. 근무 시간

주요 기관 및 장소의 근무시간

기관 및 장소	시 간	비 고
관 공 서	08:15 - 16:15	(토, 일요일 휴무)
은 행	08:30 - 17:00	(토, 일요일 휴무)
국영기업	08:00 - 15:00	(토, 일요일 휴무)
민간기업	08:00 - 16:00	(토, 일요일 휴무)
레스토랑	13:00 - 23:00	(토, 일요일 영업)
주 유 소	08:00 - 23:00	(토, 일요일 영업)
백 화 점	10:00 - 22:00	(토, 일요일 영업)

- 관공서의 대민 서비스 업무는 공무원의 근로시간보다 짧으며 요일마다 시간대가 다른데 평균적인 대민 서비스 업무 시간대는 10:00-15:00 이다.

- 노동법은 일일 8시간 근무 중 15분을 점심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점심 시간은 길어야 30분내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경우 업무성격상 1시간으로 정한 곳도 있다.
- 일반 상점의 경우 길어도 저녁 8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급한 생필품은 주유소(상당수 24시간 영업)를 이용한다.

다. 회계연도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3. 도량형

가. 도량형

- 거리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넓이는 평방미터, 무게는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한다.

나. 전기규격

- 230 Volt, 50 Hz이다. 전원 소켓(socket)에 어스(earth)용 폴(pole)이 돌출되어 있다. 한국의 일반적인 220 Volt용 제품도 사용 가능하다.
- 한국산 전기/ 전자 제품을 폴란드에서 사용코자 하는 경우, ‘어스’ 용 ‘폴’ 이 돌출된 소켓에도 사용 가능한 전원 플러그(Plug)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아울러 폴란드에서는 전류가 50 Hz이므로, 50 Hz/ 60 Hz 겸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무비자 입국 시 90일내 체류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한국인의 경우 비자 또는 임시 거류증을 받아야 한다.

임시 거류증은 12개월 이상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노동허가 취득자, 개인 사업자, 유학생, 폴란드 국민과 결혼한 자 등이 대상이다.

영주권은 폴란드와 지속적인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관계를 가진 자로서 폴란드 내에 주택과 소득원을 보유하고, 임시 거류증을 발급 받아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이다.

임시 거류증은 폴란드 주정부 또는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신청할 경우에도 임시 거류증은 폴란드의 해당 주 정부에서 발급한다.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2년(단, 총 체류기간은 10년 초과 불가)이며,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 60일전에 해야 한다.

나. 출입국 절차

출입국 심사 및 절차는 까다롭지 않다. 도착 후 약 15 - 30분 정도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입국 시는 입국심사 및 세관검사의 순이며 검역절차 및 확인은 없다. 출국 시는 세관검사, 출국심사의 순이다.

통관 시에는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녹색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면 된다. 녹색 세관 검사대를 통과할 때 세관원이 입국자의 수하물이 많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외화 반입 및 면세품 보유한도는 내, 외국인인을 불문하고 같으며 다음과 같다.

- 외화: EURO 5,000 상당
- 악기, 타자기, 카메라, 캠코더 등: 각 1대씩
- 카메라 필름: 12롤
- 카세트 테이프: 5개
- 고가 운동기구(씨핑기구, 보트, 싸이클, 스키, 낚시대 등): 각 1대씩
- 보석류(금, Platinum, 천연석 소재): 50g
- 가공 육류: 2kg
- 천연육류: 1kg
- 낙농제품: 1kg
- 초콜렛 및 초콜렛 제품: 1kg
- 커피: 500g
- 보드카 및 위스키: 1리터
- 포도주: 2리터
- 맥주: 5리터
- 담배: 250개피
- 시가: 50개피

다. 출입국 유의사항

체류기간이 90일을 넘거나 폴란드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법에 따라 국경의 입국 심사대에서는 입국 외국인에게 폴란드 체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일일 기준 100Pln(최소 총액 500Pln), 16세 이하는 50Pln(최소 총액 300Pln)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 목적은 폴란드 동쪽 국가로부터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인 입국 시에는 이러한 요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풍토병 등에 대비한 예방 접종은 없다.

입국 시 외화 소지금액이 1인당 EURO 5,000 (약 US\$ 6,000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한 증서(3개월간 유효)가 있어야 출국할 때 문제없이 재 반출할 수 있다. 반입증서

가 없는 5,000 EURO 초과 외화에 대해서는 압류되며, 압수에 대한 이의 사항 발생 시에는 소송을 통해 환불이 가능하다.

입국자의 보유 물건이 면세품의 보유 한도 이내이라도 품목의 종류가 많아서 개인 여행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예: 상업적인 목적) 과세될 수 있다.

주류, 식품, 담배 등의 반입시에는 면세품 보유 한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이들 품목의 경우 폴란드 관련 부처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한도를 넘어서면 압류 당할 가능성이 높다.

5. 환율/환전

가. 화폐단위

- 화폐단위는 즈워티(Zloty, 또는 PLN)이다. 1'즈워티'는 100'그로셰'(Groszy)이다.
- 지폐는 10, 20, 50, 100, 200 즈워티가 있고, 동전은 1, 2, 5, 10, 20, 50 그로셰가 있다.
- 통상 1달러는 3.00 pln 이며, 한국 원화로는 약 300원으로 보면 되나, 수시로 환율이 변동되고 있다.
- 95년 1월 1일부로 '즈워티'화를 1만대 1로 액면 절하한 이후 신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종전의 즈워티 화폐는 9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했었고, 96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유통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까지는 시중 은행에서 신 '즈워티'화와 교환이 가능하다.
- 2004.5.1부로 EU 에 가입했으며 EURO화 채택은 2009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환율

- 2000년 4.12일부터 변동 환율제가 시행 중이다.

2000년 이후 환율(달러 대비)

(단위: PLN)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4.0985	4.0795	3.8889	3.6540	3.2348
연도말	3.9863	3.8388	3.7405	2.9904	3.2613

자료원: 폴란드 중앙은행(NBP)

다. 환전

- 시내에 있는 칸토르(Kantor/공식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은행의 환율은 칸토르 보다 못하다.

- "칸토르"는 90년초 정부의 독점적인 외환관리가 풀리면서 등장했는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이 운영한다. 현재 전국에 약 3,500여 개의 칸토르가 있다. 특히 바르샤바 시내에는 요처에 많기 때문에 찾는데 어렵지 않다.
- 칸토르에서 외환의 매입, 매도가 모두 가능하며 환전액 제한은 없다. 동전은 환전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해주더라도 액면의 60% 정도로만 쳐준다.
- 칸토르는 환전시의 매입, 매도를 차이로 이윤을 확보하며 별도의 환전 수수료는 없다. 대개 아침 8시-저녁 5시 사이에 개점하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환율이 좋지 않다.
- 또한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한 곳이 있으나, 대부분 은행은 구좌 보유자에 한해서만 입출금 시 환전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에서는 환전서비스를 중지하였다.
- 가급적 공항 내 환전소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만약 바르샤바의 오케치 공항에 도착한 후 환전이 반드시 필요하면 공항 1층보다 2층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
- 칸토르 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액을 환전할 경우에는 3-4 군데의 칸토르를 둘러보고 가장 좋은 환율의 칸토르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종합하면, 폴란드에서 환전 시 환율이 유리한 환전장소의 순서는 칸토르, 은행, 공항 내 환전소 등이다.

6. 물가정보

□ 도시: 바르샤바(폴란드)			- 환율 : US\$1 = PLN3.2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563	7.1	구두(1켤레, 소가죽)	68
1.2	넥타이(1개, 실크100%)	80	7.2	치약(150g, 1개)	2.5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55	7.3	칫솔(1개)	3.2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8	7.4	면도기(1세트)	3.5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3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1.5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5	7.6	화장지(1통, 300매)	4
1.7	청바지(Levi's)	85	7.7	비누(1개)	1.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7.5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5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6.25	8.2	볼펜(12개)	3
2.3	닭고기(1KG, 생닭)	3.75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0.8
2.4	쌀(1KG, Short Grain)	2.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3
2.5	밀가루(1KG)	0.8	8.5	휴대폰(범용형)	437
2.6	설탕(1KG, 백설탕)	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3

2.7	계란(10개)	1.3	8.7	인터넷가설비 (1회최초, 1회설치)	40
2.8	감자(1KG, 현지산)	0.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7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3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5,000
3.1	고추장(1Kg)	7	9.2	엔진오일(1L)	7
3.2	된장(1Kg)	5.5	9.3	휘발류(1L)	1.4
3.3	라면(1개)	2	9.4	자동차등록비(2,000cc)	22.5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6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400
3.5	불고기(1인분, 200g)	10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1	10.1	지하철(1구간)	0.75
3.7	김치찌개(1인분)	11	10.2	시내버스(1구간)	0.75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75
4.1	햄버거(1개)	0.9	10.4	택시(추가요금/Km)	0.5
4.2	피자(1판)	12.5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5	11.1	전화 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3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2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5
4.5	담배(수입산, 1갑)	2.3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22
4.6	위스키(1병, 750ml)	38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22
4.7	커피(1병, 175g)	4.7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3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2,00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1통, 10g이하, 현지-서울)	0.8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50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95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2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4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4
6.1	TV(29인치, 칼라, 범용)	400			
6.2	VTR(6헤드, 범용)	60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90			
6.4	전자레인지	13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545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1,250			

□ 도시: 바르샤바(폴란드)			- 환율 : US\$1 = PLN3.2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4 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265
12.2	외국인학교	656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

	(등록금, American School)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6,431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7,94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12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8,925	18.6	연간국경일	11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75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30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2,34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시간
13.3	골프공(1타)	41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625	19.1	법정최저자금	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5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1,3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6.5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1,753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6.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25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14.4	치과(스켈링, 1회)	48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2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13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2			
15.4	잡지(1부, Newsweek)	2.1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90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04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95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65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3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5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1,093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875			

7.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의 교통

한국과의 직항 항공편은 없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텔담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히, 이태리 로마,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할 경우의 공항 대기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이며 총 비행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이다.

폴란드 - 한국간 직항 노선은 대한항공과 폴란드항공(LOT)간에 추진한 바 있었으나, 한국의 IMF 여파로 중단되었다.

폴란드 취항 항공사 리스트

AMERICAN AIRLINES	ALITALIA
AIR FRANCE	AUSTRIAN AIRLINES
AEROFLOT	AEROSVIT
AIR NEW ZEALAND	AER LINGUS
AIR BERLIN	AIR CANADA
AI EUROPA	AIR LITHUANIA
AIR MADAGASKAR	AIR NAMIBIA
AIR SEYCHELLES	ALL NIPPON AIRLINES
BELAVIA	BRITISH AIRWAYS
BRUSSELS AIRLINES	BRITISH MIDLAND
BWIA	CYPRUS AIRLINES
CZECH AIRLINES	CONTINENTAL AIRLINES
CATHAY PACIFIC	EL AL ISRAEL AIRLINES
FINNAIR	HAHN AIR
ICELANDAIR	KLM
LOT	LUFTHANSA
MALEV	MALAYSIA AIRLINES
MEXICANA	TAM LINHAS AEREAS
PULKOVO AIRLINES	SINGAPORE AIRLINES
SOUTH AFRICAN	SAS
SWISS	TURKISH AIRLINES
TAROM	THAI AIRWAYS
TUNISAIR	US AIRWAYS
UNITED AIRLINES	QANTAS
CENTRAL WINGS	GERMAN WINGS
SKY EUROPE	WIZZAIR
EASY JET	RYANAIR
VARIG	

나. 시내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가전차(tram), 지하철 등이 있는데 한 가지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은 일회권 2.4PIn, 일일권 7.2PIn, 일주일권 26PIn, 한달권 66PIn의 가격이다. 12세 이하의 어린이, 학생, 정년퇴직자에게는 50% 할인된다.

버스는 5시-23시, 트램은 4시-24시까지 운행된다. 지하철은 1개 노선으로 바르샤바 전 지역을 운행하지는 않는다. 23시부터 새벽 5시30분까지 운행되는 야간 버스(Night bus) 승차권은 7.2PIn 정도이다.

승차권은 곳곳의 버스 및 트램 정류장에 있는 Kiosk(신문 등을 파는 소형 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다. 택시

콜택시가 일반화되어 있다. 택시 지붕에 써 있는 전화번호(9191, 9621, 9644, 9623, 9624 등)를 이용, 호출한다. 택시의 대기시간은 약 10분이며, 요금은 기본 5PIn에 1Km당 2PIn씩 추가된다. 시내에서는 20-30PIn이면 주요 지역을 갈 수 있고, 밤 10시 이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증요금이 붙는다. 팁에 관한 관습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게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번호가 없이 "Taxi" 라고만 적혀 있는 일반택시는 콜(번호)택시보다 가격이 5배 이상 비싸다. 특히 공항, 호텔, 중앙역, 백화점, 구시가(Old Town) 앞에서 관광객 상대로 한 바가지 행위가 많다.

바르샤바 공항 입국 시에는 공항 로비의 Airport Taxi 창구에서 티켓을 구입한 후 동 티켓으로 운행되는 택시를 승차하거나 공항 밖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타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항 내에서 호객하는 택시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호텔에서 이용할 경우, 프런트 데스크에 콜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면 약 10분 정도 후에 탑승할 수 있다.

라. 국제통신

한국에서 폴란드로 전화할 경우, 001(혹은 002) + 48 + 지역번호("0"은 제외) + 해당번호를 누르면 통화할 수 있는데, 공중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00+82+지역번호("0"은 제외)+해당번호를 누르면 되며, 한국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번호가 011로 시작되는 경우 "0"을 제외하고 00-82-11 순으로 번호를 누르면 된다.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의 일반 국제전화 요금은 1분당 2.56PIn,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국제전화 요금은 약 60 - 70% 저렴하지만 호텔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마. 국내통신

유선전화는 10가구당 2.6대의 전화기가 보급되어 있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공중전화는 공중전화 전용 카드 또는 동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화카드 등은 키오스크(소형 매점)에서 판매한다.

시내 전화는 3 분당 0.29Pln이 부과되며, 22-08시 사이에는 6 분당 0.29Pln이 부과된다. 시외전화는 주중에는 1 분당 0.40Pln 부과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1 분당 0.30Pln 이 부과된다. (VAT 미포함 가격)

바. 우편

우편물 가격대는 취급업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난다. (환율: 1유로 = 3.8 PLN)

폴란드 국내

(단위: PLN)

	우체국	DHL	TNT	X-PRESS
편지	1.5	19	26	21
등기우편	3.7			
1KG 소포	5	24	26	21
5KG 소포	8	24	34	23

폴란드-한국간

(단위: PLN)

	우체국	DHL	TNT	UPS	X-PRESS
편지	2.7	272	288	422.24	270.09
등기우편	8				
1KG 소포	59	398	428	288.96	474.03
5KG 소포	86	947	852	1,089.96	1,021.92

8. 호텔/식당

가. 호텔

아래의 주요 도시 호텔 정보는 호텔/전화/팩스/주소/인터넷/트윈 1박 비용의 순서이고 숙박비에는 아침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광 시즌 여부와 환율 변동 및 호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은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해 일부 주요 호텔과 협의, 특별 할인요금 (diploma rate)으로 예약하고 있다.

1) 바르샤바 (Warszawa)

(요금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Novotel	22)621 0271	22)625 0476	Forum@forum.netix.pl	UL.Nowogrodzka 24/26	160
Holiday Inn	22)697 3999	22)697 3899	Holiday@orbis.pl	UL.Zlota 48/54	251
Mercure Fryderyk Chopin	22)620 0201	22)620 8779	N.A	UL.Jana Pawla 11 22	145
Jan III Sobieski	22)658 4444	22)659 8828	hotel@sobieski.com.pl	Pl.Zawiszy 1	257
Le Royal Meridian Bristol	22)551 1000	22)625 2577	Bristol@it.com.pl	UL.Krakowskie Przedmiescie 42/44	350
Sheraton Warsaw Hotel&Towers	22)657 6100	22)657 6200	sheraton1@wonet.com.pl	UL.Prusa 2	360
Warsaw Marriott Hotel	22)630 6306	22)830 0311	marriott.bc@it.com.pl	UL.Jerozolimskie 65/79	270
Hotel Europejski	22)583 2100	22)621 9724	N.A	UL.Krakowskie Przedmiescie 13	90
Grand Hotel	22)583 2100	22)621 9724	Wagrand@orbis.pl	UL.Krucza 28	145
Reytan	22)646 3166	22)646 2989	www.polhotels.com/warsz/reytan	UL.Reytana 6	81
Gromada Hotel	22)609 9600	22)846 1580	airport@gromada.pl	UL.17 Stycznia	90
Radisson SAS Hotel	22)321 8888	22)321 8889	www.radisson@sas.com	UL.Grzybowska 24	145~246
The Westin Warsaw	22)450 8000	22)450 8111	www.westin.pl	UL.Jana Pawla 11 21	190~299
Hotel Inter-continental	22)328 8888	22)328 8889	www.warsaw.intercontinental.com	UL.Emilii Plater 49	125~150 유로
폴란드 바르샤바 민박	22)641 8787	22)643 8127	Café.naver.com/warsawkoreahouse Café.daum.net/warsawkoreahouse	UL.Zolny 27A	*50 유로

주: * 아침식사 포함시

2) 브로추와프 (Wroclaw)

○ 여행안내센터: 71)344 3111

(요금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Monopol	71)343 7041	71)343 5103	monopol@orbis.pl	UL.Modrzejewskiej 2	92
DworPolski	71)372 3415	71)372 3415	dworpol@wr.onet.pl	UL.Kielbasnicza 2	103
Maria Magdalena	71)341 0898	71)341 0920	hotel@hotel-mm.com.pl	UL.Sw.M.Magdaleny 2	125
Polonia	71)343 1021	71)344 7310	N.A	UL.Pilsudskiego 66	71

3) 우찌 (Lodz)

○ 여행안내센터: 42)633 7169

(요금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Swiatowid	42)636 3817	42)636 5291	N.A	AL.Kosciuki 68	85
Grand	42)633 9920	42)633 7876	Res.logrand@orbis.pl	UL.Piotrkowska 72	110
Centrum	42)632 8640	42)636 9650	centrum@hotelspt.com.pl	UL.Kilinskiego 59/63	86

4) 크라코프 (Krakow)

○ 여행안내센터: 12)421 7787

(요금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Continental	12)637 5044	12)429 6821	Res.continen@orbis.pl	UL.Armi Krajowej 11	144
Forum	12)261 9212	12)269 0080	Dh.krforum@orbis.pl	UL.M.Konopnickiej 28	191
Pollera	12)422 1044	12)422 1389	rezerwac@pollera.com.pl	UL.Szpitalna 30	77
Demel	12)636 1600	12)636 4543	hotel@demel.com.pl	Ul.Glowackiego 22	122
Grand Hotel	12)421 7255	12)421 8360	grand@kr.onet.pl	UL.Slawkowska 5/7	189
Cracovia	12)422 5122	12)421 9586	cracovia@orbis.pl	Al.Focha 1	171
Francuski	12)422 5122	12)422 5270	francuska@orbis.pl	Ul.Pijarska 13	163
Logos	12)632 3333	12)632 4210	Logos-kr@intercom.pl	UL.Szujskiego 5	100

5) 포즈난 (Poznan)

○ 여행안내센터: 61)852 6156

(요금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Mercury	61)855 8000	61)855 8955	mercury@orbis.pl	UL.Roosvelta 20	113
Novotel	61)877 0011	61)877 3654	rez.npoznan@orbis.pl	UL.Warszawska 64	96
Poznan	61)833 2081	61)833 2961	hpoznan@orbis.pl	PL.Andersa 1	95
Lech	61)853 0151	61)853 0880	N.A	UL.Sw Marcin 74	60
Batory	61)832 4481	61)832 4230	info@batory.pl	UL.Leszczynska 7/13	84

6) 그단스크 (Gdansk)

○ 여행안내센터: 58)301 4355

(요금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Novotel	58)301 5611	58)301 5619	res.ngdanski@orbis.pl	UL.Pszenna 1	99
Hevelius	58)301 5631	58)301 1922	hevelius@orbis.pl	UL.Heveliusza 22	125
Szydlowski	58)345 7040	58)344 3877	office@hotel-szydlowski.com.pl	UL.Grunwaldzka 114	109
Posejdon	58)553 1803	58)553 0228	posejdon@orbis.pl	UL.Kapliczna 30	97
Marina	58)553 2079	58)553 3159	marina@orbis.pl	UL.Kapliczna 30	114
Talar	58)309 0882	58)306 5865	N.A	UL.Trakt Sw.Wojciecha 212	52

7) 카토비체 (Katowice)

○ 여행안내센터: 32)599 414

(요금단위: 불)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Silesia	32)596 211	32)596 140	silensia@orbis.pl	UL.Piotra Skargi 2	123

* 참고 사이트: www.poltravel.com (All hotels in Poland)

나. 식당

1) 폴란드 식당

폴란드 전통음식은 돼지고기에 빵가루를 입혀 구운 Pork Chop(돈까스와 비슷)이며, 양배추 절임과 사탕무를 갈아 만든 Salad와 함께 나온다.

식사 시 즐겨 마시는 술은 대개 보드카, 맥주, 포도주 등이다. 폴란드 특산 보드카인 Zubrowka(주브루프카)는 Bialystok(비아위스톡)이라는 폴란드 지방 도시에만 자라는 독특한 향기가 나는 풀잎을(이 풀잎 이름이 주브루프카 임) 넣어 만든 것으로 일본에서도 최상의

보드카로(대부분이 러시아 보드카로 알고 있음) 알려져 있다. 폴란드산 맥주는 유럽식으로 맛이 진하며 독특한 쓴맛이 있다. 한국인들의 입맛에는 Zywiec(지비에츠)라는 맥주가 비교적 맞으며, 포도주는 주로 헝가리산과 불가리아산을 마시는데 점차적으로 서유럽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산 등도 수요가 늘고 있다.

주요 폴란드 메뉴는 타타르(Tatar/폴란드식 육회), 샤슈윅(Szaszlyk/ 돼지고기, 소고기, 햄, 양파 등의 꼬치구이), 비고스(Bigos/ 신 양배추, 버섯, 고기 또는 소세지 등을 넣고 삶은 요리), 바르슈츠(Barszcz/ Beet를 갈아 만든 전통 스프로서 감기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짐), 카푸스타 키쇼나(Kapusta Kiszona/ 신 양배추 절임) 등이 있다. 특히 Adler 라는 폴란드 전통음식점의 Golonka (돼지족발요리) 가 유명하다.

현지식당

식 당	주 소	전 화	구 분
Adler	Ul. Mokotowska 69	(22)628 7384	폴란드식
Arkadia	Rynek Starego Miasta18/20	(22)635 9214	유럽식
Belvedere	New Orangery, Lazienki Park	(22)841 4806	폴란드식
Bazyli szek	Rynek Starego Miasta 3/9	(22)831 1841	유럽식
Café Eljat	Al. Ujazdowskie 47	(22)628 5472	유럽식
Fukier	Rynek Starego Miasta 27	(22)831 1013	폴란드식
Konstancja	Ul. Zrodlna 6/8	(22)756 4325	유럽식
La Boheme	Pl. Teatralny 1	(22)692 0681	유럽식
Przy Zamku	Plac Zamkowy 15/19	(22)831 0259	유럽식
Blue Cactus	Ul. Zojaczkowska 11	(22)651 2323	멕시코식

동양식당

식 당	주 소	전 화	구 분
Bliss	Ul. Boczna 3	(22)826 3210	중국식
Pekin	Ul. Senatorska 27	(22)827 4804	중국식
Maharaja	Ul. Marszalkowska 34	(22)621 1392	인도식
Taj Mahal	Ul. Brzozowa 27/29	(22)831 8926	인도식
Azalia Thai	Ul. Filtrawa 70	(22)658 0068	태국식
Ha Long	Ul. Emilii Plater 36	(22)620 1523	베트남식
Inaba	Ul. Nowogrodzka 84/86	(22)622 5955	일본식
Tokio	Ul. Dobra 17	(22)827 4632	일본식
Tsubame	Ul. Foksal 16	(22)826 5127	일본식

한국식당

식 당	주 소	전 화	구 분
서울가든	Ul. Wiertnicza 102	(22)642-1618	한국/일본식
한강	Ul. Walbrzyska 11, lok 159	(22)549-9152	한국/일본식
라스	Ul. Kostki Potockiego 24A	(22)642-1471	한국/일본식
아리랑	Ul. Wolnosz 7	(22)862-2000	한국/일본식
한반도	Ul. Popularna 56	(22)863-3026	한국/일본식
아카시아	Ul. Jana Pawla 61	(22)636-6767	한국/일본식

9. 관공서 관행

공산주의 체제 및 슬라브적인 느슨한 기질의 영향으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능한 문서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관공서의 민원 서비스 수준과 전산화 정도가 낮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1989년의 체제 전환 이후 15년이 경과하였고, 2004년5월1일의 EU가입 등으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정착이 가속화되어, 사회주의 잔재가 많이 탈피되었다.

한편 업무처리에 대체적으로 융통성이 없고 책임 회피 관행이 아직 불식되지 않아 완벽한 서류 제출과 보완을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으로 업무를 끝내기가 어렵다.

관공서에 방문할 때에는 소액의 선물 제공 등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는 경우,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융통성 있는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

외국인으로서 관공서를 방문할 때에는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10. 공휴일

2003-2006년도 공휴일 일정표

공휴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 년	1.1	1.1	1.1	1.1
부활절	4.20-21	4.11-12	3.27-28	4.16-17
노동절	5.1	5.1	5.1	5.1
제헌절	5.3	5.3	5.3	5.3
성체일	6.19	6.10	5.26	6.15
성모승천일	8.15	8.15	8.15	8.15
만성절	11.1	11.1	11.1	11.1
독립기념일	11.11	11.11	11.11	11.11
성탄절	12.25-26	12.25-26	12.25-26	12.25-26

폴란드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과 성탄절이다. 이 기간 중에는 비록 공식 공휴일 기간은 짧지만 대개 휴가를 많이 사용하므로 출장은 지양하여야 한다. 폴란드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하루를 쉬어야 하며, 공휴일이 목요일이나 화요일에 되는 경우 많은 회사들이 중간에 끼는 날도 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한국과 거의 같은 계절이지만, 한국 보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추운 편이다.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긴 팔과 외투를 입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국 처럼 무덥지는 않으며, 5-6월에도 기온 차가 심해서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는 게 좋다. 겨울철에는 매우 춥고, 또 강한 눈바람이 불기 때문에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은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나. 여행여건

1) 치안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살인, 마약밀수, 인신매매 등 강력 조직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버스나 전차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소매치기와 야간 기차에서의 강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국경을 넘는 야간 기차에는 강력한 마취제를 살포한 뒤, 강탈을 하는 경우도 있다.

Skin Head족 등 불량배와 마피아가 있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알려진 우범지역은 기차역, 야간의 Old Town 주변, '비스와' 강 동쪽 북부의 프라가(Praga)지역 등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기는 하나,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베트남, 중국인에 대해 간혹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2) 식수

석회질이 많고 파이프가 많이 부식되어 수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수도물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물은 생수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3) 저기압

폴란드는 기압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편두통이 있을 수 있다. 취침 전에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저기압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4) 팁 관행

일반적으로 10% 정도이다. 주로 음식점, 호텔, 이발소, 카페 등에서는 팁을 기대한다.

다. 쇼핑

폴란드의 특산품으로 호박(Amber)과 전통 술 '보드카'가 유명하다. 구시가지 내에 호박 취급점이 있으며, 시내 각처와 호텔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Zubrowska" 보드카는 독특한 향이 나는 풀잎을 넣고 만든 것으로 폴란드에서만 나는 특산품이다. 이외에도 "Chopin" 보드카는 포장에 잘 되어 있어 선물 증정용으로 구입된다. 대체로 폴란드산 보드카 가격은 50 pln (14불) 내외이다.

손으로 수를 놓은 폴란드 특산 식탁보도 이색적인 기념품이 될 수 있는데, 폴란드 민속품 판매 체인인 Cepelia에서 구입할 수 있다. Cepelia는 구시가지에 많이 있다.

12. 유용한 연락처

가. 비상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비 고
경찰	997	교통사고 포함
화재	998	
응급환자	999	
전화안내	118 913	
24시간약국	825 6986	바르샤바 중앙기차역 (Central Station) 구내 소재
카드분실신고	625 4030	Amex 카드
	515 3000	비자/마스터카드(24시간 운영)

나. 관공서

1) 경제, 노동, 사회 정책부

- 주소: Pl.Trzech Krzyzy 3/5, 00-950 Warszawa
- 전화: (22)693 5000 / 팩스: (22)693 4048 / 인터넷: www.mgip.gov.pl

2) 재무부

- 주소: Ul.Swietokrzyska 12, 00-916 Warszawa
- 전화: (22)694 5555 / 팩스: (22)826 6352 / 인터넷: Www.Mofnet.Gov.Pl

3) 국고부

- 주소: Ul.Krucza 36, 00-522 Warszawa
- 전화: (22)695 8000 / 팩스 : (22)621 3361 / 인터넷 : www.msp.gov.pl

4) 법무부

- 주소: Al.Ujazdowskie 11, 00-950 Warszawa
- 전화: (22)628 44 31 / 팩스: (22)621 3095

5) 내부행정부

- 주소: Ul.Batorego 5, 02-517 Warszawa
- 전화: (22)621 0251 / 팩스: (22)628 7488 / 인터넷: Www.Mswia.Gov.Pl

6) 외무부

- 주소: Al.Szucha 23, 00-580 Warszawa
- 전화: (22)623 9000 / 팩스: (22)629 0500 / 인터넷: Www.Msz.Gov.Pl

7) 교육부

- 주소: Al.Szucha 25, 00-918 Warszawa
- 전화: (22)628 0461 / 팩스: (22)628 6953 / 인터넷: www.men.waw.pl

8) 문화예술부

- 주소: Ul.Krakowskie Przedmiescie 15/17, 00-071 Warszawa
- 전화: (22)421 0100 / 팩스: (22)826 7533 / 인터넷: www.mk.gov.pl

9) 국방부

- 주소: Ul.Klonowa 1, 00-909 Warszawa
- 전화: (22) 628 0031 / 팩스: (22) 687 1393

10) 농업식품부

- 주소: Ul.Wspolna 30, 00-930 Warszawa
- 전화: (22)623 1000 / 팩스: (22)623 2750 / 인터넷: Www.Minrol.Gov.Pl

11) 교통해양부

- 주소: Ul.Chalubinskiego 4/6, 00-928 Warszawa
- 전화: (22)630 1000 / 팩스: (22)830 0261 / 인터넷: Www.Mtigm.Gov.Pl

12) 보건부

- 주소: Ul.Miodowa 15, 00-952 Warszawa
- 전화: (22)831 2144 / 팩스: (22)831 1212 / 인터넷: Www.Mzios.Gov.Pl

13) 투자유치청

- 주소: Al.Roz 2, 00-559 Warszawa
- 전화: (22)629 5717 / 팩스: (22)621 8427 / 인터넷: Www.Paiz.Gov.Pl

14) 기술청

- 주소: Ul.Krucza 38/42, 00-512 Warszawa
- 전화: (22)629 4151 / 팩스: (22)628 3611 / 인터넷: Www.Att.Gov.Pl

15) 중앙은행

- 주소: Ul.Swietokrzyska 11/21, 00-919 Warszawa
- 전화: (22)653 1000 / 팩스: (22)620 8518 / 인터넷: Www.Nbp.Pl

16) 조달청

- 주소: Al.Szucha 2/4, 00-582 Warszawa

- 전화: (22)694 7141 / 팩스: (22)628 8938 / 인터넷: Www.Uzp.Gov.Pl

17) 통계청

- 주소: Al.Niepodleglosci 208, 00-925 Warszawa
- 전화: (22)608 3000 / 팩스: (22)608 3863 / 인터넷: Www.Stat.Gov.Pl

18) 관세청

- 주소: Pl.Powstancow Warszawy 1, 00-030 Warszawa
- 전화: (22)826 1031 / 팩스: (22)827 3427 /
- 인터넷: Grazyna.Barczewska@Guc.Ac.Gov.Pl

19) 산업개발청

- 주소: Ul.Wspolna 4, 00-926 Warszawa
- 전화: (22)628 2350 / 팩스: (22)628 0934 / 인터넷: Www.Arp.Com.Pl

다. 은행

□ 상위 10대 은행(매출액 기준)

- Pko S.A.
 - 주소 : Ul. Grzybowska 53/57, 00-950 Warszawa
 - 전화 : (22)656 0000 / 팩스 : (22)656 0004 / 인터넷 : Www.Pekao.Com.Pl
- Pko Bp
 - 주소 : Ul. Pulawska 15, 00-950 Warszawa
 - 전화 : (22)521 8641 / 팩스 : (22)521 8642 / 인터넷 : Www.Pkobp.Pl
- Bh S.A.
 - 주소 : Ul. Chalubiskiego 8, 00-950 Warszawa
 - 전화 : (22)690 4792 / 팩스 : (22)830 0113 / 인터넷 : Www.Bh.Com.Pl
- Bph S.A.
 - 주소 : Ul. Na Zjezdzie 11, 30-527 Krakow
 - 전화 : (12)422 3333 / 팩스 : (12)618 7187 / 인터넷 : Www.Bph.Pl
- Bank Gospodarstwa Krajowego
 - 주소 : Ul. Lucka 7/9, 00-958 Warszawa
 - 전화 : (22)627 0386 / 팩스 : (22)658 6711 / 인터넷 : Www.Bgk.Com.Pl
- Big Bank Gdanski
 - 주소 : Ul. Kopernika 36/40, 00-924 Warszawa
 - 전화 : (22)657 5000 / 팩스 : (22)826 7180
- Bank Slaski
 - 주소 : Ul. Warszawska 14, 40-950 Katowice
 - 전화 : (32)253 0337 / 팩스 : (32)253 7852 / 인터넷 : Www.Bsk.Com.Pl

- Bre Bank
 - 주소 : Ul. Senatorska 18, 00-950 Warszawa
 - 전화 : (22)829 0000 / 팩스 : (22)829 0081 / 인터넷 : [Www.Bresa.Com.Pl](http://www.Bresa.Com.Pl)
- Powszechny Bank Kredytowy
 - 주소 : Ul. Towarowa 25A, 00-958 Warszawa
 - 전화 : (22)531 8000 / 팩스 : (22)531 8705 / 인터넷 : [Www.Pbk.Pl](http://www.Pbk.Pl)
- Kredyt Bank Pbi
 - 주소 : Ul. Kasprzaka 2/8, 01-211 Warszawa
 - 전화 : (22)634 5400 / 팩스 : (22)634 5335 / 인터넷 : [Www.Kredytbank.Com.Pl](http://www.Kredytbank.Com.Pl)

라. 경제단체

1) Government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 주소 : Ul.Wspolna 4, 00-926 Warszawa
- 전화 : (22)661 8111 / 팩스 : (22)621 2550

2) Polish Chamber Of Commerce

- 주소 : Ul.Tr?Backa 4, 00-074 Warszawa
- 전화 : (22) 630 9600 / 팩스 : (22)827 4673 / 인터넷 : [Www.Kig.Pl](http://www.Kig.Pl)

3)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 주소 : Ul.Sienkiewicza 12, 00-010 Warszawa
- 전화 : (22)622 6627 / 팩스 : (22)828 6069 / 인터넷 : [Www.Case.Com.Pl](http://www.Case.Com.Pl)

4) Adam Smith Research Centre

- 주소 : Ul.Bednarska 16, 00-321 Warszawa
- 전화 : (22)828 4707 / 팩스 : (22)828 0614 / 인터넷 : [Www.Adam-Smith.Pol.Pl](http://www.Adam-Smith.Pol.Pl)

5) Institute For Market Economy Researches

- 주소 : Ul.Kolobrzaska 16, 02-923 Warszawa
- 전화 : (22)651 8660 / 팩스 : (22)651 8662 / 인터넷 : [Www.Ibngn.Edu.Pl](http://www.Ibngn.Edu.Pl)

6) Institute For Economic Studies(Pan)

- 주소 : Ul.Marszalkowska 77/79, 00-683 Warszawa
- 전화 : (22)629 9146 / (22)629 5897

7) Institute For Researches Of Economic Situation And Prices

- 주소 : Ul.Frascati 2, 00-483 Warszawa

- 전화 : (22)629 5892 / 팩스 : (22)628 1777 / 인터넷 : Www.lkchz.Warszawa.Pl

8) Institute For Economic Development

- 주소 : Ul.Rakowiecka 22, 02-521 Warszawa
- 전화 : (22)849 5327 / 팩스 : (22)849 5327

9) Market &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

- 주소 : Ul.Krowoderska 59/6, 31-141 Warszawa
- 전화 : (22)646 3021 / 팩스 : (22)622 6351 / 인터넷 : Www.Cem.Pl

10) Polish Banking Institute

- 주소 : Ul.Nowogrodzka 22, 00-511 Warszawa
- 전화 : (22)622 5237 / 팩스 : (22)622 9896 / 인터넷 : Instytut@Bib.Com.Pl

11) Business Centre Club

- 주소 : Pl.Zelaznej Bramy 2, 00-529 Warszawa
- 전화 : 22 627 17 19 / 팩스 : 22 621 84 20 / 인터넷 : Www.Bccnet.Com.Pl

12) Polish Chamber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 주소 : ul. Nowogrodzka 31, RM 204, 00-511 Warszawa, Poland
- 전화 : (48 22) 628 2260/2406
- 팩스 : (48 22) 628 5536- 홈페이지 : www.piit.org.pl/index_eng.html
- e-mail : piit@ikp.pl

마. 한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대사관	Ul.Szwolczerow 6, 00-464 Warsaw	(22)559-2900	(22)559-2905
KOTRA바르샤바무역관	Ul.Emilii Plater 53, 00-113 Warsaw	(22)520-6230	(22)520-6231

바. 기타 폴란드 정보

- www.poland.pl

13. 관광명소

가. 바르샤바 및 근교지역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Warszawa)는 남쪽 국경 산악지역에서 발원하여 북쪽의 발틱해로 흘러 들어가는 비스와(Wisla)강과 모스크바-베를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폴란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위도상으로는 북위 55도에 위치하며, 면적은 485km², 인구는 165만명에 이른다.

바르샤바는 13세기에 도시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여 1413년 마조비아 공작 Janusz The Elder에 의해 마조비아 공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1526년 마조비아 공국이 폴란드 왕의 직속 영토가 되면서 1569년부터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왕국의 연합의 회의 개최지가 되었다. 1596년 Zygmunt 3세는 당시 왕궁인 크라코프(Krakow)소재 바벨성이 소실되자 왕궁을 바르샤바로 옮기면서 폴란드의 수도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었던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중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으나, 전후에 복구되어 현재 폴란드의 행정, 교육, 상업의 중심이 되어 있다.

주요 명소로는 왕궁(Royal Castle), 구시가 광장(인어동상, 바르샤바 역사박물관 등), 퀴리 부인 생가 & 박물관, 바르샤바 봉기 영웅 기념비, 무명용사 기념비, 성 세례요한 대성당, 와지엔키 공원, 빌라노프 궁전, 문화과학 궁전 등이 있으며, 바르샤바에서 50Km 떨어진 인근 젤라조바볼라에는 쇼팽 생가가 있다.

1) 와지엔키 공원(Lazienki)

18세기 후반 폴란드 최후의 왕 Stanislaw Augustus Poniatowski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원이다.

이 공원의 이름 와지엔키는 "목욕탕"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 지역은 귀족들의 수렵 장소인데 수렵을 마친 후 이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한다.

러시아의 여황제 애카데리나 2세의 젊은 연인으로서 그녀의 후광으로 왕이 된 Poniatowski는 정치적으로 무력하여 현실에서 도망치듯 공원의 조경에 열중했다. 그는 폴란드 영토가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삼국에 의하여 분할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1795년 애카테리나 2세로부터 폴란드 분할 문서의 조인을 강요당한 후에 퇴위하여, 1798년 성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Poniatowski왕은 열렬한 그림 애호가로서 당시 이 공원내의 궁에 회화와 조각품 5천 점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그가 페테르부르크로 갈 당시에 약 2천 점을 가지고 갔다.

2차대전 당시 이 궁에 소장되었던 많은 그림들은 독일로 유출되었고 1944년 큰 화재로 인하여 내부가 완전히 불타는 수난을 겪었으나 복구되어 지금은 국립박물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공원 입구에는 보리수 나무아래 쇼팽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해마다 5월 ~ 9월 사이 매주 일요일 12시, 16시에 쇼팽의 피아노 연주회가 무료로 열리고 있어 많은 바르샤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공원의 동쪽에는 귀족들이 수렵 휴식을 취하던 '레스트하우스'와 '화이트하우스'가 있으며, 유명한 금세기초의 폴란드 피아니스트이자 정치가였던 파테레프스키의 박물관도 이곳에 있다. 또한 남쪽에는 식물원과 함께 야외극장 등이 있다.

2) 바르샤바 왕궁(Royal Castle)

폴란드 왕국의 상징인 이 왕궁은 13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마조비아(Mazovia) 공작의 요새였으며, 14세기 중반에 방어용의 큰 탑과 성벽이 세워졌으며, 15세기 초에는 벽돌로 고딕식 왕궁이 세워졌고 수개의 부속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오늘날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은 '야기에오' 왕조의 마지막 왕이던 '지그문트 아우구스투스'왕 시절이며, 그는 종래의 건물을 '우아드로'라는 궁정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오늘날의 르네상스식 왕궁으로 변모시켰다.

스웨덴의 침입과 대형 화재로 크라코프의 바벨궁이 큰 손실을 입자, 1596년 Zygmunt Waza 3세는 수도를 바르샤바로 천도하고 이곳을 새 수도로 정했다 (구시가의 입구에 높이 서 있는 높다란 원주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지그문트왕의 동상임).

이후에도 이곳은 역대 왕조의 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제 2차 스웨덴의 침입으로 왕궁이 전소되는 등 많은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다시 새롭게 복구되었다.

16,17세기에는 이 왕궁이 의회(Sejm)를 포함한 정치의 중심이었으며, 폴란드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교도들에게 법적으로 자유를 부여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이다.

또한 1791년 5월 3일 이곳에서 유럽최초로 성문헌법이 상원을 통과하여 폴란드의 현대 국가 형성을 목표로 "무혈혁명"이라고 까지 불리워진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18년 독립 국가가 된 이후 왕궁은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었으며, 나치의 침략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이 왕궁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주춧돌만 남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1971년부터 이 왕궁을 복구하자는 국민들의 열광에 해외 동포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의 헌금과 정성으로 재건 작업이 시작되어 1988년에 이르러 완전히 제 모습을 찾았다.

3) 빌라노프 궁전(Palac Wilanowski)

바르샤바 남쪽 교외의 빌라노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세의 사가들로부터 17세기 중엽 회교도의 침입에 대항하여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구출했다는 평가를 듣는 비엔나 전투의 영웅 '얀 소비에스키' 3세의 여름 별궁으로 건립되었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한 이 건물은 바로크식의 궁전건물과 프랑스 왕가인 부르봉가 출신인 '소비에스키'왕의 왕비가 정성을 쏟아서 조경하였다는 프랑스식 정원이 유명하다.

4) 무명용사비(Monument Of The Unknown Soldier)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외곽인 승리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폴란드 독립을 위해 약 130년의 기간 동안 죽어간 수많은 무명용사를 위해 1925년 건립되었다.

Saxon궁의 3층 아케이트로 건립되었으나 Saxon궁은 1944년 파괴되고 현재는 아케이드와 무덤만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무명용사의 유해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교전지에서 가져온 흙을 담은 14개의 항아리도 묻혀있으며, 2차대전후 대리석판이 추가되었고, 폴란드 및 외국 주요 인사의 중요 행사 시에 헌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5) 국립미술관(National Museum)

1862년 설립된 바르샤바 미술관(Museum Of Fine Arts)이 1916년에 국립미술관으로 승격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26년 건축되었으며, 초대 및 제2대 박물관장의 노력으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국립미술관으로 건재할 수 있었다.

현재 동 미술관은 78만여 점의 그림, 사진, 아이콘, 동전 및 메달, 고인쇄물, 지도 등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그림은 고대미술관, Michalowski 교수관, Wyszynski 추기경 중세미술관, 외국회화관, 폴란드 회화관, 20세기 폴란드관, 폴란드 장식예술관 등에 전시되었다.

1995년에 동 미술관은 완전히 재정비되었고, 조각품이 재배치되었으며, Michalowski 교수관은 비잔틴 예술을 포함한 기독교 정교의 미술품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 동 미술관은 유럽 장식예술관, 동양미술관, 또 다른 고대미술관을 개관하기도 하고 있다.

6) 퀴리부인 생가 & 박물관(Maria-Sklodowska Curie's Museum)

구시가(Old Town)의 북쪽에 위치한 동 박물관은 퀴리부인이 탄생한 생가로, 퀴리부인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다.

소장품으로는 실험도구와 여러 기념사진들이 있으며, 방문자의 요청에 따라 퀴리부인의 일생을 담은 영화도 상영된다.

개장시간은 화요일-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일요일은 오전 10시-오후 2시 이다.

7) 쇼팽 생가,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

프레데릭 쇼팽의 출생지인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는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50킬로에 위치한다.

쇼팽은 당시 이곳의 영주였던 스카르벡 백작의 먼 친척이자 프랑스어 교사였던 프랑스인 아버지와 평범한 여성이었던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발휘하였던 쇼팽은 그의 나이 7세때 바르샤바로 이사를 갔지만 종종 이곳을 방문하여 예술가로서의 그의 감성을 연마했으며, 지역 농민들이 즐겨 부르는 마주르카곡은 나중에 그가 고향을 생각하고 작곡한 많은 곡들 속에 융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쇼팽이 바르샤바로 이사를 가고 스카르벡 백작이 죽은 후 이 집은 농장의 마굿간으로 사용되는 등 점차 퇴락하여 갔으나, 19세기말 쇼팽을 추앙하였던 한 러시아 음악가에 의하여 이 집이 복원, 수리되어 박물관으로 변모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폴란드에서는 쇼팽협회가 발족되고 이 집의 관리는 쇼팽협회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이때에 원래 작은 지역이었던 것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넓은 부지를 추가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세계 각국의 쇼팽 음악 애호가들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물들을 기증하여, 현재 이 공원에는 약 1만 5천종의 세계 각국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한편 1830년 폴란드를 떠난 쇼팽은 크라코프, 프라하, 비엔나, 뮌헨 등을 거쳐서 파리에 정착한 뒤 작가 조르주 상드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이 여인의 후원 아래 쇼팽은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여동생이 파리를 방문하여 그의 심장을 가지고 와서 바르샤바 구시가지에 있는 '성 십자가' 성당에 안치했다.

해마다 5월에서 9월까지 매주 일요일 11:00-15:30이면 이 생가에서 저명한 피아니스트 들의 연주회가 열린다.

나. 유네스코 지정 9대 문화 유산

폴란드에는 다양한 관광 명소 외에도,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 유산(World Heritage)' 9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크라쿠프의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Cracow)

1978년에 지정. 지정 당시 유네스코는 전세계에 단 12개소를 문화유산 지구로 선포했는데 크라쿠프 구시가지가 그 중의 하나였음.

16세기 폴란드의 수도를 현재의 바르샤바로 옮기기 전까지 수도였으며,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의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함께, 중세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음.

또한 폴란드 전역을 통해 드물게도 제2차 세계대전의 戰禍를 입지 않은 덕분에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00년대의 100년 동안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내에 단 한 채의 신축 건물도 없는 것으로 유명.

타원형으로 조성된 시가지는 주변이 녹지대로 둘러 쌓여 도시건축 공학 측면에서도 유명함. 구시가지의 중심부는 40,000s/m(약 13,0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광장이 조성되어 옛부터 市場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태리 베네치아의 마르코 광장과 더불어 유럽 최대 규모의 마켓스퀘어(Market Square)를 자랑하고 있음. 광장 중앙부에 있는 직물회관과 거대하면서도 내부 장식이 정교한 '聖 마리아' 성당은 특히 주목을 끌고 있음.

중세식 구시가지와 더불어 인접한 왕궁(Royal Castle) 및 바벨 언덕(Wawel Hill)까지 보존 지구에 포함되어 있음.

광장 주변부의 건물들은 대개가 지하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이 '부띠끄' 형태의 상점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하공간도 카페 등 훌륭한 지하 상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바르샤바에는 여행사들이 주관하는 패키지 투어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주로 열차편으로(Inter City로 불리는 특급열차로 약 2시간 30-40분 소요)이동하여, 현지에서 별도의 교통편을 이용, 60킬로미터 떨어진 유명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와 30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130미터에 조성된 관광 명소인 거대한 '소금 광산'을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비아보비에차 숲(Bialowieza Forest)

1978년에 지정. 1992년에는 폴란드 동부에 인접한 벨로루시(白러시아) 지역까지 보존구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음.

3) 비엘리츠키 소금 광산(Wieliczka Salt Mine)

1978년에 지정. 13세기 이래 암염 광산으로 개발된 이래, 오늘날까지 무려 700년 이상 활용이 되고 있어 전 세계 광산 중 가장 오랜 기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함.

염수 탐사를 하다 발견된 암염광은 1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4세기에 이르러 왕국 재정 수입의 1/3이 소금 광산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함.

同 소금광산은 13세기, 당시 '헝가리'왕 벨라 4세의 딸인 '킹가' 공주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전설과 함께, 킹가 공주는 '비엘리츠키'의 수호 성인으로 봉안되면서, 갱도 내 곳곳에 다양한 소금 조각상이 세워져 있음.

이후 700년 동안 약 7,500만 톤이 채취되었는데 이를 화차에 적재하면 지구 둘레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임. 전체 갱도는 지하 64미터에 위치한 1단계에서 지하327미터에 위치한 제9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연장 250킬로미터 이르며, 채굴하면서 남겨진 방의 형태만 2,040개에 이름. 오늘날 일반에게 관람이 허용된 부분은 전체의 3%에 불과함.

한편, 광산 내부는 늘 화재와 낙반 사고 등이 뒤따라 매우 위험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16세기에는 한 때 매년 전체 광부의 10%가 사고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지하 광산 내부를 둘러 보는 데는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반드시 가이드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볼 수는 없게 되어있음.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매할 때 20-30명 단위로 그룹을 지어 구경을 하게 되므로 입장이 약간 지체됨.

또한 지하 광산내부는 평균 10도 내외로 다소 서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긴 팔 상의를 한 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여름에는 마지막 입장이 오후 6시까지 가능함.

4)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Auschwitz-Birkenau Concentration Camp)

1979년에 지정. 독일의 나치 제3제국 시절에 조성된 최대 규모의 집단 수용소 겸 처형장으로, 194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약 400만 명이 기아, 고문, 처형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희생자의 대부분이 유럽 각지로부터 압송된 유대인이었음.

희생자 숫자는 통상 400만 명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舊소련이 과장되게 발표했다는 설과 함께, 지속적인 사실 관계 추적에 따라 오늘날에는 150만 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함. 바르샤바에서 360킬로미터, 크라쿠프 시에서 6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후, 이 지역은 폴란드 지명으로 '오시비엡침' (Oswiecim)이라 불려오다 독일에 의해 편입되면서 독일명으로 아우슈비츠로 변경되었음.

당초에는 폴란드 등 점령지의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압송되어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나치에 의해 분류된 이른바 저질 인종이라는 집시 등을 강제 수용하여 노동력 착취는 물론 결국에는 처형시키는 대규모 처형장으로 바뀜.

수용소 소장은 '루돌프 헤스'였으며, 총 28개 동으로 구성된 수용소 규모였음. 피크 타임이었던 1942년에는 동시 수용인원이 한 때 28,000명에 달하였으나, 평상 시에는 15,000명 내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이러니하게도 전후 뉘른버그 전범 재판소 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헤스는 유대인들의 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이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음.

이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41년 아우슈비츠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브제젠카 (Brzezinka: 폴란드 지명. 독일명으로 비르케나우)에 제 2수용소를 지었는데, 후에 아우 슈비츠 제 2수용소라고 명명되었음. 전체 부지가 무려 53만평에 달하며 수용소 건물만도 300동에 달하였는데, 1941년에는 한때 동시 수용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음.

이후 1942년에는 또 다시 인근 '모노비체' 지역에 제 3수용소를 설립한 바 있는데, 현재는 제1수용소와 제 2수용소만이 보존되어 일반 관광을 시키고 있는 것임.

당시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이곳에 진입하기 직전 나치에 의해 수용소 시설은 물론, 각종 문서 기록들이 파기되어 어느 누구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후 유대인들이 사실 추적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자료들이 수집된 것임. 현재 전시되고 있는 희생자들의 유품들도 전쟁 말기에 파기되지 못한 채 발견된 일부분에 불과하나, 이것만으로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유례없던 비극을 짐작케 하고 있음. 매년 최소한 100만 명의 관광객,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음.

폴란드 내에는 아우슈비츠 외에도 2차 대전 중 20만 명이 희생된 바르샤바 시내 소재 유대인 '게토' 지구가 극히 일부분만의 시설을 보존하고 있으며, 폴란드 동부의 중심도시 루블린(Lublin)근교에도 엄청난 규모의 유대인 수용소 현장이 보존되고 있으나, 아우슈비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5) 바르샤바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Warsaw)

1980년에 지정.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여름 독일군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바르샤바 시민군이 무장 봉기를 일으킴에 따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면서 쌍방이 막대한 희생자를 낸 바 있는데, 독일군은 시민군을 철저히 괴멸시키는 한편, 소련군의 바르샤바진주에 앞서 퇴각하면서, 13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잘 축조된 舊시가지(Old Town) 전체를 다이나 마이트로 완전히 초토화시킴.

이후 폴란드는 공산치하에 있던 1951년부터 1966년에 걸쳐 각계 각종의 고증 자료를 활용하고, 복구에 따른 막대한 인력 수요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료 근로 참여 등을 이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5년 만에 완전히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킴.

유네스코는 지정할 당시, 13세기의 역사를 20세기에 고스란히 복원해낸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음.

규모 면에서는 크라쿠프의 구 시가지와 비교가 되지 않으나, '바르샤바'시의 80%가 2차 대전 중 초토화 된 만큼, 옛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바르샤바로서는 이곳 만이라도 드물게 중세 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돋보이는 곳이 되고 있음.

6) 자모츠 舊市街地(The Old City of Zamosc)

1992년에 지정. 16세기 '얀 자모이스키'장군(Jan Zamoyski)에 의해 축조되고, 파우다 (Paouda)의 건축가 베르나르도 모란도(Bernardo Morando)에 의해 설계된 곳으로, 오늘날 "가장 완벽한" 르네상스식 건축물이 보존된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7) 토룬시의 中世式 舊市街地(The Medieval Town of Torun)

1997년에 지정. 14세기-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세식 건축물을 구비한 "한자동맹 (Hanseatic League)" 시절의 상업중심 지구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평가 되고 있음.

토룬은 한때 독일의 튜턴 기사단(Teuton Knights)의 거점지역중의 하나였으며, 오늘날 까지 도 '튜턴'식 건축물의 잔재가 구 시가지 곳곳에 남아있음.

또한 이곳은 폴란드의 남북을 관통해 '발틱'해로 흘러내리는 '비스와'강에 인접해 있는 도시였기에 당시 호박 등 토산물의 무역 통로로도 잘 활용되던 곳임.

현재는 교육 중심 도시이기도 한 이곳은, 지동설로 유명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holas Copernicus) 탄생지이기도 함.

8) 말보르크의 튜튼식 성채(The Castle of the Teutonic Order in Malbork)

1997년에 지정. 튜튼 기사단 시대의 중심지로서 중세식 붉은 벽돌 양식을 이용하여 축성된 대표적인 성채로 꼽히고 있음. 19세기에 1차 보수가 있었으며, 2차대전 당시 공습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입은 후, 또다시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진 바 있음.

튜튼식 성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한 만큼, 오늘날 독일로부터의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음.

내성과 외성으로 축성되고, 가운데 탑 부분은 10층 높이로 당시의 건축술로 볼 때 벽돌만으로 이만한 높이를 축조한 것은 대단한 기술로 평가 받고 있음.

9) 칼바리아 제브리돔스카(Kalwar ia Zebrzydowska)

1999년에 지정. 예루살렘을 모델로 한 16세기 유행한 '마니에리즘' 양식의 건축물과 자연 풍경이 복합된 장소로, 전형적인 폴란드의 전통 민속종교인 "예수 고난(the Passion of Christ)회"의 기도 장소이기도 함.

다. 카톨릭 성지

현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을 배출한 폴란드는 정통 카톨릭 국가로서 많은 종교적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은 성모 발현지로서, 바르샤바 시에서 남서쪽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첸스토호바'의 '야스나 구라' 성당에 있는 '검은 성모상'과, 바르샤바 시 서쪽 200 Km에 위치하고 있는 '리헨' 성당의 성모상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1) 첸스토호바의 검은 성모상

첸스토호바(Częstochowa)시의 야스나 구라(Jasna Góra: 빛의 언덕)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검은 성모상은 폴란드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차례 기적을 일으키면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인들은 이곳을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검은 성모상의 유례는, 누가복음을 지은 루가(St. Luke) 성인(聖人)이 나자렛에서 성모로부터 예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던 삼나무 식탁에 그린 그림이라고 전해진다. 이후 서기 326년, 예루살렘에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모후인 헬레나 성인에게 발견되어 보관되었다가 헬레나 성인이 성지 순례차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할 때 아들 콘스탄틴 황제에게 전해졌으며, 황제는 곧 성당을 지어 이 성모상을 안치하였다.

5세기 동안 콘스탄티노플에 보관되어 있던 성모상은,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전전하다가 결혼 지참 예물의 일부로 폴란드의 라디스와브(Radysław) 왕에게로 오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에 보관되었던 성모상은 1382년 타타르족의 침공시 '타타르'군이 쏜 화살에 맞아 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라디스와브 왕은 보다 안전한 곳에 보관할 곳을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인 오폴레(Opole)로 옮기기로 하였다. 옮기던 중 '첸스토호바'에서 하루를 유숙하면서 왕은 꿈을 꾸었다. 꿈에 자신들이 묵고있는 첸스토호바의 야스나 구라 언덕이 보이고 그 언덕의 정상에 "성모의 승천"이라는 조그만 목조 성당에 자신이 옮기고 있는 성모상이 걸려 있는 것이었다. 이튿날 일행이 오폴레로 출발하기 위해 성모상을 마차에 옮겨 실었으나, 마차를 끄는 말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왕은 『이는 분명히 하늘의 계시임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야스나 구라의 성당에 성모상을 안치하였다.

1430년 후스(Huss)의 추종자들이 야스나 구라를 침입하여 사원과 성모상을 파괴하려고 성모상을 향하여 칼을 뽑았다. 두번이나 칼을 휘둘렀으나 성모상의 얼굴에 칼자국만 남겼으며, 세 번째 휘두르려 하자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때 입은 두 번의 칼자국이 지금의 성모상에 나타나 있으며, 후세에 이 칼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 번 수리하였으나 보수가 끝나면 다시 선명하게 칼자국이 되살아났다고 알려지고 있다.

카지미에르즈(Jan Kazimierz)왕은 1656년 야스나 구라 요새에서 스웨덴 침략군을 격파하고 폴란드와 유럽을 스웨덴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 성모상이 일으킨 기적이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1659년 이 성모상을 폴란드의 수호신으로 공식 공포하였다. 폴란드의 수호신이라는 명칭은 1962년 당시 교황 요한13세로부터 재차 인정을 받았다. 1979년 교황으로 선출된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의 자격으로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성모'의 보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그 후로도 1983년과 1991년 두 차례 더 방문을 하였고, 이는 전 세계에 야스나 구라가 널리 알려지게 된 동기가 되었다.

□ 성모상이 일으킨 기적(奇蹟)의 사례

1655년 폴란드를 침범한 스웨덴군은 야스나구라 성당을 포위하고 화살을 퍼부었으나 성벽에 다다른 화살은 마치 그물에 걸린 듯 모두 성벽 밖으로 떨어지고, 이에 힘입은 폴란드군의 반격으로 스웨덴군은 대패했다고 전해진다. 이 정경을 묘사한 그림은 지금도 많은 화가들에게 의하여 그려지고 있다.

또한, 1920년 러시아를 적화시킨 레닌의 적군(赤軍)이 서유럽에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맨 먼저 폴란드를 공격했다. 당시 독일은 폴란드가 곧 패배할 것이며 이어서 베를린으로

몰려올 러시아 군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공황에 빠졌다. 그러나 바르샤바의 동쪽, '비스와' 강변에 도착한 러시아군은 구름 속에 나타난 성모의 모습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싸였고, 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폴란드의 독립 영웅 피우수드스키(Jozef Piłsudski) 장군이 이끄는 폴란드 군에 대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소련은 유럽 적화라는 야욕을 포기해야만 했고, 폴란드는 전 유럽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계기가 되었다.

성모상이 검은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성모상의 유래를 조사한 크루즈(Joan Carol Cruz)는 그 단서를 기도서에서 찾는다. 즉 성가(聖歌)에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검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제단을 밝히는 초의 그을음이나 향연(香煙)이 착색되어 이로 인하여 검게 변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성모상이 안치되었던 사원들이 이교도들에게 여러 번 침입을 받았고 그때마다 불에 탄 적이 많았는데 이 때의 화염(火焰)과 연기로 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모스(Moss)는 회화(繪畵)에서 인물의 피부를 검게 변색시키는 것이 중세기 대표적인 비잔틴 양식의 한 기법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이 성모상의 모작(模作)은 여러 곳에 있는데, 스위스의 복제화는 야스나 구라의 성당의 원화(原畵)보다 더 검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도일스타운에 있는 복제화는 오히려 옅은 살색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검은 성모상이 안치된 성당에는 기적에 힘입어 장애를 치료 받은 순례자들이 기증한 선물들이 온 벽을 덮고 있으며, 성물들을 보관한 보물관에는 역대의 제왕이나 순례객들이 봉헌한 수많은 보물과 성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중세 폴란드의 카톨릭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귀한 서적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다.

성당내의 박물관에는 고(古) 성경과 성모상을 감싸던 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성의(聖衣)들이 있으며, 진열장 한쪽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신자들이 빵 조각을 이용해 만들어 사용했다는 목주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노조'를 지도하던 바웬사의 투옥 당시의 초상화도 있으며, 그가 자유노조 지도자로서 정부와 함께 사인을 하던 불펜과 함께 노벨 평화상도 진열되어 있다. 수상 후,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훈장들도 함께 진열되어 있다.

2) 성모 발현지 리헨(Lichen)

또 다른 성모상으로 리헨(Lichen)의 것이 유명하다. 코닌(Konin) 근교에 있는 리헨의 성모상(애도의 성모상, sorrowful Madonna)은 1813년에 라이프치히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폴란드 출신 병사에 성모가 발현하면서 구함을 받은 이 병사가 고국으로 생환하여 자신에게 나타났던 성모상을 찾아서 봉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성모상은 1850년 리헨 근교 숲속에서 발현, 당시 전 유럽을 휩쓸던 콜레라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구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킨 만큼 폴란드의

수호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1967년 요한 바오로 6세로부터 공인을 받으면서 매년 수백 만명의 순례자들이 찾고 있다.

2000년은 성모 발현 1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많은 순례자들의 참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대한 성당을 지었는데 2만 명이 동시에 미사를 볼 수 있는 전 유럽에서 7번째로 큰 규모의 성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기적을 일으키는 검은 성모상이 있는 곳으로는 폴란드 외에도, 알토팅(Altötting)의 성모(Bavaria, Germany), 헤르밋(Hermits)의 성모(Einsiedeln, Swiss), 과달루페(Guadalupe)의 성모(Mexico City), 몬세랫(Montserrat)의 성모(Spain), 틴다리(Tindari)의 성모상(Sicily)이 있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EU의 공동통상정책 적용

2004년 5월 1일 폴란드 등 10개국의 EU 가입과 동시에 EU와 신규 회원국간(폴란드) 관세 동맹이 발효되었다.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서 회원국간 무관세는 물론 대외무역에서 공동통상정책과 공동수입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EU 가입으로 폴란드에는 EU의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이 적용되며, EU의 특혜무역협정(GSP, FTA 등)과 무역규제조치가 폴란드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폴란드의 기존 무역규제조치와 제3국과의 무역협정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EU가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시행중인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의 수입 규제조치가 EU 가입과 함께 폴란드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나. 공동역외관세 적용

폴란드 자체의 관세율도 없어지며, 이제 EU의 공동역외관세(CET)가 적용된다. 2004년 5월 1일 이전 폴란드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9.9% 였으나, EU 가입으로 평균 관세율은 EU의 3.6%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EU와 폴란드의 관세율 수준 비교 (2004. 5. 1일 이전)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전품목 평균
폴란드	33.8	18.5	9.9	15.1
EU공동관세율	16.2	12.4	3.6	6.3

자료원 : EU 집행위, Market Access Database

EU 가입에 따른 폴란드의 주요 품목별 관세 인상/인하 내역

인하품목	인상품목	변동 없음
TV부품 9%→0 자동차부품 15% → 3.5% 휴대전화기 9%→0 합성직물 9%→8% 소형승용차 35%→10% 화물차 35%→10% 선박엔진 10%→0	없음	기억장치 0→0 입출력장치 0→0

다. 기타 사항

폴란드의 공산품 안전기준이 EU의 강제규격 인증제도인 CE 마크로 통일되며, 기타 환경기준 등 각종 기준이 EU의 체계로 통일된다.

16. 수입규제제도

가. 개황

직접적인 수입 제한 정책은 없다. 그러나, 폴란드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처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그간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2004년 5월 1일 폴란드가 EU에 가입함으로써 수입관리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폴란드가 EU의 공동통상정책(CCP)를 따르게 됨으로써 폴란드의 기존 무역규제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EU의 무역규제조치가 폴란드에 적용되게 되었다.

나. 수입 규제 조치

1) 개관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과 함께 폴란드는 EU의 공동통상정책 (CCP; Common Commercial Policy)을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의 무역규제조치가 신규 회원국인 폴란드에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5월1일부로 폴란드의 기존 무역규제조치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반면, EU가 역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폴란드에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EU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컬러TV, 컬러 브라운관 등), 세이프가드(철강제품), 상계관세(반도체) 등의 수입규제조치가 이제 폴란드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폴란드가 EU의 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폴란드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추진키 위해서는 EU 집행위 제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2) 수입 금지 품목

야생 동물 가죽 및 제품, 지적재산권 위반제품, 특정국에서 잡히는 참치, 가금류를 제외한 산 새, 라이베리아산 제품, 이라크 산 제품 등이 있다.

3) 수입 쿼터(수량 제한) 품목

EU 회원국으로서 EU와 동일한데 현재 철강제품 (대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섬유/의류 (대상국: 베트남,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북한)가 대상이다.

4) 수입 감시 품목

수입 감시 품목으로는 섬유/의류, 각종 신발류를 비롯해서 다이아몬드(대상국: 아프리카 국가들) 등이 있다.

다. 기존 무역 규제 조치 효력 상실

2004년 5월 EU 가입 전까지 폴란드는 모두 13건의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세이프가드 7건, 반덤핑 조치 6건) 반덤핑 조치는 중국, 벨라루스 등 주로 저임금 국가의 제품에 적용되었으며(대만산 Lighter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았고, 품목에 따라 중국, 우크라이나 등 저임금 국가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한국과 관련해서도 칼슘 카바이드, 가스 온수기, 성냥, 철강제품 등 4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EU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의 기존 무역규제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고 EU의 무역규제조치가 폴란드에 적용되게 되었다.

17. 관세제도

가. 관세체제 및 EU 가입에 따른 변화

폴란드의 관세체제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MFN) 여부, 경제발전 정도, 자유무역협정 유무 등에 따라 크게 4종류로 분류되었다. 즉, Conventional Customs Tariffs (기본세율), Autonomous Customs Tariffs (자율세율), Preferential Customs Tariffs (특혜세율/GSP), Discounted Customs Tariffs (협정세율) 등이 그 것이었다.

그러나, 2004년 5월 1일 폴란드 등 10개국의 EU 가입과 동시에 EU와 신규 회원국간(폴란드) 관세동맹이 발효됨에 따라 EU 회원국간 무관세,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수입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즉, 폴란드 자체의 관세율은 없어지며, 이제 EU의 공동역외관세(CET)가 적용되는 것이다. 5월 1일 이전 폴란드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9.9% 였으나, EU 가입으로 평균 관세율은 EU의 3.6%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EU와 폴란드의 관세율 수준 비교 (2004. 5. 1일 이전)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전품목평균
폴란드	33.8	18.5	9.9	15.1
EU공동관세율	16.2	12.4	3.6	6.3

자료원: EU 집행위, Market Access Database

EU 가입에 따른 폴란드의 주요 품목별 관세 인상/인하 내역

인하품목	인상품목	변동 없음
TV부품 9%→0 자동차부품 15% → 3.5% 휴대전화기 9%→0 합성직물 9%→8% 소형승용차 35%→10% 화물차 35%→10% 선박엔진 10%→0	없음	기억장치 0→0 입출력장치 0→0

EU 회원국의 수입관세율은 다음 사이트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Taric code 문구 클릭
- Taric code 란에 HS 번호 6자리 입력
- HS 번호를 모를 경우 Browse를 클릭, HS 번호를 찾음
- Country of Origin 란에 수입대상국을 입력/클릭
- Simulation date 란에 원하는 날짜 입력
- 하단의 duty rate 클릭
- 해당 국가 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나타남

18. 주요인증제도

CE 마크는 소비자의 안전, 건강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품에 적용되는데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전격 도입되었다.

가. CE 마크의 개요와 승인 절차

1) 제도 현황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폴란드에서 판매되는 특정제품들(소비자 건강, 안전, 위생, 환경 보호 관련제품)은 EU의 요건, 즉 CE 마크를 받아야 한다. CE 마크가 요구되는 21개 품목 군은 다음과 같다.

- 완구류
- 단순압력용기
- 가스기기
- 기계류
- 전자파관련제품(전자기 정합성)
- 통신단말기
- 계량저울
- 신체보호장비
- 이식용 의료기기
- 온수보일러

- 건축자재
- 저전압기기
- 의료장비
- 민수용 폭약
- 방폭기기
- 레저용 선박
- 승강기
- 압축장비
- 무선통신 및 통신말단기기
- 냉각장치
- 실험진단용 의료기기

CE 마크와 관계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Polish Centre for Accreditation (폴란드 인증 센터)

- 주요 업무
 - 인증기관의 인가
 - 검사기관의 인가
 - 시험실(laboratories)의 인가
 - 인가된 기관 및 시험실 감독
 - 인가된 기관/시험실 리스트 관리

□ Office for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경쟁 및 소비자보호사무소)

- 주요 업무: 경쟁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시장과 상품에 대한 관리, 통제

□ 검사 및 시험기관

- 지정인증기관(Notified Body) 이라고 불리며, 검사성격에 따라 적합한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임
- 주요 업무: 제품 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 모듈 결정, 기술자료 및 설계 서류 평가 등

2) 인증 승인 절차

CE마킹은 관련 품목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데, 완구류, 전자기정합성, 기계류, 개인 보호장비 등의 제품은 반드시 EU 지정인증기관에 의한 의무적 시험검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자기인증)

이 경우 CE마킹 의무자(제조자, 수입업자 등)는 스스로 자사제품이 EU 관련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EU 표준규격에 부합됨을 선언(적합성 선언)하고, 이를 증빙하는 적합성인증서를 관계당국이 요구할 때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제품의 생산절차나 서비스절차 자체에 대한 안정검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상품화 이전에 반드시 EU 지정인증기관의 사전검증을 거쳐 CE마크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정인증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서류검사 또는 현장실사 등 검사방법은 해당품목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 CE마킹 제도의 시행절차

- 일반적으로 CE마킹 제도의 시행절차는 ①EU품목별 지침 제정 → ②EN규격 제정 → ③각국별 규격과 조화조치 시행 → ④EU 역내 강제시행 → ⑤제조자 및 대리인 CE인증 획득 → ⑥CE마킹 → ⑦통관 및 유통 → ⑧각국 사후 검사 및 관리이다.

○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절차

- 인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CE마크 획득을 위한 검사의뢰(신청 시 자료첨부) → 샘플송부 → 검사 및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회의 → 인증서 교부

○ 공장검사

- 검사 및 평가 단계에서 제품샘플의 검사 외에도 필요 시(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혹은 관련 품목의 지침이 요구할 경우)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 공장심사 시 심사원은 제조공장과 제조장소의 검열과 더불어 때로는 필요한 테스트를 실시하며 그 외에도 제품시스템 관련 서류, 사내품질기록서, 사내 또는 외부 기관에 의한 검사보고서, 테스트 데이터, 검사원의 자격에 대한 서류 등을 심사한다.

○ 시험소요기간 및 시험비용

- 획득 비용은 제품群별로 천차만별이며, 소요기간 역시 그러한데 비교적 단순한 제품의 경우 몇 주(週) 내에도 가능하나,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 참고로 폴란드의 관련기관들로부터 입수한 일부 제품군에 대한 CE 마크 획득비용 및 소요기간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니 참고 바란다.

○ 제품群별 CE 마크 획득비용 / 소요기간

- 저전압기기: PLN 1,200 - PLN 4,500 / 약 6주
- 기계류: PLN 8,000 - PLN 20,000 / 3개월
- 신체보호장비: PLN 1,850 - PLN 3,700 / 2개월 - 4개월
- 완구류: PLN 500 - PLN 4,000 / 2주 - 2개월
- 적용환율: US\$ 1은 약 3.3 PLN

3) 미 이행시 제재사항

CE 마킹이 요구되는 품목(群)의 경우, 마크를 획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폴란드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한편, 불법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였을 경우, 해당 업체는 PLN 10만 (약 US\$ 33,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19. 지적재산권

가. 개황

폴란드는 법률로 모든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고 있다. 활동중인 예술가의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라디오/TV 프로그램, 발명, 산업샘플, Trademark, 심볼 등 모든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

폴란드는 Berne Society(문학/예술품 보호), Paris Society(Trade Ownership 보호), WIPO(World Institute of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폴란드 법 또는 국제협정에 의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폴란드가 이제 EU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므로 특허, Trademark, Copyright 등의 분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폴란드의 Copyright에 대한 보호는 "Rome text of Berne Convention on Copyright"에 의거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Literary Work, Scientific Work, Artistic Work, 그리고 Copyright이 찍혀 있는 사진과 음악 등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된다.

창작자의 권리는 상업적 또는 개인적 권리가 모두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권리는 창작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종료된다.

나. 특허등록

폴란드는 Stockholm text of the Pari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greement on the Unification of the Requirement for Preparing and Filing Application and Invention, Madrid Convention on Patent 등의 인준 또는 서명국이다.

등록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등록된 모델, 발명품, 산업디자인 등의 보호 기간은 5년이며 추가적으로 5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Trademark는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씩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폴란드 특허청의 Trademark 신청서류의 검토 기간은 약 3년이다.

생산국과 생산자를 속이는 행위, 상품의 외양을 모방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상대회사의 불리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등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상표권 등록

상표등록은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 상표 등록처는 폴란드 특허청이다. 등록이 배제되는 경우는 타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기등록 사용중인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미 폴란드 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상표등록 시효가 끝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할 경우 등이다.

상표 심사 처리절차는 상표등록회사 -> 변리사 위탁 -> 특허청 신청-> 변리사 등록 통고 -> 등록회사 통고의 순이다.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 6개월~3년이다. 상표권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희망에 따라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소멸요건은 10년 경과 후이며 또는 변리사를 통해 취소 절차를 밟을 경우이다.

선 등록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신규 상표 등록 시 기존 사용 상표의 표절 또는 유사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

상표 출원을 위한 신청서류는 상표기술(상표의 형태에 대한 기술), 상품의 범주, 회사명, 상품에 대한 설명, 행위의 범주(생산, 유통, 서비스 등)이다. 추가 유청 서류는 상표 로고에 대한 칼라사진 20매, 상표로고 흑백사진 2매, 변리사의 공증서, 변리사 업무 위임증서 등이다.

20. 소비자보호제도

폴란드의 소비자 보호 관련제도로는 유럽공동의 규격인증제도인 CE 마크를 들 수 있다. CE 마크는 소비자의 안전, 건강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품에 적용되는데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전격 도입되었다.

□ 폴란드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

- UOKiK (Office for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임
- PIH (Polish Trade Inspection)
 - 상거래 조건 등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함
- Sanepid (Sanitary Inspection)
 - 위생 조건 등을 모니터링 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함
- Rzecznik Konsumentow (Spokesmen of Consumers)
 -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문제 발생시 도움을 주는 지방 기구임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폴란드의 교역관련 국가기관으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경제노동부(Ministry of Economy and Labour)가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국제상거래에 관한 세관 통제
- 국경에서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징수
- 밀수 방지
- 수입제품으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 소비자 보호
- 자연환경, 위생 등 보호

- 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 국제무역량 규제 등 관세정책 시행
- 국제무역 금지제품에 대한 규제
- 외환통제 및 돈세탁 방지
- 외국 유사기관과 협조 등

2) 경제노동부(Ministry of Economy and Labour) 산하 국제경제협력국(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 교역상대국의 경제동향, 경제사회정책 분석
- CEFTA(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간 경제조약의 준비 및 협상
- 무역상대국이 WTO, CEFTA, EFTA 회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 WTO 신 가입국에 대한 평가
- 경제이슈에 관한 국가간 회담, 위원회, 워킹그룹 등을 준비
- EU 역외국에 있는 폴란드 대사관의 경제, 무역부서 활동 지도
- 비 EU 국가와의 무역정책에 대한 EU 의회 워킹그룹, 위원회 참가

22.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폴란드는 중동구 최대의 시장이다. 경제규모(2005년 3,028억불)는 같은 중동 구 국가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한 것보다도 크고, 한국의 1/3 수준이다.

폴란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틱3국, 체코, 슬로바키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자재가 이들 국가로 재수출되는 물량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폴란드 시장을 범 슬라브 시장으로 확대하여 실제 인구는 39백만 명이나 1억의 시장으로 보기도 한다.

중동 구 최대의 인구와 면적, 동-서유럽 사이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이점, 과감한 제도 개혁 등으로 중동 구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공식적인 수입 시장 규모는 2004년 879억불, 2005년 1,009억불 수준이지만 추가적으로 서쪽의 독일 접경지대와 동쪽의 구 소련 위성국가(CIS)를 상대로 한 불법국경 무역액도 100억불 이상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수입시장은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위주이다. 전기·전자, 기계 및 엔지니어링 제품을 중심으로 한 설비 류와 원부자재 수입이 총 수입의 80%를 차지한다.

폴란드의 대외교역은 국가별, 지역별, 경제권 별 의존도가 편중되어 있다. 총 교역액의 70% 정도가 EU 국가와의 거래이다. 개별 국가로는 독일이 최대이다. 2005년도 기준 한국의 대 폴란드 수출은 11억 7천 5백만 불 수준이다.

나. 시장특성

1) 가격에 민감

폴란드 소비자들의 최우선 구매 결정 요소는 가격이다. 1인당 GDP가 2005년 US\$ 7,937불로서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품질에 대해서는 기본 기능을 중시하며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비싼 제품을 구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근검, 절약이 습관화될 수밖에 없으며 서방의 수입품이 많이 있는 백화점 및 상점에서도 최소의 경비로 우선 순위에서 따른 필수품만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사회보장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제 생활의 질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 광고의 중요성 제고

그 동안 경시되던 광고가 판촉 전략에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광고 수단은 TV, 라디오, 인쇄매체, 옥외 광고판 등이다. TV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상표들은 브랜드 제품으로 평가된다.

인근 독일 등 서구와의 빈번한 교류, 특히 위성 TV수신을 통한 서구 소비문화에 대한 높은 인지도 때문에 저렴하면서 패션과 품질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상품이 구매 대상이 되고 있다.

3) 구매패턴의 변화 추세

소비자 구매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체제전환 이후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빈부 격차 확대에 따른 중산층 감소로 시장수요가 이원화되고 있다. 고소득층은 EU산 등의 고급 브랜드 위주로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가격위주로 구매한다.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점차 브랜드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고 있다. 중산층이 미약하나 94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 자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약 5% 정도의 인구는 부유층에 속하는데 이들이 개방 이후 고가 사치품의 주 소비층이다.

4) 구매 시즌

전통적, 종교적인 행사 등의 특수는 따로 없다. 일반 공산품 및 원부자재는 특정 구매 시즌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3 - 5월에 비교적 구매가 많다. 선물용품 등의 일반소비재는 크리스마스 때 구매가 가장 왕성하고 1 - 2월의 연초가 가장 저조하다.

5) 유통구조

일반적인 수입 상품의 유통구조는 수입상-> 디스트리뷰터-> 도매상-> 소매상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다. 수입상이 도소매업을 겸하는 Hurtownia (자체 창고를 갖고 있는 도매상)가 수입, 디스트리뷰션, 도매, 소매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 품목은 전기, 기계제품, 화학제품, 연료 및 에너지, 경공업품, 식품가공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전기, 기계제품의 수입이 많은 것은 서방의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내 외자기업들의 부품, 설비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판매, 유통부문의 민영화 수준은 중동구권 중 선두이다. 90% 이상이 민간 부문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경쟁시장 체제가 정착되었다. 많은 상점은 소유주인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임대, 리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시장경기를 무시하고 고율의 임대료를 책정하기도 하여 민간 소매업자의 경영기반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6) 신용장 거래 많지 않다

신용거래 체제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자본형성이 미미한 영세상이 다수이며 소량 다 품종 주문이 일반적이다. 결제방식은 신용장 베이스가 아닌 D/A, D/P, COD 거래 등이 대부분이다. 신용장 개설 시 거래은행에서 110%의 현금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는 드물다.

7) 불법적 거래에 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법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수입관세 및 부가세(22%) 포탈을 위해 이면계약이 성행하고 Invoice가격의 10% - 90% Undervalue를 요구하는 바이어가 많다. 한국산의 경우 EU산 보다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바이어의 언더 밸류 요구가 특히 더 많다.

불법 또는 변칙 수입, 즉 완제품의 극히 일부만 분해하여 부품으로 수입하여 관세절감, 접경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한 무관세 수입 등의 회색 마켓(Grey Market)이 성행하고 있다.

8) 서구 선진국의 조립생산기지

서유럽 등 선진국의 조립생산 기지이다. 저임의 고학력에다 완제품 관세율 보다 반제품의 관세율이 낮고 인근 EU 및 러시아시장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9) 한국상품 인지도

폴란드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시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삼성, LG 등 잘 나가는 다국적 기업덕분에 한국산 제품은 최첨단의 기술과 우수한 품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휴대폰, TV 등 전자제품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제품은 특별한 브랜드가 없으므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폴란드인들에게 있어서 아시아 및 아시아 제품은 중국 및 중국의 값이 싸면서 품질도 낮은 제품을 의미한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오프라인을 통해 발굴하는 방법

1) 폴란드 전화번호부(Polish Phone Book)

-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경제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2)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방문

- 가장 큰 전시장은 포즈난 국제전시장(Poznan International Fairs -MTP)이며 홈페이지는 www.mtp.pl 이다.

3) 각종 분야별 상공회의소나 협회 접촉

- 폴란드에는 지역별, 산업별로 수 많은 협회가 존재한다. 아래는 각 분야별 협회 리스트다.

- Polish Association of House Constructors
 - WWW: <http://www.psb.com.pl/>
 - E-mail: psbd@psbd.com.pl
 - Address: ul. Foksal 2; 00-366 Warszawa; Poland
 - Phone: (48 22) 827 77 50
 - Fax: (48 22) 828 30 43
- Association of Polish Architects
 - WWW: <http://www.sarp.org.pl/>
 - E-mail: sarp@sarp.org.pl
 - Address: ul. Foksal 2; 00-336 Warszawa; Poland
 - Phone: (48 22) 827 87 12
 - Fax: (48 22) 827 87 13
- Polish Group of Construction Stores (PSB)
 - WWW: <http://www.psb.com.pl/>
 - E-mail: sekretariat@grupapsb.com.pl
 - Address: Welecz 142; 28-100 Busko Zdroj; Poland
 - Phone: (48 41) 378 52 00
 - Fax: (48 41) 378 52 05
- Polish Chamber of Building Industry and Commerce
 - WWW: no webpage
 - E-mail: piphb@wp.pl
 - Address: ul. Mokotowska 4/6; 00-641 Warszawa; Poland
 - Phone: (48 22) 875 86 63
 - Fax: (48 22) 825 35 47

4) 각 분야별 전문잡지 참조

- 아래는 여러 분야 중 건설분야의 전문잡지를 참고용으로 나열하였다.
- Materialy Budowlane (Construction materials)
 - <http://www.materialybudowlane.info.pl/>
- Autostrady (Highways)
 - <http://www.elamed.com.pl/autostrady/>
- Construction & Property Eurobuild Poland
 - <http://www.eurobuild.pl>
- Murator
 - <http://www.murator.com.pl/>
- Dom i Wnetrze (House and Interior)
 - <http://www.lukon.poznan.pl/>

- Kalejdoskop Budowlany (Construction Kaleidoscope)
- <http://www.kalejbud.pl/>
- Ekspert Budowlany (Construction expert)
- <http://www.medium.media.pl/ekspertbudowlany/>
- Przewodnik Budowlany (Construction Guide)
- <http://www.przewodnik-budowlany.com.pl/>
- Wokół Płytek Ceramicznych (About Ceramic Tiles)
- <http://www.plytkiceramiczne.info.pl/>
- Podłogi i Ściany (Floors and Walls)
- <http://www.podlogi-sciany.pl/>
- Rynek Instalacyjny (Installation Market)
- <http://www.medium.media.pl/rynekinstalacyjny/>
- Polskie Drogi (Polish Roads)
- <http://www.polskiedrogi.com.pl/>
- Ekopartner
- <http://www.ekopartner.com.pl/>
- Forum Budowlane (Construction Forum)
- <http://www.pcbmedia.com.pl/>
- Inżynieria Bezwykopowa (Non-digging Engineering)
- <http://www.i-b.pl/>
- Pośrednik Budowlany (Construction Agent)
- <http://www.posbud.com.pl/>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업체검색 서비스 이용

- Panorama Firm (www.pf.pl)
- Teleadreson (www.teleadreson.pl) - 영문
- Kompas (www.kompass.pl)
- Hoppenstadt Bonnier Poland (www.hbi.pl) - 영문
- Anonser (www.anonser.pl) - 영문
- Polskie Firmy (www.makromedia.pl)
- InfoHouse (www.infoadresy.pl) - 영문

- Yellowpages (www.yellowpages.pl) - 영문
- General Polish Economic Informatory (www.bigduo.pl)

나. 각종 포털사이트

- Onet (www.onet.pl)
- WP (www.wp.pl)
- Gazeta (www.gazeta.pl)
- Interia (www.interia.pl)
- Hoga (www.hoga.pl)
- Google (www.google.pl)

다. 분야별 디렉토리 (아래는 건설분야 사이트의 예임)

- <http://www.portalbudowlany.pl/>
- <http://www.monter.pl/>
- <http://www.internetowydom.pl/>
- <http://www.cnb.pl/>
- <http://www.budujdobrze.pl/>
- <http://www.firmybudowlane.pl/>
- <http://www.budownictwo.info.pl/>
- <http://www.grupapbsb.com.pl/>
- <http://www.budmedia.pl/>
- <http://www.pcbmedia.com.pl/>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담요령

폴란드 바이어들은 무역업체보다는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를 선호하므로 상담 시 가급적 제조업체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제조업체가 아니라면 제조업체와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저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음을 설득하여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제품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바이어의 규모 및 수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폴란드는 인근 EU국가들과의 국경무역이 활발한데 이러한 EU국가들과의 무역에 있어서 장점은 운송기간 단축, 운송비용 절감, 그리고 재고부담이 없는 점이다.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장점이 없어지고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폴란드 바이어들은 소규모 주문을 자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한번에 큰 규모의 거래를 요구하면 거래 성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제품에 대한 지식과 사전 준비가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 시 바이어들은 구체적인 기술사양에 대하여 질문하는데 원론적인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 업체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폴란드 바이어들과 구체적인 상담에 앞서 먼저 지불조건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폴란드 바이어 대부분은 10-30%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액은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는 COD 조건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L/C 개설만 고집하면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는 동구시장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높은 은행금리와 L/C 개설 시 은행이 110%의 현금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등 제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 딜리버리의 경우 50% 선금, 50% 선적 직전 지불 정도의 조건을 수락하면 된다.

27. 통관절차

가. 개황

상품의 수출입은 무기류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자유롭다. 그러나 Homologation이 필요한 자동차 등의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의 기술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 등도 마찬가지로 보건관청의 검사가 필요하다.

통관 시 수입물량과 금액이 적혀 있는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 등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상품의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해당 세관은 수입상품의 통관 후,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3년까지 수입 통관절차를 재검증할 수 있으며 만약 의심이 있을 경우 관련 세관 주도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재 폴란드 세관이 수입 통관 시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은 물량 또는 금액의 언더밸류 여부이다.

폴란드의 EU 가입(2004년 5월)과 전산화 진전에 힘입어 세관 행정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폴란드의 통관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 법규에 의하면, 기업들은 EU 역내에서 제품을 통관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관상의 문제 때문에 다수 외국기업들이 통관지를 여타 회원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폴란드 업체들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에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세관 관계자들은 물품 이동의 원활화보다는 불법적인 행위 적발과 검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이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나. 통관조사

수입상의 이의 신청과 세관의 조사는 Customs Code, Tax Law, Criminal-Taxation Law에 근거한다. 수입 통관의 조사 요구는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세관의 자체 판단 하에 시작할 수도 있다.

세관의 수입통관 검증에는 합법적인 수단이 모두 동원될 수 있는데, 그 예로 통관서류, 관련자 진술, 세금서류, 전문가 의견 등이다.

조사결과는 세관의 공식적인 확인으로 끝나며 조사중간에 범법 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만약 세관의 자체 판단으로 수입상의 범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관될 수도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 범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관세, 벌금 등을 내야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

세관의 조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세관은 수입상의 이의신청에 따라 결정 사항의 시행을 유보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지만, 수입상은 세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의 예치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수입상은 세관의 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폴란드 중앙 세관장을 수신처로 하되 관련 세관장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에서 수입상의 요구가 옳다고 판단할 경우 기결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관련 세관에서 수입상의 이의 신청 내용이 옳지 않고 세관의 기 결정내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세관장은 수입상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세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중앙세관장에게 이관한다.

중앙세관장은 해당 세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서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개월 동안 중앙세관장은 관련 세관에 추가적인 조사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중앙 세관은, 관련 세관 결정의 재확인, 관련 세관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지시, 수입상의 이의신청 거부 등 3가지 형태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중앙세관의 결정이 확정되면 수입상은 중앙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대신 중앙세관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에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 후부터 수입상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28. 운송

가. 무역항

폴란드의 주요 무역항으로는 GDANSK, GDYNIA, SZCZECIN 이 있다.

1) GDANSK

- 주소 : ul. Zamknieta 18, 80-955 Gdansk, Poland
- 전화 : (48-58)343-9300
- 팩스 : (48-58)343-9485
- 이메일 : info@portgdansk.pl
- 홈페이지 : www.portgdansk.pl

2) GDYNIA

- 주소 : ul. Rotterdamska 9, 81-337 Gdynia, Poland
- 전화 : (48-58)627-4036
- 팩스 : (48-58)627-4285
- 이메일 : marketing@port.gdynia.pl
- 홈페이지 : www.port.gdynia.pl

3) SZCZECIN

- 주소 : ul. Bytomska 7, 70-603 Szczecin, Poland
- 전화 : (48-91)430-8470
- 팩스 : (48-91)462-4507
- 이메일 : info@port.szczecin.pl
- 홈페이지 : www.port.szczecin.pl

나. 공항

폴란드 내 공항은 Bydgoszcz, Gdansk, Katowice, Krakow, Lodz, Poznan, Rzeszow, Szczecin, Szczytno, Warszawa, Wroclaw, Zielona Gora 등 12개가 있다.

바르샤바에 있는 공항은 Warsaw Frederic Chopin Airport 이며 홈페이지는 www.lotnisko-chopina.pl 이다.

다. 운송 비용

1) 인천 - 바르샤바 항공운송료

- 1-100 kg - 5.10 \$/1kg
- 101-300 kg - 4.80 \$/1kg
- 301-500 kg - 4.70 \$/1kg
- 501-1,000 kg 이상 - 4.60 \$/1kg

2) 부산 - 그디니아 해상운송료

- 20" 컨테이너 - \$2,155
- 40" 컨테이너 - \$3,785
- 40HG 컨테이너 - \$3,970
- 그디니아 항구비용 \$290 / 컨테이너
- 그디니아 - 바르샤바간 컨테이너 운송비 : 2,530 pln / 컨테이너

라.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

1) 운송회사

- **LINK sp. z o.o.**
 - Address: Nadrzeczna 17 05-462 Wiazowna
 - Phone: (+48 22) 769 69 00
 - Fax : (+48 22) 769 69 69
 - E-mail: ryszard.ellert@link.waw.pl
 - WWW: www.link.waw.pl
 - Contact person: Mr. Ryszard Ellert
- **PEKAES MULTISPEDYTOR**
 - Address: Spedycyjna 1 05-870 Blonie
 - Phone: (+48 22) 725 34 58
 - fax(+48 22) 731 81 59
 - E-mail: marketing@multispedytor.com.pl
 - WWW: www.multispedytor.com.pl
- **A.T. Makro Service**
 - Address: Sekundowa 1 02-178 Warszawa
 - Phone: (+48 22) 868 55 75
 - Fax (+48 22) 868 55 63
 - E-mail: info@makro-service.com.pl
 - WWW: www.makro-service.com.pl
 - Contact person: Mr. Mariusz Kos
- **PSM C.Hartwig Warszawa S.A.**
 - Address: Ul. J.Wiśniewskiego 27, 81-156 Gdynia
 - Phone: (+48 58) 621 30 35
 - Fax: (+48 58) 621 30 45
 - E-mail: s.bardowska@c.hartwing.pl
 - WWW: www.hartwig.pl
 - Contact person: Ms.Sylwia Bardowska
- **Universal Express**
 - Address: ul. Szyszkowa 35/37, 02-285 Warszawa
 - Phone: (+48 22) 878 35 69
 - Fax: (+48 22) 878 35 75
 - E-mail: jaroslawm@uex.com.pl
 - WWW: www.uexgroup.com
 - Contact person: Mr. Jaroslaw Mendziej
- **Promexim- Peko**
 - Address: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 Phone: (+48 58) 323 88 88
 - Fax: (+48 58) 323 88 11
 - E-mail: info@peko.pl

- WWW: www.peko.pl
- Contact person: Mr. Marek Fiszer
- **Hanjin Shipping Poland Spolka z o.o.**
 - Address: ul. Rzymowskiego 30, 02-697 Warszawa
 - Phone: (+48 22) 647 06 77, 647 07 32
 - Fax: (+48 22) 647 06 77
 - E-mail: alina.mach@pl.hanjin.com
 - WWW: www.hanjin.com
 - Contact person: Ms. Alina Mach or Mr. In-Do Baik
- **Frans Maas**
 - Address: ul. Minska 63 , 03-808 Warszawa
 - Phone: (+48 22) 670 67 48
 - Fax: (+48 22) 670 68 53
 - E-mail: olga.aniszczyk@fransmaas.com.pl
 - WWW: www.fransmaas.pl
 - Contact person: Ms. Olga Aniszczyk

2) 통관서비스 회사

- **Promexim- Peko**
 - Address: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 Phone: (+48 58) 323 88 88
 - Fax: (+48 58) 323 88 11
 - E-mail: m.fiszer@premexpeko.pl
 - WWW: www.peko.pl
 - Contact person: Mr. Marek Fiszer
- **Complex SAD**
 - Address: ul. Kwiatkowskiego 60, 81-127 Gdynia
 - Phone: (+48 58) 621 34 48
 - Fax: (+48 58) 621 34 29
 - E-mail: biuro@complexsad.koti.pl
 - Contact person: Ms. Malgorzata Sochaj
- **A.T. Makro Service**
 - Address: Sekundowa 1 02-178 Warszawa
 - Phone: (+48 22) 868 55 75
 - Fax: (+48 22) 868 55 63
 - E-mail: info@makro-service.com.pl
 - WWW: www.makro-service.com.pl
 - Contact person: Mr. Mariusz Kos
- **PSM C.Hartwig Warszawa S.A.**
 - Address: Ul. J.Wiśniowskiego 27, 81-156 Gdynia

- Phone: (+48 58) 621 30 35
- Fax: (+48 58) 621 30 45
- E-mail: s.bardowska@c.hartwing.pl
- WWW: www.hartwig.pl
- Contact person: Ms. Sylwia Bardowska

○ **Frans Maas**

- Address: ul. Minska 63 , 03-808 Warszawa
- Phone: (+48 22) 670 67 48
- Fax: (+48 22) 670 68 53
- E-mail: olga.aniszczyk@fransmaas.com.pl
- WWW: www.fransmaas.pl
- Contact person: Ms. Olga Aniszczyk

○ **Universal Express**

- Address: ul. Szyszkowa 35/37, 02-285 Warszawa
- Phone: (+48 22) 878 35 07
- Fax: (+48 22) 878 35 75
- E-mail: marekg@uex.com.pl
- WWW: www.uexgroup.com
- Contact person: Mr. Marek Grzegorzewski

29. 분쟁해결 절차

분쟁해결의 방법에는 법정소송과 중재(Arbitrage)가 있는데 폴란드의 중재원으로는 KIG (www.sakig.pl)과 Arbitrage Court for Marine Cases(www.kigm.pl/sa)가 있으며 중재절차는 아래와 같다.

- 양 당사자가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의함
- 양 당사자가 중재원을 선정
- 양 당사자가 중재자를 선정
 - 두 명의 중재자는 양 당사자가 선정하며 한 명은 중재원에서 지정
- 양 당사자는 중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
- 중재는 비밀주의임
- 전체 소요기간은 6-9개월 걸림
- 중재가 종료된 한달 후 중재자는 판결을 함.

* 중재는 일반법정 재판과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융통성 있는 절차
- 중재 장소 및 중재자를 당사자가 선정
- 빠르고 간편한 절차
- 저렴한 비용
- 비밀주의

30. 유형별 분쟁사례

폴란드의 중재원은 주로 국내 사건을 취급하므로 국제적인 사례는 흔치 않다. 유럽 기업에 있어서 중재의 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파리나 런던이다.

포르투갈 기업 EUREKO의 경우 폴란드 자동차보험회사의 주식과 관련,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런던이며 의약품 회사가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파리이다.

일반적으로 폴란드 업체들은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므로 중재절차를 잘 이용하지 않으며 직접 문제의 상대방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기업의 저비용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다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에 힘입어 최근 외국 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2004년 폴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78억 5,770만 달러에 달해 2000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2005년 FDI 유치액은 77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폴란드는 헝가리, 체코 등 중동부 유럽 주요국 중에서 FDI를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이다.

최근 FDI 유입이 늘어나는 주된 요인은 EU 가입 후 외국 투자자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106억 달러로 피크에 달한 후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폴란드의 투자 유치가 EU 진입이란 호기를 맞아 상승국면을 맞고 있다.

1) 국가별 투자동향

FDI 통계가 나라별, 업종별로 세부내용까지 발표되어 있는 2004년까지 나라별 투자동향을 보면, 역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의 진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미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독일이 상위 4위까지 차지하고 있고, 투자 누계액도 이 4개국만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투자액(누계)은 11억 6,790만 달러로 13위에 올라 있다.

국별 주요 투자분야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통신 및 유통업 (France Telecom, Vivendi Universal; Carrefour, Geant, Auchan 등)으로 진출을 선호하고 있고, 독일은 은행업(HVB, 코메르츠은행 등), 네덜란드는 보험업(ING Group, Eureko)을 선호하는데 비해 미국은 다양한 분야(Citigroup, Apollo-Rida, GM)로 들어오고 있다.

나라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US\$ 백만, %)

국명	2002 년	2003 년		2004 년		누 계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6,064	6,420	100	7,857	100	80,649	100
프랑스	742	617	9.6	1,575	20.0	16,026	19.9
네델란드	1,072	2,064	32.1	981	12.5	11,154	13.8
미국	883	535	8.3	1,428	18.2	10,163	12.6
독일	561	806	12.6	1,175	15.0	10,149	12.6
영국	1,365	-48	-	204	2.6	4,337	5.4
이탈리아	187	140	2.2	224	2.9	4,089	5.1
스웨덴	432	288	4.5	437	5.6	3,715	4.6
벨기에	496	487	7.6	413	5.3	2,902	3.6
덴마크	419	206	3.2	33	0.4	2,096	2.6
한국	-97	-508	-	202	2.6	1,167	1.4

자료원 :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IZ)

주 1: 누계는 1989 년 이후 누계치

주 2: 2005 년 나라별 통계 미발표

2) 업종별 투자동향

외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업종은 제조업이다. 2004 년 제조업 부문의 FDI 유입은 32 억 달러로 전체의 41.3%를 기록했으며, 2004 년까지 누계액을 보아도 제조업은 322 억 달러에 달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 최근 투자진출이 활발한 부문으로는 자동차 및 관련부문(부품, 타이어 등), 전기전자,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업종에서 FDI 가 많이 유입되는 부문은 금융중개업, 부동산·기업지원활동(회계 등), 유통·보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 년 기준 FDI 총액에서 주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금융 27%, 부동산·기업지원 11%, 유통·보수 10.8% 등의 순이었다. 2004 년까지 누계로 보면, 역시 금융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23.4%), 유통(11.8%), 수송·통신(9.7%) 등의 순이며, 부동산·기업지원은 3.7%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개발과 기업지원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US\$ 백만, %)

국 명	2002 년	2003 년		2004 년	
	금 액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총 계	6,064	6,420	100	7,857	100
제조업	2,080	2,965	46.3	3,251	41.3
- 식료품	-10	314	4.8	135	1.7
- 수송기계	725	312	4.8	703	8.9
- 기타 비금속	296	533	8.3	304	3.8
- 목재 및 목재제품	48	162	2.5	5	0
- 섬유 직물	9	-58	-0.9	32	0.4
- 인쇄업	148	232	3.6	180	2.2
- 화학	600	570	8.8	485	6.1
- 전기전자	-100	388	6	450	5.7
- 기계 설비	245	166	2.5	217	2.7
- 고무 및 플라스틱	26	288	4.4	165	2.1
- 금속 및 금속제품	100	264	4.1	468	5.9
- 가구 및 소비재	245	-226	-3.5	101	1.2
- 피혁	-1	16	0.2	0	0
1 차 산업	135	10	0.1	16	0.2
서비스업	3,849	3,445	53.6	4,590	58.5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

주: 2005 년 업종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3) 주요 진출기업

최근 현지 언론에 보도된 2005 년 대 폴란드 직접투자 상위 기업은 다음과 같다. 2005 년에는 LG 필립스 LCD, LG 전자 등의 대형 투자프로젝트가 속속 발표됨으로써 한국 기업이 상위권에 많이 올랐다.

2005 년도 對폴란드 직접투자 주요 기업

기업명	국가	투자분야	투자액 (백만 유로)
LG 필립스 LCD	한국	전자	429
LG 필립스 협력업체	한국	전자	292
Michelin	프랑스	타이어	253
Cadbury Schweppes	영국	식품	100
BDN	독일	인쇄(printing)	100
MAN-STAR Trucks	독일	자동차	92.7
LG 전자	한국	전자	90
Pfleiderer Grajewo	독일	목재(wood)	80
Electrolux	스웨덴	가정용 전자	60
Haering	독일	금속	50.8

자료원: 폴란드 일간지 Gazeta Prawna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6. 8))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한국은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폴란드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다. 우리나라 투자통계에 의하면, 2005년 말까지 대 폴란드 투자액은 74건 7억 5,442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폴란드 측 통계로는 2004년까지 한국의 투자액은 11억 6,790만 달러로 되어 있다. 2004년 말 기준 한국의 대 폴란드 투자누계와 관련하여 한국 통계와 폴란드 통계가 4억 달러 정도 차이나는데 이는 투자 집계상의 차이(신고 또는 실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폴란드 투자 추이

(단위: 천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계
투자건수	2	2	3	16	74
투자액	37,824	16,921	36,070	77,326	754,417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투자는 대우자동차의 파산과 철수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04년 이후 LG전자, 대우전자 등 현지 TV 생산법인들이 활발히 추가 투자를 추진하면서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직접투자 진출하여 현재 영업중인 업체로는 LG전자(TV), 대우일렉트로닉스(TV), SK 유로켄(PET 원료), 운화실업(안전벨트), 한국유리(자동차용 유리), 모나미(필기구) 등이 있다.

특히, 2005년 들어서는 LG전자(TV 부문)의 제2공장 설립투자, LG필립스LCD의 초대형 투자, 그리고 LG전자 백색가전부문의 투자 계획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부품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6년 1월 폴란드의 한 일간지(Gazeta Prawna) 보도에 의하면, 2005년도 투자액 기준 상위 10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LG필립스LCD 및 협력업체 6개사, LG전자 등 3건이나 올라와 있어 한국 기업이 폴란드로의 외국인 투자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나 언론에서는 대우자동차 이후 한국 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하고, 한국의 투자가 LCD 패널, 전자 등 고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新기술의 물결’을 이끌고 있다는 찬사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서 투자진출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도 많아서 앞으로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은 질적, 양적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한국 기업의 대 폴란드 주요 투자 프로젝트

기업명	투자 분야	투자액	비 고
LG 전자	디지털 TV 생산 (제2공장 설립)	1억 1천만 달러	2010년까지 투자 예정
LG 필립스 LCD	LCD 모듈 생산	4억 2,900만 유로	2011년까지 투자 예정
LG 전자	백색가전제품 생산	9,600만 유로	
LG 필립스의 협력업체 6개사	부품품 생산 등	2억 9,200만 유로	럭키 SMT, LG 이노텍, LG 화학, 동양전자, 희성전자, 동서 등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정리

한국 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은 거대한 서유럽(EU)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그리고 ‘성장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동 구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 최근 한국 기업의 연이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표로 폴란드에서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한국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단순히 현지의 저임금을 노리는 투자진출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의 진출 증가와 현지 임금 상승 등으로 저임금 메리트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도 ‘값싼 생산’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동 구 진출을 고려할 때는 낮은 생산비용과 함께 시장 측면(진출 국 시장은 물론 서유럽, 아직 EU에 가입치 않은 남유럽, CIS 등으로 시장 확장), 기술인력 활용, 무역장벽 우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6. 8))

33. 투자환경

가. 일반 환경

폴란드는 서유럽과 구소연방(CIS)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고, 노동 비용이 저렴한 데다 지난 2004년 5월 1일 EU에도 가입하여 최근 들어 유럽의 생산 및 아웃소싱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 투자 진출의 이점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 무엇보다 임금을 비롯한 생산비용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폴란드의 평균 임금 수준은 독일에 비해 1/5 정도에 불과하다.
- 둘째, 우수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IMD 비즈니스 스쿨이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숙련 노동력 활용 가능성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의 나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숙련 노동력에 대한 접근도가 높은 투자 기업은 자동화보다 노동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 제조 시 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 신제품을 더 빨리 출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셋째, 폴란드는 서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폴란드가 EU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현지 생산을 통해 EU의 까다로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
- 넷째, 폴란드는 국토 면적, 인구(3,800여 만 명) 및 경제 규모(2005년 GDP 2,992억 달러) 면에서 중동부 유럽 최대의 시장이며, 경제 발전에 따라 향후 내수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중동구 주요국 인구 및 경제 규모 비교 (2005년)

국명	인구(만 명)	GDP(억 달러)
폴란드	3,817	2,992
헝가리	1,009	1,092
체크	1,022	1,224
슬로바키아	538	464

자료원: EUROSTAT

또한 폴란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도 언급할 만 하다. 폴란드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데

구체적으로는 법제도 정비,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별구역 및 산업 단지 설치, 지방세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의 투자 환경과 관련하여 미국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BCG는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와 관계되는 노동(비용) - 물류(비용) 사이의 상쇄 효과(trade-offs)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유럽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에게 중동부 유럽(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여러 산업에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보다 더 유리한 제조업 기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용’이란 시각에서 보면, 노동 비용의 내용(labor cost content)과 제품의 積荷價(cargo value of a product)가 입지 선정을 위한 결정적 기준이 된다. BCG는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할 경우, 낮은 적하가의 제품, 그리고 비숙련노동 비중이 비교적 낮은 제품은 중국보다 중동구에서 제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적하가가 낮은 제품이란 부피는 크나, 단위당 적하가가 낮은 제품을 말하며, 비숙련노동 비중이 낮은 제품은 숙련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의미한다. BCG는 중국보다 중동구에서의 제조가 유리한 제품(산업)의 예로 자동차, 백색가전, 철강, 가구 등을 들었다. 반면, 전자 제품, 컴퓨터, TV 세트, 고급 의류 제품 및 스포츠 장비 등은 중후(重厚)한 제품이 아니고 운송 비용도 크게 높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산업의 제조 활동에서는 중동구 국가가 중국을 앞서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국제 경영 컨설팅사인 A.T Kearney는 노동력 수준, 교육 및 언어 구사, 영업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해외 아웃소싱 프로젝트에 적합한 국가를 평가했는데 폴란드는 10위에 랭크 된 바 있다.

○ 해외 아웃소싱 적격 국가 순위 (A.T Kearney 평가)

- 1위: 인도, 2위: 중국, 3위: 말레이시아, 4위: 체코, 5위: 싱가포르, 6위: 필리핀, 7위: 브라질, 8위: 캐나다, 9위: 칠레, 10위: 폴란드, 11위: 헝가리

나. 투자 장려 분야

1천만 유로 이상의 대형 투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투자, 환경 개선 투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 특별 구역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조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폴란드 당국은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을 따로 명시해 두지는 않고 있지만, 자동차, 식품 가공, 물류, 백색가전, 하이테크 등의 부문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제한 분야

폴란드는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민영화 추진과 연계시켜 대부분 자유화하는 한편,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어 외국인 투자상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었다. 특히, 99년 이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코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등 선진국형 개방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투자는 허가 또는 인가 취득 등의 형태로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항공 수송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는 이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통신 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허가나 인가가 요구되는 업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투자 허가” 항목을 참조 바람).

라. 회사 설립 절차

폴란드에서 회사의 형태로 가장 보편적인 유한책임 회사(sp.zo.o.)와 주식회사(S.A.)의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했듯이 유한책임 회사나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면,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 단, 서명할 때에는 폴란드 내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사업 내용, 초기 자본금 액수, 주식의 수량 및 액면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여기에 더해 등록 전 자본금 납부 액, 이사회 및 감사 위원회 구성원의 수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에 서명이 되면,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설립 자본금(5만 PLN 이상)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한책임 회사의 공식 조직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감사 위원회는 자본금 50만 PLN, 주주 수 25명을 넘지 않을 경우 선택 사항이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자본금(50만 PLN 이상)의 최소 25%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회사를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하는 것이다. 즉,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이나 주로 사업이 영위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등기를 하는 것인데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한책임회사

- 신청서(소정 양식)
- 정관, 자본금 납부 내역서(모든 이사회 구성원 작성), 주주 명단, 이사회 구성원 내역(이름, 주소, 무 범죄 증명서 등),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견본(공증된 것) 등

2) 주식회사

- 신청서(소정 양식)
- 정관, 회사 설립 및 주식 인수 관련 공증된 결의서, 자본금 납부 내역서, 회사 경영진 명단 및 인적 사항,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견본(공증된 것) 등

등록 신청 후 중앙 통계국(GUS)에 REGON 번호(statistic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사업자 등록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에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납세자 번호(NIP;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REGON과 NIP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후 보완하면 된다.

폴란드 법에 의하면, 모든 기업은 폴란드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로는 회사 정관, 서명 견본, 등기 관련 서류, REGON 번호를 부여하는 GUS의 서신, NIP 등이다.

법원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자본금이 납부되어야 하므로 (유한책임 회사 전액, 주식회사 25% 이상) 은행은 설립 과정에 있는 회사에 이러한 결제 목적으로 예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는 회사의 정식 등록과 함께 일반 계좌로 바꿀 수 있다.

국가 법원 등기부에 등록이 되면, 회사는 등록 번호를 받고 정식 법인이 된다. 한편,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송금 업체(VAT remit-

ter)로 등록되어야 한다.

마. 허가나 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폴란드 법규에 따라 특정한 업종이나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서로부터 따로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사업 활동

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이권 (concession)	- 광물 탐사 및 채굴 -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 연료 및 에너지의 제조, 가공, 유통, 거래 - 사람과 재산의 보호 - 항공 수송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등록(register)	-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 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의 경우 등록을 해야 함
허가 (permit)	- 주류 도매 - 주류 및 담배 제조 - 유독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 공항 관리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 카지노의 운영 - 은행 운영 - 보험회사 또는 중개 회사의 운영 - 통신 서비스 - 도로 수송 -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 폐기물 처리 - 투자 펀드 또는 연금 펀드 설립 - 비료 및 살충제 거래 - 부동산 중개 서비스 - 원양 어업 - 경제 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선스 (license)	- 특정 물품의 수입 및 판매에는 라이선스, 증명서 등 필요 · 화장품, 일부 아동 용품(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동물, 육류, 작물 등 - 공공 전화 네트워크 이용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의 이용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Z)

(자료원: 투자유치청(PAIIZ), “Poland How to do business” 및 기타자료 종합(2006.8))

34. 투자인센티브

2004년 5월 1일 EU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의 현행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은 EU의 요건에 맞추어져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보조금(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조세 감면 (경제 특별 구역 내), 그리고 지방세 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s)

외국인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SOPIEC(Sectoral Operational Programme Increase of Enterprises' Competitiveness, 기업경쟁력제고 부문별운영 프로그램)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SOPIEC는 유럽지역개발기금과 폴란드 국가기금에서 충당된다. SOPIEC의 지원 내용은 폴란드의 “투자 금융지원법” (Act on the Financial Support of Investments, 2002. 3.20) 상의 지원조치와 일치한다.

금융지원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 최소 1,000만 유로의 투자
- 투자가 기업 발전이나 현대화와 관계되고 5년간 최소 1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최소 50만 유로의 투자
- 최소 5년간 적어도 2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 기술적인 혁신을 도입하는 투자
- 자연 환경을 개선하는 투자
- 산업단지 또는 기술단지(industrial or technology park) 내의 투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투자보조금(investment grants) 또는 고용보조금 (employment grants)을 받을 수 있다.

▶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은 적격 투자비용(아래 설명 참조)의 25%까지 지원되나, 단,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그단스크, 그디니아 및 소포트 지역에서는 지원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고, 바르샤바, 포즈난에서는 15%가 상한선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 지원이 늘어나는데 각 지역별 지원율에 7.5% 포인트를 더하면 된다.

▶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은 신규 일자리 하나당 4천 유로까지 지원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적격 투자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된다.

- 토지 구입 비용(총 적격비용의 10%까지 인정)
- 고정자산 구입비용 또는 제조회금 (건물, 기계 및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 중고 고정자산 구입비용
- 무형자산 구입비용 (적격비용의 25%까지 인정)
- 고정자산 설치비용
- 원료 구입 및 건설작업 비용

보조금 지원 시 투자자의 영업 활동은 투자 프로젝트 완료일로부터 5년간은 지속되어야

한다. 신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영업 활동은 프로젝트 완료일부터 최소 5년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보조금에 대한 신청은 매년 1월 및 6월에 폴란드 경제부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부는 관련 위원회(Committee for Financial Support to Entrepreneurs)와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 결정시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경제특별구역에서의 조세 감면, 지방세 면제 등과 같은 여타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나, 보조금과 여타 형태 공적 지원의 총액은 앞서 설명한 지역별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나. 경제특별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경제특별구역(SEZ)은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의 행정구역이다. SEZ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활용코자 하는 기업은 먼저 SEZ에 입주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SEZ 관리당국(management board)은 입찰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SEZ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최소 10만 유로가 되어야 하고 적어도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폴란드에는 14개의 SEZ(기술단지 1개 포함)가 설립되어 있다. (* SEZ 현황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항목을 참조바람)

SEZ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데 EU의 지역정책 및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되어 지난 2001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 대기업은 투자가액의 50%까지 보조금(regional aid)을 받을 수 있음 (단, 크라코프에 있는 기술단지[Technology Park]는 예외로 40%로 되어 있음). 보조금은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면제의 형태로 지원됨
- 중소기업은 투자가액의 65%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역시 크라코프의 기술단지는 예외로 상한선이 55% 임). 보조금은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면제의 형태로 실행됨
- 투자기업은 2년에 걸쳐 신규 고용 인력의 노동비용의 50%까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은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면제 형태로 실행되며, 새 일자리는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함

투자기업은 위에서 설명한 국가 보조금의 어떠한 형태라도 이용할 수 있으나, 보조금 총액은 투자금액 또는 2년간의 노동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의 경우 65%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신청은 SEZ 관리당국에 하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은 혜택 외에도 SEZ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정부로부터 부동산세를 면제받거나, 직업훈련에 관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말까지 폴란드는 SEZ 진출기업에 대해 최초 투자 이후 10년간 법인세 100% 면제, 그 후 영업 년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으나, 이러한 인센티브가 EU 규정과 맞지 않아 EU 가입 교섭과정을 통해 인센티브 내용을 위와 같이 개정한 바 있다. 단,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2000년 말까지 SEZ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EU 가입 후에도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를 주고 있다.

- 중소기업: 소기업은 2011년 말, 중견기업은 2010년 말까지 기존(개정 전)의 우대조치 적용
- 대기업: 2000년 1월1일 이전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은 투자비용의 75%, 2000년에 허가를 받은 기업은 투자비용의 50%까지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투자비용의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단, 투자비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함

다. 지방세 면제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해당 지방자치체 의회의 결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결의는 국가보조금 관련규정에 명시된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과 합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차량세는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며,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 유치청(PAIIIZ) "Poland How to do business" (2006.8) 등)

35. 타당성조사

해외 투자진출에서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가정하여 설명기로 한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초적인 시장상황조사와 함께 투자진출을 가정하고 입지부터 인력고용, 그리고 투자 후 영업 활동, 즉, 구매 > 생산 >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 타당성 검토 시 유의사항

1) 철저한 사전조사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철수기업의 경우, 불충분한 사전조사가 공통적인 실패요인으로 지적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 관련 조사와 재산성 조사가 중요하다.

2) 정보의 이중 Check 실사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또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정보처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현지 국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고려

4) 투자대상국의 로컬기업으로부터 정보 수집

일반 투자환경 조사보고서에서 얻을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복수의 기업을 방문하여 현지 영업 경험담 및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

5) 신중한 예측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래 예측을 하지만 희망적 관측이 아닌 현실적이고도 조심스런 예측을 해야 한다. 특히 현지 정부는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낙관적인 예측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

1) 생산 및 영업계획의 수립 및 예측

일반 투자환경 정보와 업종별/품목별 시장환경 정보를 입수하여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는 구체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영업계획을 수립 및 예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사업성 검토의 핵심 단계가 된다.

구 분	체 크 리 슷
판매계획	초년도 판매 및 향후 수년간의 판매고 및 가격추이 예측 판매촉진 활동 수행 계획
생산계획	적정한 제품 재고 수준 초년도의 월차 생산량 및 향후 수년간 생산 계획 기술지원 관련사항: 기술지원 내용 및 계약기간 등 기술자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원자재 조달 계획	현지조달 가능 원자재 및 공급원, 품질과 납기, 수송기간 현지조달 시 지불조건 등
수입원자재	수입해야만 하는 원자재 파악 직접 수입 또는 현지 수입업체를 통한 구매의 장단점 비교 검토 품질 및 수입가격(보험료, 관세 등 포함) 납기 및 지불조건 등
설비조달계획	기계설비 및 부분품의 현지 조달 가능성 검토 주요 공급처, 가격 및 지불조건, 리스 가능성 여부 수입해야 할 설비, 수입제한 여부, 수입 비용 등 기계설비의 현지 수리 가능여부 등

공장 입지 조건 및 인프라 현황

구 분	체 크 리 슷
토지	토지 및 기후 상황, 지형 및 지질의 공장용지로 적합성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 여부 토지가격 및 관련 세금 등
전기	전기의 안정공급 가능성 및 자가발전 필요 여부 전력 요금체계 및 세금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용수	용수의 안정공급 가능성 및 저수시설 필요 여부 공사비에 수반되는 부담금 및 공사기금 상수도 요금 체계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운수	원자재 조달용 수송수단 및 수송 소요시간 제품수송용 국내 교통수단과 소요시간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자 확보 가능성 항만, 공항 적하장 등의 취급상황 해상, 항공 및 육상 수송의 소요일수 및 요금체계 통관상의 애로 및 대책
통신	통신사정 및 요금체계 등
노동력 확보	투자지역의 통근권내 노동인구, 실업률, 연령분포 인근 공장의 노동력 확보 상황 인근 공장의 작업내용 및 임금수준
건물 물색	기초 공사비용 및 기간 건축관련 법규, 관할관청의 인.허가 사항 및 절차, 소요기간 설계상 유의점(기후상, 법규상 등) 건축비용 및 건축공사기간 등
설비조달계획	기계설비 및 부품품의 현지 조달 가능성 검토 주요 공급처, 가격 및 지불조건, 리스 가능성 여부 수입해야 할 설비, 수입제한 여부, 수입 비용 등 기계설비의 현지 수리 가능여부 등

조직 구성과 인력계획 수립 및 예측

구 분	체크 리스트	
관리 및 영업조직	조직의 구성 파견사원의 역할과 지위	
공장조직	조직 구성 본사 파견자의 역할 및 지위 현지 공장관리자 및 기술자의 구인방법은?	
인력고용	노동력 확보	노동력의 이직 실태와 관습 노동자의 기질, 기능 수준 일반적인 구인방법
	노동 계약	노동계약의 일반적인 내용 해고의 용이성 및 절차 일반적인 퇴직제도
	임금	직종별, 성별 임금수준 최근 수년간 임금상승률 일반적인 임금체계, 최저 임금 등
	복리후생	사회보장제(또는 의무보험제도) 관련사항 기업 부담분 일반적인 복리후생제도의 내용
	취업규정	휴가 관련사항 취업관련 법적 규제
	노동조합	노조활동의 특성 및 활발성 여부 노동쟁위 행위 관련사항
	교육훈련	필요한 교육 관련사항
	급여 체계	관리 및 판매조직의 급여 체계 공장조직의 급여 체계

2) 자본금 및 차입금 조달 계획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현지에서 차입이 가능한지 등도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구 분	체크 리스트
설비자금의 차입조달 가능성	제도금융의 이용 가능 여부 사채 등의 조달 가능 여부 현지 금융기관에서의 장기조달 가능성
현지에서 운전자금 조달 가능성	금리, 차입기간, 자금사용처, 대출액 제한 등 담보물건의 범위, 본사 보증 필요 여부 등
외국에서 운전자금 조달 가능성	외화차입 가능 여부 본사로부터의 차입 가능 여부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6.8)

36.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회사의 형태

폴란드 내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법령은 경제활동 자유법(Economic Freedom Act, 2004. 7. 2) 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이다. 그러나, EU나 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EU나 EFTA 지역 에서 온 외국인 투자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과 같이 EU, 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 (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 (limited partnership), 유한 주식 합작 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지사(branch office) 형태로 영업 활동을 하거나 대표 사무소 또는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회사가 있지만, 보편성이 있고 법인 성격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 회사와 주식회사를 꼽을 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대형 업체(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제외하면, 유한책임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기업 형태이다.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되어 있다.

나. 유한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폴란드 약어 sp.zo.o.)

유한책임 회사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주주 1인에 의해서도 설립 가능하나, 다른 1인 주주 유한책임 회사 만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가지며, 이사회에 의해 대표된다. 최소 설립 자본금은 50,000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으로 되어 있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다. 유한책임 회사는 국가 법원 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폴란드 약어 S.A.)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50만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 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1인주주의 유한책임 회사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국가 법원 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 회사와 다르다. 바르샤바 주식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나, 현물 출자 시 감사 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라. 유한 합작 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최소 1명의 파트너가 무한 책임을 지고, 다른 파트너(들)는 협약에 명시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는 형태로 법인성은 없으나,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 유한 주식 합작 회사 (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는 최소 1명의 파트너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다른 최소 1명의 파트너는 주주인 사업 형태이다.

마.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법인성을 갖지 못하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는 본사의 영업 범위 내에서의 상거래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국가 법원 등기부의 한 부분인 기업가 등기부(Register of Entrepreneurs)에 등록되어야 한다. 지사는 본사의 이름에 “branch in Poland” 를 추가하여 등록된다.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정관, 폴란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사무소가 폴란드 법을 따를 것이라고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이다. 한국에서 준비된 위 서류들은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인 번역사에 의해 폴란드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바로 폴란드어로 번역할 공인번역사가 없으므로 먼저 영어로 번역한 후 이를 다시 폴란드에서 공인번역사에 의해 폴란드로 번역해야 한다.

지사를 설립하는 데는 행정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외국 기업가는 폴란드 내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자료 작성을 폴란드어로 해야 하므로 현지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지사에서 외국 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폴란드 내 이름 및 주소 공개
- 외국 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공증된 서명 첨부
- 정관 사본과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첨부 등

지사는 폴란드 회계법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폴란드어로 별도의 장부를 유지해야 하고, 사실

적인 또는 법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경제부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

지사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을 한 후, 중앙 통계국에 REGON 번호 (statistical identification number, 일종의 사업자 등록증),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 번호(NIP;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야 한다.

지사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의 의무는 없으나, 장부 기록은 잘 유지해 두어야 한다.

바. 대표 사무소 또는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 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 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 사무소의 성격상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

대표 사무소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폴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하 모기업)의 명칭, 등록 사무소 및 법적 지위
- 모기업의 자본금
- 모기업의 사업 목적
- 대표 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폴란드 내 주소
- 대표 사무소의 폴란드 내 주소

또한, 신청서와 함께 모기업의 정관 사본 및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폴란드 내 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관련한 모기업의 결의서(statement) 등을 첨부해야 한다.

※ 가장 보편적이며 법인성이 있는 회사 형태인 유한책임 회사와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투자 허가” 항목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사. 투자 방식

해외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100% 단독으로 할 것인지 혹은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투자할 것인지 일 것이다. 해외 투자 진출 경험이 있고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유능한 현지인을 앞세워 투자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해외 투자 진출 경험이 별로 없고, 위험 부담을 낮추기를 원한다면,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기존 현지 업체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합작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현지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과 경험이 쌓이면,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합작 지분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100% 인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합작 투자를 할 경우에는 현지 파트너 발굴과 선정이 중요하다. 믿을 만한 파트너의 결정을 위한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현지 파트너 기업의 분석과 평가

구 분	체크 포인트
파트너 기업의 경영 방식, 능력 및 평판	- 경영 실적 및 경영 수완 -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 및 경영 마인드: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지, 박리다매하지 않고 마진을 중시하는지, 품질과 기술을 중시하는지 등 평가 - 공장 관리에 대한 경험 - 신뢰성 및 사회적 평판 등
파트너 기업의 연혁	- 설립 시기, 설립 배경, 설립자 - 주주 구성
재무 상황	- 재무 구조의 건전성 - 자금 조달력 등
영업 상황	- 시장 점유율 및 그 像/span> - 영업 및 마케팅 능력
노무관리 상황	- 타사와 비교한 근로자의 성향 - 노동조건 및 노무관리 상황 - 이직률(정착율) 수준 등

합작 또는 단독 투자에 대한 결정은 각 기업이 처한 여건과 위험에 대한 태도, 당해 업종의 현지상황 등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현재 폴란드에 투자 진출한 제조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은 합작과 단독 투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단독 투자를 많이 하고, 중견 기업은 합작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IZ), 웹사이트, “How to do business: Poland” 등 각종 자료 종합 (2006.8))

37. 입지선정

가. 입지선정 시 체크 포인트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즉 입지의 선정은 투자할 업종과 함께 교통물류를 비롯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상황,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구 분	체크 리스트
토지	토지 및 기후 상황, 지형 및 지질의 공장용지로 적합성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 여부 토지가격 및 관련 세금 등
전기	전기의 안정공급 가능성 및 자가발전 필요 여부 전력 요금체계 및 세금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용수	용수의 안정공급 가능성 및 저수시설 필요 여부 공사비에 수반되는 부담금 및 공사기금 상수도 요금 체계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운수	원자재 조달용 수송수단 및 수송 소요시간 제품수송용 국내 교통수단과 소요시간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자 확보 가능성 항만, 공항 적하장 등의 취급상황 해상, 항공 및 육상 수송의 소요일수 및 요금체계 통관상의 애로 및 대책
통신	통신사정 및 요금체계 등
노동력 확보	투자지역의 통근권내 노동인구, 실업률, 연령분포 인근 공장의 노동력 확보 상황 인근 공장의 작업내용 및 임금수준

특히,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수송을 위한 교통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주요한 고려요소이다. 폴란드의 도로망이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재 폴란드에서 도로는 화물 수송의 주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중량기준 총 화물수송의 76.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각 고속도로 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기업으로서는 이미 개통되었거나, 조만간 개통될 고속도로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부자재 운송이나 생산제품을 서유럽 등지로 수출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일부 구간 개통)인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A1 남북노선
 - 북쪽 발트해 연안 그단스크와 남쪽 체크 점경도시 연결, 총 길이 564km
- A2 동서노선
 - 독일 국경에서 중부의 포즈난과 바르샤바를 통과, 벨로루시 국경까지 연결, 총 길이 651km (일부 구간 개통 운영 중)
- A4 서-남동노선
 - 독일 국경에서 남부의 카토비체와 크라코프를 통과,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연결, 총 길이 779km (일부 구간 개통 운영 중)

나. 산업공단

우선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한 지역으로는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Park)를 들 수 있다.

1) 경제특별구역

경제특별구역(SEZ)은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폴란드 전역에 걸쳐 14개 SEZ(기술단지 1개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가는 투자액의 25%(일부 지역은 20%, 15%)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SEZ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 면제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최고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정부로부터 부동산세 면제, 직업훈련 보조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폴란드의 경제특별구역 현황

특구명	유효기한	투자액 대비 최대 조세감면율(%)	총면적 (ha)
SEZ "Euro-Park" Mielec	2015	50 (65)	739.23
Katowicka SEZ	2016	50 (65)	1077.24
Suwalka SEZ	2016	50 (65)	331.00
Legnicka SEZ	2017	50 (65)	441.93
Walbrzyska SEZ	2017	50 (65)	492.61
Lodzka SEZ	2017	50 (65)	337.60
Kamiennogorska SEZ	2017	50 (65)	250.89
Kostrzynsko-Slubicka SEZ	2017	50 (65)	462.56
Slupska SEZ	2017	50 (65)	167.89
SEZ "Starachowice"	2017	50 (65)	351.48
Tarnobrzaska SEZ	2017	50 (65)	828.80
Warminsko-Mazurska SEZ	2017	50 (65)	372.10
Pomorska SEZ	2017	50 (65)	348.37
Krakowski Park Technologiczny (Cracow Technology Park)	2017	40 (55)	122.35

자료원: 폴란드 투자 유치청

주 1. 조세 감면율에서 () 안 수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임,

주 2. 각 특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폴란드 투자청 홈페이지(www.paiz.gov.pl)를 참조바람.

(메뉴 중 Regions > Special Economic Zones > 개별 특구로 검색)

투자기업이 SEZ 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SEZ 관리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국은 입찰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 입주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약 3 개월이 소요)

- SEZ 당국과 접촉 및 입주 신청
- 신청에 대한 심사
- 추가 서류 준비
- 투자가 수용에 대한 최종 결정(입찰)
- SEZ 내 사업활동 허가서 발급

2)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폴란드 전역에 30 개 정도가 있다. 산업단지 중 일부는 SEZ 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크라코프 기술단지(Cracow Technology Park)가 대표적이다.

산업단지 입주 시 이점으로는 일반적인 투자보조금 혜택과 함께 부동산세 감면, 에너지, 난방, 용수 등 유틸리티의 저렴한 공급 등을 들 수 있다. 단지 운영당국이 단지 내의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및 개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 된다.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폴란드 투자 유치청 홈페이지(www.paiz.gov.pl)에서 메뉴 중 Regions > Industry and Technology Parks > 개별 단지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다. 기 진출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지역

현재 외국 기업의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바르샤바 시에서 1~2 시간 거리의 주변도시, 독일 및 체코 국경과 인접한 남서부의 브로츠와프 시(Wrocław) 근방, 체코,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카토비체 시(Katowice) 근방, 그리고 중부의 우지 시(Lodz) 등이다.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는 그 동안 수도인 바르샤바 근교(대우자동차, 대우일렉트로닉스) 또는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로 반경 2~3 시간 내의 지역(LG 전자, SK 유로켄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남서부의 브로츠와프(Wrocław) 지역이 새로운 투자 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초대형 LCD 패널 공장 건설에 착수한 LG 필립스 LCD와 협력업체, LG 전자(백색가전부문)등이 모두 브로츠와프 부근에 투자기로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서유럽 시장으로 접근이 유리하고 교통 여건 등도 편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 유치청 등 자료 종합 (2006.8))

38. 공장설립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용도허가(Planning Decision)와 건축허가(Building Permit)를 받아야 한다. 지구 종합계획(Local Master Plan)이 되어 있고 동 계획에 맞는 용도로 건설될 경우 바로 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폴란드 내 대부분의 지구 종합계획이 2004년 초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경우 새로운 지구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용도허가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가. 용도허가(Planning Decision)

용도허가는 지방정부에서 받아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500 또는 1:1000 척도의 기본계획도(Main Plan). 만약 기본계획도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표시된 지적도(cadastral map)와 대상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시장가격
- 건설기간 동안의 용수 및 에너지 소비량 예상치 및 하수처리 방법, 지역의 인프라와 관련된 필요사항
- 건설 예정 건물 및 시설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한 그래픽을 포함한 토지개발계획과 방법
- 투자와 관련된 기술적 세부내역
-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 환경영향에 대한 개요
- 대규모 투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용도허가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Law) 및 지구 종합계획법(Local Planning Law)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지역에 대한 지구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행정처리 과정에 있을 경우에는 최종 확정시까지 용도허가가 무기한 연기된다.

용도허가에는 투자의 형태, 허가조건, 세부 준수사항이 명기되며 동 허가조건에 따라 건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용도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되며, 허가 발급 이후에도 건축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지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동 종합계획과 상충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 같은 공공도로를 통해 접근되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부지가 부지 사용목적이나 건설 형태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 대상부지가 공공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하고
- 기존 또는 계획된 사회간접자본이 계획된 투자에 충분하고
- 농지나 삼림이 아니거나 전용허가를 이미 받은 토지여야 하며
- 환경법(Environmental Law)이나 문화재보호법(Monument Protection Law)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건축허가(Building Permit)

건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는 모든 건축 관련된 설계 등 세부사항이 건축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되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건설공사가 중도에 2년 이상 중단될 경우 취소된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부지가 지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도허가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면허를 갖춘 설계사가 작성한 건축허가용 설계도면 4부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을 위해서는 착공 7일전까지 허가당국에 착공 일을 통보해야 하며, 건설업체와 감리업체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다. 점유허가(Occupancy Certificate)

완공 후에는 건설완료 통지서를 건축허가 당국뿐 아니라 환경 당국, 위생 당국, 소방 당국, 노동 당국에 보내야 한다. 동 통지서 접수 후 관련당국에서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점유허가가 발급된다.

건설완료 통지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 일지 원본
- 건축 내용이 폴란드의 관련법규, 건축허가 조건과 부합된다는 건설업체 책임자의 보고서
- 인접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 보고서(필요 시)
- 감리 보고서 등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6.8))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투자유치청

1) 영문명: Polish Information and Foreign Investment Agency (PAIIZ)

- Add: ul. Bagatela 12, 00-585 Warsaw
- Tel: +48 22 334 98 00
- Fax: +48 22 334 99 99
- Web: www.paiz.gov.pl
- E-Mail: post@paiz.gov.pl

2) 기능 및 권한

- 투자환경 관련정보 전파: 경제적 및 법적 투자환경 등
- 투자가의 투자진출 지원: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의 진행을 지원
- 투자가가 적절한 사업파트너, 공급업체 및 투자업지를 발굴하는 것 지원
- 투자과정의 각 단계에서 자문 서비스
- 폴란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폴란드 브랜드(상품 및 서비스) 진흥 등

나. 지역 투자가 지원센터 (COI)

투자유치청(PAIIZ)의 협력 파트너로서 폴란드 전국 각 도(Voivodship)의 주요 14개 도시에 지역투자가지원센터(Investor Assistance Centres; COI)가 설치되어 있다. COI는 PAIIZ와는 별개 조직으로 지방 당국이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단, PAIIZ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PAIIZ의 로고를 사용한다. COI는 지역 차원에서 투자가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one-stop shop”을 지향한다. 주요 업무는 투자제안서 작성 및 업데이팅, 투자 관련 정보 제공, 투자가와 지방당국간 연락업무, 사후 지원 등이다.

각 도별 지역 투자가 지원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Voivodship은 지방행정조직으로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함).

1) Dolnośląskie Voivodship Wrocław Agencja Rozwoju Regionalnego S.A. (Wrocław Regional Development Agency)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Ul. Krupnicza 13, 50-062 Wrocław
- Tel: +48 71 797 04 00, 71 797 04 01
- Fax: +48 71 797 04 07
- Web: www.warr.pl
- E-Mail: skr@warr.pl

2) Kujawsko-Pomorskie Voivodship Urząd Marszałkowski Województwa Kujawsko - Pomorskiego (Marshal Office)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Pl. Teatralny 2, 87-100 Toruń
- Tel: +48 56 621-84-01
- Fax: +48 56 621-83-02
- Web: www.coi.kujawsko-pomorskie.pl
- E-Mail: coi@kujawsko-pomorskie.pl

3) Lubelskie Voivodship Urząd Marszałkowski Województwa Lubelskiego (Marshal Office)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ul. Spokojna 4, 20-074 Lublin
- Tel: +48 81 742 45 60
- Fax: +48 81 534 76 54
- Web: www.lubelskie.pl
- E-mail: coi@lubelskie.pl

4) Lubuskie Voivodship

Agencja Rozwoju Regionalnego S.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ul. Chopina 111/13, 65-001 Zielona Góra
- Tel: +48 68 327 05 04
- Fax: +48 68 325 38 88
- Web: www.region.zgora.pl
- E-mail: agencja@region.zgora.pl

5) Łódzkie Voivodship

Urząd Marszałkowski Województwa Łódzkiego (Marshal Office)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ul. Piłsudskiego 8, 91-051 Łódź
- Tel: +48 42 663 35 80
- Fax: +48 42 663 36 02
- Web: www.lodzkie.pl
- E-mail: k.suszek@lodzkie.pl

6) Małopolskie Voivodship

Małopolska Agencja Rozwoju Regionalnego (Małopolskie Regional Development Agency)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ul. Kordylewskiego 11, 31-542 Kraków
- Tel: +48 12 413 57 69, 413 85 51, 413 89 13 ext. 450
- Fax: +48 12 412 43 79
- Web: www.marr.pl
- E-mail: justyna.turaj@marr.pl, jacek.switala@marr.pl

7) Opolskie Voivodship

Agencja Rozwoju Opolszczyzny S.A. w Opolu (Development Agency in Opole)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pl. Wolności 5, 45-018 Opole
- Tel/Fax: +48 77 454 0247/48
- Web: coi.aro.pl
- E-mail: coi@aro.pl

8) Podkarpackie Voivodship

Rzeszowska Agencja Rozwoju Regionalnego S.A.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ul. Rynek 5, 35-064 Rzeszów
- Tel/Fax: +48 17 852 43 76, 852 43 74
- Web: www.rarr.rzeszow.pl
- E-mail: mszymanska@rarr.rzeszow.pl, kpodraza@rarr.rzeszow.pl

9) Podlaskie Voivodship

Urząd Marszałkowski Województwa Podlaskiego (Marshal Office)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ul. Wyszyńskiego 1, 15-888 Białystok
- Tel: +48 85 748 51 45
- Fax: +48 85 748 51 16
- Web: www.umwp-podlasie.pl
- E-mail: borys.dabrowski@umwp-podlasie.pl

10) Pomorskie Voivodship

Agencja Rozwoju Pomorza S.A. w Gdańsku (Development Agency in Gdańsk)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ul. Piwna 36/39, 80-831 Gdańsk
- Tel: +48 58 323 31 36, 323 32 56
- Fax: +48 58 301 14 31
- Web: www.arpg.gda.pl

11) Świętokrzyskie Voivodship

Special Economic Zone
Investor Assistance Centre

- Add: ul. Radomska 29, 27-200 Starachowice
- Tel: +48 41 275 44 45
- Fax: +48 41 275 41 02
- Web: www.sse.com.pl
- E-mail: sse@sse.com.pl

12) Mazowieckie Voivodship

Urząd Miasta Płocka (City hall of Płock)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ctive Forms of Combating Unemployment

- Add: Stary Rynek 1, 09-400 Płock
- Tel: +48 24 268 06 98
- Tel/Fax: +48 24 268 89 75
- Web: www.plock.um.pl
- E-mail: dgluchowska@plock.um.pl

13) Śląskie Voivodship

Urząd Marszałkowski Województwa Śląskiego (Marshal Office)
Wydział Polityki Gospodarczej (Department of Economic Policy)

- Add: ul. Ligonia 46, 40-037 Katowice
- Tel: +48 32 207 83 71
- Tel/Fax: +48 32 256 32 44
- Web: silesia-region.pl
- E-mail: apiszczek@silesia-region.pl

14) Wielkopolskie Voivodship

Stowarzyszenie Gmin i Powiatów Wielkopolski (The Association of Wielkopolska Municipalities and Counties)

- Add: Al. Niepodległości 16/18, 61-713 Poznań
- Tel: +48 61 854 19 73, 854 14 72
- Fax: +48 61 851 53 95
- Web: www.sgipw.wlkp.pl
- E-mail: telesinski@sgipw.wlkp.pl

다. 관련 정부부처**1)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 Add: ul. Świętokrzyska 12, 00-916 Warsaw
- Tel: +48 22 694 55 55
- Fax: +48 22 694 41 77
- Web: www.mf.gov.pl
- E-mail: sekretariatbm@mofnet.gov.pl

2) Ministry of Economy (경제부)

- Add: Pl. Trzech Krzyży 3/5, 00-507 Warsaw
- Tel: +48 22 693 50 00
- Fax: +48 22 693-40-13
- Web: www.mgip.gov.pl
- E-mail: BPI@mg.gov.pl

3) Ministry of Transport and Construction (수송 · 건설부)

- Add: ul. Chałubińskiego 4/6, 00-928 Warsaw
- Tel: +48 22 630-10-00
- Fax: +48 22 630 11 16
- Web: www.mtib.gov.pl
- E-mail: infogbm@mtib.gov.pl

4)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농업 및 농촌개발부)

- Add: ul. Wspólna 30, 00-930 Warsaw
- Tel: +48 22 623 10 00
- Fax: +48 22 623 12 56
- Web: www.bip.minrol.gov.pl
- E-mail: kancelaria@minrol.gov.pl

5) Ministry of Interior & Administration (내무부)

- Add: ul. Batorego 5, 02-591 Warsaw
- Tel: +48 22 601-44-27
- Fax: +48 22 622-79-73
- Web: www.mswia.gov.pl
- E-mail: rzecznik@mswia.gov.pl

6)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 Add: ul. Wawelska 52/54, 00-922 Warsaw
- Tel/Fax.: +48 22 579 29 00
- Web: www.mos.gov.pl
- E-mail: info@mos.gov.pl

7) Central Statistical Office (GUS, 중앙통계청)

- Add: al. Niepodległości 208, 00-925 Warsaw
- Tel: +48 22 608 30 00
- Fax: +48 22 608 38 63
- Web: www.stat.gov.pl/english/index.htm
- E-mail: m.lukaszewicz@stat.gov.pl

라. 기타 기관**1)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Industry & Commerce**

- Add: ul. Krakowskie Przedmieście 47/51, 00-071 Warsaw
- Tel: +48 22 827 22 34
- Fax: +48 22 826 85 93
- Web: www.iphiz.com.pl
- E-mail: biuro@iphiz.com.pl

2) Founda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Add: ul. Smocza 27, 01-048 Warsaw
- Tel: +48 22 838 03 51
- Fax: +48 22 838 02 61
- Web: www.fund.org.pl
- E-mail: punktinfo@fund.org.pl

3)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 Add: ul. Domaniewska 41, 02-672 Warsaw
- Tel: +48 22 460 36 00, 460 37 00
- Fax: +48 22 460 37 01
- Web: www.arp.com.pl

4) The Polish Chamber of Commerce

- Add: ul. Trębacka 4, 00-074 Warsaw
- Tel: +48 22 630 96 00
- Fax: +48 22 827 46 73
- Web: www.kig.pl
- E-mail: jwezyk@kig.pl

(자료원: 투자유치청, 'How to do business in Poland' 등 (2006.8))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가. 법률, 회계서비스 회사 등

1) Domanski Zakrzewski Palinka

- Add: ul. Emilii Plater 53, 00-113 Warsaw
- Tel: +48 22 557 76 00
- Fax: +48 22 557 76 01
- Web: www.dzp.pl
- E-mail: dzp@dzp.pl

2) Baker & McKenzie

- Add: ul. Armii Ludowej 26 Warsaw
- Tel: +48 22 576 31 00
- Fax: +48 22 576 32 00
- Web: www.bakernet.com
- E-mail: warsaw@bakernet.com

3) White & Case

- Add: ul. Marszałkowska 142 Warsaw
- Tel: +48 22 505 01 00
- Fax: +48 22 505 04 00
- Web: www.whitecase.pl
- E-mail: warsaw@whitecase.com

4) Soltynski, Kawecki & Szlezak Doradcy Prawni

- Add: ul. Wawelska 15B; Warsaw
- Tel: +48 22 608 70 00
- Fax: +48 22 608 70 70
- Web: www.skslegal.pl
- E-mail: office@skslegal.com

5) Dewey Ballantine Grzesiak

- Add: Ul. Książęca 4; Warsaw
- Tel: +48 22 690 61 00
- Fax: +48 22 690 62 22
- Web: www.deweyballentine.com
- E-mail: woffice@deweyballentine.com

6) Wardynski i Wspólnicy

- Add: Al. Ujazdowskie 10; Warsaw
- Tel: +48 22 437 82 00
- Fax: +48 22 437 82 01
- Web: www.wardynski.com.pl
- E-mail: warsaw@wardynski.com.pl

7) Linklaters T.Komosa i Wspólnicy

- Add: ul. Sienna 39; Warsaw
- Tel: +48 22 526 50 00
- Fax: +48 22 526 50 60
- Web: www.linklaters.com

8) LEX-ALPHA Business & Legal Consulting

- Add: ul. Biala 4, 00-895 Warsaw
- Tel: +48 22 620 3119
- Fax: +48 22 620 1772
- E-mail: lexalpha@polbox.com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2006.8))

41. 노무관리**가. 임금 수준**

2005년 폴란드의 기업 부문(enterprise sector)에서 월 평균임금은 2516 PLN(주워티)에 달해 전년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질임금 인상율은 1.2%).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779.79 달러가 되는데 2004년 중반 이후 현지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전년과 비교하여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부문은 광업(7.8%), 건설업(5.5%), 부동산(5.3%) 등인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분야는 상업 및 수리업(1.2%)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정유제품(6.1%),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5.8%), 기계장비(5%) 등의 인상률이 높았고, 목재 및 목재제품(0.9%), 라디오/TV 및 통신기기(1.1%) 등 분야는 인상률이 낮았다. 제조업의 임금 수준은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5년 업종별 임금 수준

(단위: PLN, %)

업종	2004 년	2005 년	증감률
전체	2,439	2,516	3.2
광업	4,082	4,399	7.8
제조업	2,229	2,291	2.8
전기, 가스 및 수도	3,228	3,372	4.5
건설업	2,223	2,344	5.5
상업 및 수리업	2,318	2,346	1.2
호텔 및 레스토랑	1,788	1,847	3.3
수송, 보관 및 통신	2,759	2,835	2.7
부동산	2,380	2,505	5.3

자료원: 폴란드 경제부, A Study of Poland's Economic Performance in 2005

주: 연평균 환율(PLN/US\$) 2004년 3.6540, 2005년 3.2348

나. 최저임금

2006년도 폴란드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899 PLN (약 264 달러)으로 폴란드 평균 임금의 약 35%에 해당한다. 최근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04년 824 PLN, 2005년 849 PLN 이다.

다.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정해진 고용계약 양식은 없다. 고용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고용계약의 종류, 계약 발효일, 근무조건, 급여 등을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업무의 종류, 업무 장소, 근무시간, 근무 시작일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법에 의하여 종업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동 손실이 현찰과 같이 종업원에게 위탁된 것이거나 고의에 의한 손실이 아닐 경우 종업원은 3개월 급여 범위 내에서 변상토록 되어 있다.

2003년부터 임시고용법(Temporary Employment Act)에 의하여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어 파견 근로업체를 통해 임시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사용업체는 파견 근로업체와 업무의 종류, 요구되는 자격수준, 업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은 파견근로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급여는 폴란드 주위티화(PLN)로 지급해야 한다.

라. 법정 근로시간

피고용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동법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근로시간의 초과가 가능하다.

초과근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활동이 필요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보호 혹은 긴급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 고용주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단체협약, 고용주 업무규정, 고용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연중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무일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급여의 200%
- 위에 명시된 시간 외 추가 근무 시 급여의 150%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근무일에 셀 수 있다.

마. 휴가

모든 종업원은 매년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는 10년 미만 근무 시 20일이며, 10년 이상 근무 경력 시 26일이다. 근무경력에는 직장경력뿐만 아니라 교육 기간도 포함되는데 예컨대, 고등학교 인문과정은 4년, 정규대학 과정은 8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각급 학교의 근무경력 인정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규대학 과정을 마치고 처음 입사를 하는 종업원은 근무경력 8년을 인정받아 연간 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2년을 더 근무하면 근무경력 10년을 채워 연간 26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는 첫 아이의 경우 16주, 둘째부터는 18주이며, 쌍둥이의 경우 26주이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최소 2주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산휴가 기간 중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불해야 한다.

병가와 관련, 종업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가는 경우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출퇴근 시 사고나 장기기증 등으로 병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연 33일까지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바. 해고

고용계약의 해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사전 서면통지 기간은 고용계약의 종류,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종업원은 사전 서면통지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서면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3일 :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일 경우
- 1주일 : 계약기간이 2주 이상, 3개월 이내일 경우
- 2주일 : 계약기간이 3개월일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무제한에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
- 1개월 : 계약기간이 무제한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이내일 경우
- 3개월 : 계약기간이 무제한으로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한편, 다음의 경우 사전 서면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 종업원이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경우로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근무지 내 음주,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 불이행), 고용기간 중 명백한 범죄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 등

- 종업원의 실책이 없어도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나, 질병으로 총 3개월간 근무를 할 수 없고, 급여, 치료비 등 혜택을 받았을 때,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 때 등이다.

단, 사전에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 피고용자가 연차휴가 또는 출산휴가일 경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병가 중일 경우
- 정년임기를 마칠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년이 4년 이내로 남았을 때
- 임신 중인 경우

사. 노동조합

폴란드에서 모든 피고용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폴란드 헌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최소 10명 이상의 피고용자에 의해 결성될 수 있다. 피고용자 또는 노동자는 노조 가입 또는 거절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노조 가입을 고용이나 승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노조의 간부는 해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이나 노동조합법은 여러 사항에서 노조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과잉인력의 해고 등의 경우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인수합병(M&A)에는 일반적으로 노조의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폴란드에서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영기업의 경우 아직 노조의 위력이 상당하나, 민간기업에서 노조의 지위나 역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민간부문 노조의 약세는 높은 실업률 등에 원인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하여 사용자 측과의 마찰을 꺼리고 있다.

반면, 광업, 철강업, 철도, 보건 등 국영기업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는 노조의 위력이 상당하며, 고임금, 복리, 反개혁 등을 위해 나서고 있다. 광업, 철도 등 노사분규가 가장 많은 부문을 보면, 비효율, 적자 누적에 따라 민영화,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 왔으나, 노조의 반대로 필요한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고 있고, 아직도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자유노조(Solidarity)의 존재 등으로 폴란드 노조가 강성으로 비쳐지기도 하나, 실제로 폴란드에서 파업을 비롯한 노사분규의 빈도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사분규는 기본적으로 노사 양측의 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은 의견차이서(protocol of opinion differences)를 만들어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밝히고 조정(mediation) 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조정자(mediator)를 선택하게 되는데 경제노동부가 준비한 명단 중에서 선택하거나, 경제노동부가 제안하는 사람을 택할 수도 있다.

조정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갈 권리를 가진다. 노사 양측은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재(social arbitration)를 요청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는 1명의 심판관과 6명의 위원(노사 양측에서 각 3명 지정)으로 구성되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중재가 시작될 때 노사 양측이 이를 따르기로 했으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무역관 자체 조사 등 (2006.8))

42.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개요

폴란드의 조세제도는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의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폴란드의 주된 조세로는 법인 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물품 세, 인지세 등이 있다.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코자 하는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의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의 조세 관련 행정기관으로는 세무서(tax office), 조세국(tax chamber),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 있다. 세무서는 관할지역(지방)에서 세금 징수를 맡고 있으며, 조세국은 세무서들을 관리감독하고 세무서의 행정결정을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무부는 폴란드의 예산정책을 총괄하며, 조세체계 전체를 관리감독 한다.

나. 법인소득세(CIT; Corporate Income Tax)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4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2003년 법인세율은 27%).

과세대상 소득은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총합에서 공제대상 비용, 추가적인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금 등)을 차감한 소득이며, 이것이 과세표준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총수익 - [공제대상 비용 + 이월결손금(5년 내) + 소득공제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공제대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경비: 원자재 구입, 에너지 사용, 수송비 등
-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 감가상각
- 리스 비용
- R&D 비용
- 공제 가능 기부금 등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 공제 비용)의 주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고정자산 취득, 창출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 벌과금
- 주식, 채권 구입비
- 일부 기부금 및 선물 구입비
- 수익의 0.25%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
- 회원가입비: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닐 경우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공제의 대상이 된다. 자산의 가액이 3,500 PLN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시점에서 전액 상각 또는 임의의 상각률 적용이 가능하다. 토지와 같은 특정한 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e)은 다음과 같다.

- 건물: 1.5% - 10%
- 사무기기: 14%
- 컴퓨터: 30%
- 자동차: 20%
- 플랜트 및 기계: 5% - 20%

한편,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는 납세 기업이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 회계연도에 총 손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된다. 그러나, 납세 기업은 12개월을 대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 배당금에 대한 과세: 폴란드에 적을 둔 법인의 이익 분배를 통한 소득(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19%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되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의해 송금된다.
- 이자, 로열티, 무형서비스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이자는 소득이면서 공제대상 비용으로 간주된다. 즉, 이자는 채무자에게는 공제대상 비용이 되며 채권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법인에 지급되는 이자는 20%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로열티와 무형서비스(컨설팅, 회계, 시장조사, 법률서비스 등)의 경우에도 20%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개정 법인세법(2004. 11. 18)은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5. 7. 1 - 2009. 6. 30 중 10%, 2009. 7. 1 - 2013. 6. 30 중 5%, 2013. 7. 1일 이후 면제로 되어 있다.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협정에 의거, 한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배당금 5/10%(수혜업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5% 적용), 이자 0/10%(정부/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지급 시 0% 적용),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다.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폴란드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개인은 유한 또는 무한 조세 책임을 갖게 된다. 특정 개인의 조세 지위(tax status)는 개인이 폴란드에 ‘거주지’(place of residence)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폴란드에 거주지가 없는 개인(주로 외국인 임)은 비거주자로 인식되어 유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반면, 거주지가 있는 개인(주로 내국인 임)은 거주자로 인식되어 무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모든 소득과 이득(benefit)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데 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possible deduction from income)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자연인에 대한 기부는 제외, 2005년부터 소득의 6%까지 인정)
- 폴란드 사회보장제도 관련 납부금
-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용비(2005년부터 연간 760 PLN까지 인정) 등

또한, 과세액에서 공제(possible tax deduction)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폴란드 건강보험에 납부한 보험료(건강보험 산출표준의 7.75%까지)
- 자선단체에 대한 현금(최종 과세액의 1%까지) 등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대상 소득	개인소득세율
37,024 PLN 미만 (US\$ 10,889 미만)	19% 빼기 530.08 PLN (19% 빼기 US\$ 156)
37,024 - 74,048 PLN (US\$ 10,889 - 21,779)	6,504.48 PLN + 37,024 PLN 초과분의 30% (US\$ 1,913 + US\$ 10,889 초과분의 30%)
74,048 PLN 초과	17,611.68 PLN + 74,048 PLN 초과분의 40% (US\$ 5,180 + US\$ 21,779 초과분의 40%)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 웹사이트(www.paiz.gov.pl), 2006

주: 적용환율 US\$ 1 = 약 3.3 PLN

상기 표에 나타난 소득세율은 개인의 총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소득 세법에서는 특정한 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폴란드 및 해외에서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19%를 과세하며, 부동산 판매를 통한 이익에 대해 10%를 과세한다.

개인에 대한 과세연도는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된다.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납부하며, 폴란드 고용주들이 피고용원의 보수에 대한 세액을 산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라. 부가가치세(VAT)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2004년 5월 1일 이후 부가세(VAT) 법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폴란드의 규정은 EU에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EU 가입 후 부가세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고 EU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역내(intra-community) 공급 및 인수로 대체되었다.

부가세(VAT, Tax on goods and services)는 폴란드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조세이다. 법인은 연간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하면, 부가세 대상업체로 등록되어야 한다.

부가세의 기본세율은 22%이며, 이 세율이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단,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세율이 인하되어('reduced VAT rate') 과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물품/서비스 별 부가세율 현황

세율	물품 및 서비스
22%	- 기본세율, 대부분 품목에 적용
7%	- 일부 식품 - 약품 및 보건관련제품 - 일부 아동용품 - 호텔 및 케이터링(catering) 서비스: 2007년 말까지 - 건설 및 주택관련 보수 서비스: 2007년 말까지 - 일부 수송 서비스 - 도시 서비스(상수, 하수처리, 도로 유지 등) - 비료
3%	- 농업부문에서 제조되는 원료 (2008년 4월 말까지)
0%	- EU 역내 물품 공급, 제품 수출, 일부 국제운송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 서적 및 특정 잡지(2007년 말까지), 선박 및 항공기용 일부 물품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 웹사이트(www.paiz.gov.pl), 2006

일부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문화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등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납세 기업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구입시 지불 부가세(input VAT라고 함)를 환급 받을 수 없다. 한편, 2004년 5월 EU 가입과 함께 건축자재,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에 대한 부가세율이 7%에서 22%로 인상된 바 있다.

부가세 납부대상 등록회사는 구입시 지불된 부가세(input VAT)를 매출 시 징수된 부가세(output VAT)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부가세 납부업체 사이의 거래는 부가세 송장(VAT invoice)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등록된 부가세 납부업체는 매월 부가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가세 관련 구매 및 판매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수출통관 후 수출용 원자재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지불된 구입 부가세(input)도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은 최대 180일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기업이 인하된 부가세율 또는 영세율로 과세되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거나, 구입 부가세가 고정자산 매입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환급 기한이 60일, 더 짧게는 25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마. 기타 세제

2004년 5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물품세법에 따라 물품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조화된 물품세 제품(Harmonised excise duty goods)으로 석유, 주류, 담배 등 EU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하나는 非조화 물품세 제품(Non-harmonised excise duty goods)으로 자동차, 향수 및 화장품, 전기 등 폴란드 자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이다. 물품세는 제품 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물량기준(단위당 고정비율)에 따라서 산출된다. 재무부 장관은 연중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물품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세(Local tax)에는 부동산세, 차량세(트럭과 버스에만 부과됨), 증여세, 산림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체에서 이러한 세금들에 대한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나 재무부 명령에서 정한 최고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인지세(Stamp duty)는 행정행위 등에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공적인 신청, 공적 행위, 증명서, 허가 등이 포함된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IZ) “Poland How to do business” (2006.8) 등)

43. 외환관리

폴란드의 경제발전 및 2004년 5월 EU 가입 등에 힘입어 외환 거래에서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의 경우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대규모 외화 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로서 개인의 경우에도 합당한 사유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면 송금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2002년 10월 발효된 외환법(Foreign Exchange Law)이 현재 외환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법은 외환 거래의 유형을 1)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 등)과의 외환거래, 2)BIT 국가(폴란드와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로 非OECD) 및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거래로 크게 나누고 있다.

가. 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로서 EU가 아닌 국가)과의 외환거래

이 국가들과의 외환거래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특히, 거주자(기업 및 개인)는 인가 없이도 이들 국가에서 은행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취득, 단기 증권 및 파생상품 발행과 거래, 단기 증권 및 파생상품 구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차입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국가 출신의 비거주자들은 외환관련 인가 없이도 폴란드 증권, 채권 및 단기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이 범주에 속하는데다 지난 1989년 폴란드와 투자보호협정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거주자)이나 주재원(비거주자)의 경우 외환거래와 관련한 제한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투자협정은 소득의 송금을 포함한 투자와 관련한 지급(payment)의 태환가능 화폐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나. BIT 국가 및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거래

BIT 국가란 폴란드와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며 아르헨티나,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한다. BIT 국가와의 외환거래에는 다소의 제한조항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BIT 국가에 있는 거주자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해당국가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으로 제한되는 등이다.

OECD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이 아닌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거래에서 제한의 범위는 가장 넓어진다.

□ 환율 제도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00년 4월 기존 환율체제인 관리 변동환율제(중앙 패리티율 및 $\pm 15\%$ 의 변동폭 운용)를 폐지하고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2000년 이후 폴란드 현지화인 주워티는 매년 소폭 평가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주워티화의 대US\$ 年 평균환율(주워티화/US\$ 1)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04년 중반부터 주워티화의 가치가 급등하여 주워티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4년 초만 해도 US\$ 대비 주워티 환율은 3.8 ~ 3.9에 달했으나, 하반기 이후부터 주워티화의 평가절상이 계속되었다. 2006년 들어서도 주워티화 강세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주워티화의 US\$에 대한 환율은 3.0 ~ 3.2 정도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워티화의 대US\$ 연평균 환율 변동 추이

- 2000년 4.3464
- 2001년 4.0939
- 2002년 4.0795
- 2003년 3.8889
- 2004년 3.6540
- 2005년 3.2348

(자료원: 폴란드 중앙은행(NBP) 자료 등 종합 (2006.8))

44. 이주정책 가이드

가. 비자 취득

폴란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비거주자(외국인)가 받을 수 있는 비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시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ce visa), 노동허가 비자(visa with work permit), 임시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영구거주 허가 등이 그 것이다.

임시거주 비자는 폴란드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체재할 수 있게 하며, 제한된 기한 동안 유효하다. 이 비자로 폴란드에 들어온 외국인이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입국일부터 12개월 내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허가 비자는 폴란드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비자는 회사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주(voivodship) 당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비자는 외국인의 본국(home country)에 주재하는 폴란드 공관에 의해 발급된다. 비자 갱신의 경우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주 당국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임시거주 허가는 외국인이 거주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로는 폴란드 내 노동허가 발급 또는 사업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한-폴란드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폴란드에 비자 없이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다. 폴란드에 주재원 또는 취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노동허가, 노동허가 비자, 임시거주 허가를 받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비자면제협정에 의거 무비자 입국 (90 일 체류 가능)
- 주(voivodship) 노동사무소에서 노동허가에 대한 약속증(promise) 취득
- 한국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노동허가비자 취득
- 폴란드 입국 후 노동허가 취득
- 임시거주 허가증 또는 거주카드 취득(노동허가, 비자 갱신을 통해 장기 체류 시)

폴란드의 노동허가나 거주허가 발급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구비서류도 많으며, 언어상 (폴란드어 작성)의 장애도 있다. 노동허가는 보통 1년간 유효한 것으로 발급된다.

나. 자녀 교육여건

폴란드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국제학교)은 대부분 바르샤바와 그 근교에 위치하고 있다. 폴란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녀들을 주로 아메리칸 스쿨과 브리티쉬 스쿨에 보내고 있다. 아메리칸 스쿨은 ASW(American School of Warsaw)와 IAS(International American School of Warsaw) 등 2 개가 있다.

학교 시설이나, 교육 수준은 상당히 좋은 편이며, 미국, 영국 등 국가의 대학에서 학력, 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학비는 꽤 높은 편인데 ASW 의 경우 1 학년~5 학년의 연간 학비가 15,000 달러를 넘는다(학비에 포함된 이외 별도의 기부금은 없다). 브리티쉬 스쿨(The British School)의 고등학생 학비는 연간 8,800 파운드 정도이다.

ASW 는 바르샤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통학 시 승용차나 스쿨 버스(월 이용료 20 만원 정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프랑스 학교, 일본 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인터내셔널 스쿨

학교명	주소	전화/팩스
American School of Warsaw	Bielawa, ul. Warszawska 202, 05-520 Konstancin-Jeziorna	+48 22) 702 8500/ +48 22) 702 8599
The British School	ul. Limanowskiego 15, 02-943 Warszawa, Poland	+48 22) 842 3281/ +48 22) 842 3265
International American School	ul. Dembego 18, 02-796 Warszawa, Poland	+48 22) 649 1440/ +48 22) 649 1445

다. 병원, 약국

현지 병원을 이용할 때는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은데 모두 개인병원이다.

1) LIM Medical Center

- 주소: UL.Jerozolimskie 65/79, 00-697 Warsaw
- 전화: 48 22) 458 70 00
- 웹사이트: www.cmlim.pl

2) Medicover

- 주소: UL.Jana Pawla 27, Atrium, Warsaw
- 전화: 48 22) 860 82 95
- 웹사이트: www.medicover.com.pl

3) Damian Medical Center

- 주소: UL.Walbrzyska 46, 02-739 Warsaw
- 전화: +48 22) 566 22 22
- 웹사이트: www.damian.com.pl/english

약품은 의사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으나, 종합감기약, 두통약 정도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다. 약국은 “APTEKA” 라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시내 곳곳에 많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라. 주택 임차

월 주택임차료는 아파트의 경우 평방미터당 US\$ 11-12 내외이다.

- (예 1) 120 s/m : US\$ 1,320 - US\$ 1,440
- (예 2) 160 s/m : US\$ 1,760 - US\$ 1,920

통상 임차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산출하며, 한국과 같이 공용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례이다.

아파트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 침대, 냉장고, 소파, 책장, 전자레인지, TV, 청소기 등을 포함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퍼니쉬드’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인 쌍방이 사전에 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모델, 가격, 용량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여 구입해야 하므로 최종 입주 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최소한 3주 이상)이 소요 될 수도 있다.

임차계약기간은 보통 2년-3년이며, 임차기간 중 중도해약 시에는 2-3개월 전에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게 되는데 이 경우 1개월 임차료를 중개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보증금으로는 1개월 치 임차료를 선금으로 소유주에게 납부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 받게 된다.

관리비는 아파트의 경우 보통 월 임차료에 포함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세, 가스세, 전화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마. 자동차 구입

메이커, 모델,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차량 가격이 상이하나, 대체로 1,500cc인 경우 US\$ 9,000 - 10,000, 2,000cc는 US\$ 14,000-17,000, 2,500 cc는 US\$ 24,000-25,500, 3,000cc는 US\$ 37,000 정도 이다. 현지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스텝기어 이며, 오토 기어는 흔하지 않은데다 가격이 높아진다.

차량 보증기간은 통상 3년이며, 차량보험료는 종합보험인 경우 연간 US\$ 600-700 내외인데 2004년 이후 현지화 강제로 올라가는 추세이다.

폴란드에는 현대자동차(판매법인), 기아자동차(판매법인)가 진출해 있고, 대우의 일부 차종도 생산되고 있어서 한국산 자동차 구입이 가능하다.

바. 은행 계좌 개설

계좌개설은 간단하다. 여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2일이면 계좌가 개설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단위를 지정하여 외화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된 계좌에 외화예금을 할 경우 폴란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외환소지 신고서를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사. 전화신청

외국인이 전화를 신청할 경우는 주택임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서와 여권이 있으면 된다. 지역의 국영통신공사(TP SA)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2주 내에 통신공사는 신청 서류 및 전화연결 가능성(기술적인 면)을 검토한 후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준다. 전화 연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TP SA를 통할 경우 거의 1개월이 소요된다.

폴란드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동전화 사용을 원할 경우 이동전화 사업자의 본 지점을 방문하여 이동전화기와 단기사용 카드를 구입하면 카드 대금만큼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Plus GSM의 Simplus, Era GSM의 Tak-Tak, Centertel의 POP 카드가 그것이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2006.8))